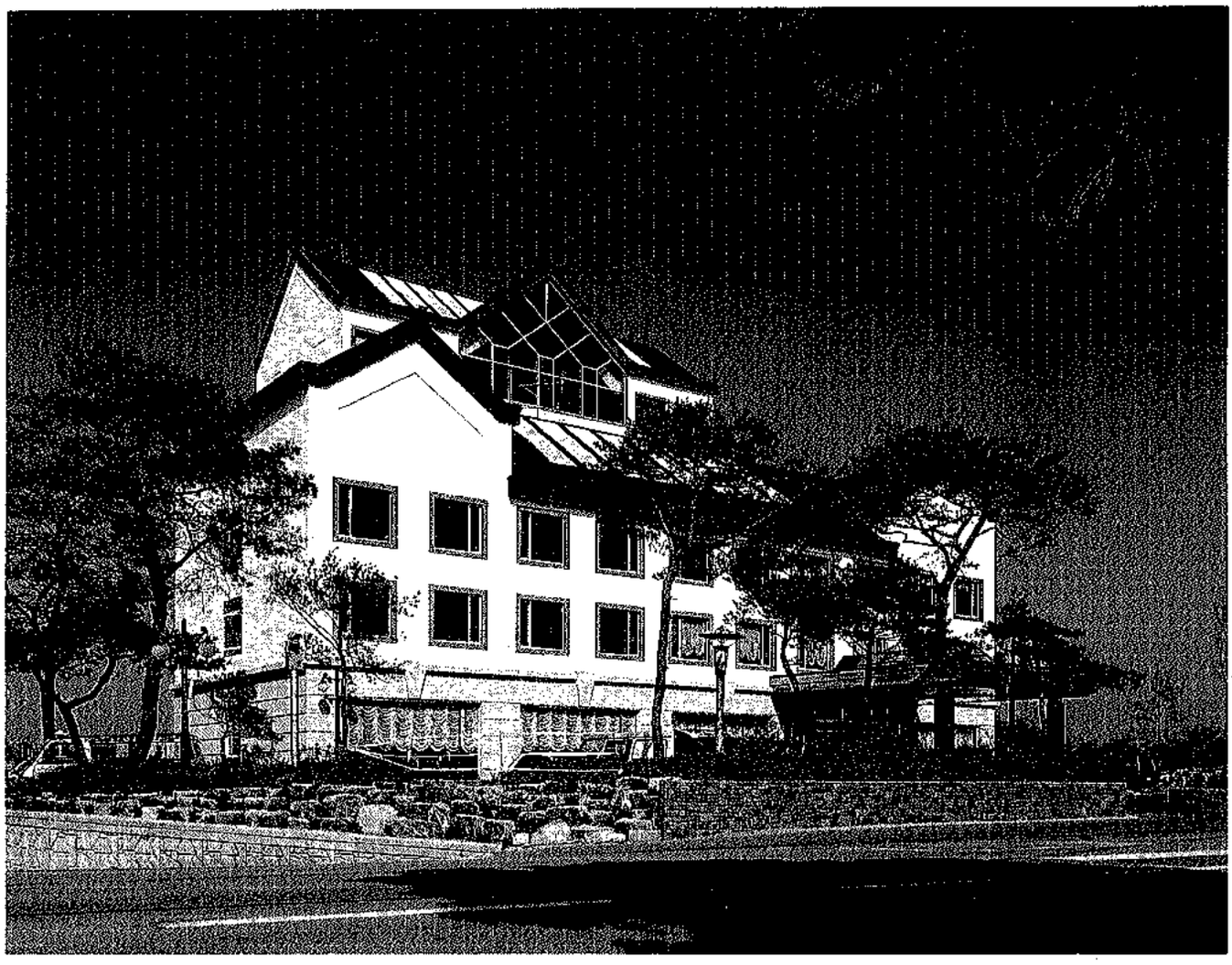
月刊 建築士 1994년 10월호
통권 306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12월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October 1994



칼럼
건축감리의 올바른 방향모색／김규태

건축탐방
스탈린 바로크／김인철

기고
건축사는 시공업을 하자고…／박순종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3)／송 률

연구
한국의 전통건축(3)／장순용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6)／박효순

현상설계경기
부산당감지구 아파트, 제주호텔

전시 J
'94호 540.5
회원
이회 대92ㄱ
초동 306c.3 영정
종국 득
경상북도 과학교육원／이근곤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서보광

10
OCTOBER

공 고

94년도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1994. 9. 10
대한건축사협회장

1. 최종합격자발표	○'94. 12. 28예정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 및 관보에 공고	○'94. 12. 28 예정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 및 관보에 공고
2. 시험일자	○'94. 11. 6	○'94. 11. 6
3. 시험기간	○건축계획 : 10 : 00－11 : 30(90분)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 연속시행 ○건축설계 : 13 : 00－18 : 00(300분) －실기, 연속시행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 10 : 00－12 : 00(120분) －객관식, 연속시행
4. 건축설계과제명	○학교시설(대학제외) ※설계용지 A1 규격 1매 작성	○해당없음
5. 건축계획배점 비율	○주관식 40%, 객관식 60%	○해당없음
6. 합격자면허증 교부	○'95. 1. 20예정	○'95. 1. 20예정

7. 시험장소

수험번호	장 소	소 재 지	교 통 안 내
00001～03116	서울고등학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⑥번출구 도보 13분
03124～04949	서초고등학교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⑥번출구 도보 5분
04951～06584	서초중학교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⑥번출구 도보 10분
06588～08997	양재고등학교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⑧번출구 도보 2분
특별전형시험응시자	서울고등학교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⑥번출구 도보 13분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우려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지참물

1)공 통 : 수험표, 주민등록증

2)설계시험 : 600㎜×900㎜ 규격 정도 제도판 필히 지참(경사각도 조절장치 부착된 제도판 사용 가능), 흑색연필(건축설계시험용), T형자 또는 제도판 부착 평행자,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지우개, 기타 제도용품(단, 기계식 제도기 사용 불가)

※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2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설계시험을 실시함.

3)필기시험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객관식 선택형 답안용), 흑색 또는 청색 볼펜, 만년필 등의 필기구(주관식 필기시험용)

9. 응시자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개시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일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수험표 분실자는 반명함판 사진2매,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2차시험일 시험시행 1시간 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시행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건축설계용지(깔판용지 포함)는 본 협회에서 배부하며, 책상, 깔판용지 등을 일체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제출서류의 오기, 미비 등 공고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험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출된 시험답안지를 열람할 수 없음.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 또는 건설부(건축행정과)로 문의 바람.
☎ 대한건축사협회 (02)581-5711～4, 건설부(02)500-2861～2

차례/1994년 10월호 통권 306호

칼럼

건축감리의 올바른 방향모색／金奎泰 **20**

전시회

'94한국건축문화大賞 **22**

회원작품

이화호텔／金善洋 **30**

초동교회 안성수양관／朱榮正 **36**

증권감독원／(주)정림건축 **42**

경상북도 과학교육원／李根坤 **48**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徐輔光 **54**

계획작품

대구카톨릭대학병원／金武權 **60**

회원갤러리

꽃과 과일／金善洋 **62**

범건축／尹汝郁 **63**

건축탐방

스탈린 바로크／金仁喆 **64**

기고

건축사는 시공업을 하자고 시공업체들처럼 요구하지 말자／朴淳鍾 **67**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3)／宋 律 **68**

연구

한국의 전통건축(3)／張順鏞 **76**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6)／朴孝洵 **82**

현상설계경기

부산당감자구 아파트 **90**

제주호텔 **98**

통 계

1994년도 8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02**

협회소식 **104**

發 行 人：吳雄錫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 員 長：李俊憲
委 員：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馥, 金宗植
編輯·取材：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1965年 10月 23日)
住 所：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070
電 話：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02)586－8823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 錄：1967年 3月 23日
U. D. C：69／72(054－2)：0612(519)
印 刷 人：李鳳秀／正文社

표지사진／이화호텔
(설계／김선양)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2-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회/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회/중구무교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88-1486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53-2892 ·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166-46, 437-7356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410, 922-5117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2-2275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범천동847-18, 28 (051)634-4973~9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1-8, (053)753-8980~5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3350~4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1-1551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876-0458 ·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8-22, (0333)666-6153 · 고양분회/고양군원당구고38블럭16롯트,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0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220-2, (02)68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시흥분회/(032)594-4121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90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5-14,

CONTENTS VOL.306. OCTOBER 1994

COLUMN

The Course of Exhaustive Supervision/Kim, Kyu-Tae 20

EXHIBITION

Korea Architecture Award '94 22

WORKS

Ihwa Hotel/Kim, Seon-Yang 30

Chodong Church Community Complex/Joo, Young-Jung 36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42

Kyeongbuk Educational Science Training Center/Lee, Keun-Gon 48

Yungnam Junior Graduate School/Suh, Bo-Kwang 54

PROCESS WORK

T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Kim, Mu-Kwon 60

GALLARY

Flower & Fruit/Kim, Seon-Yang 62

World Wide Architecture/Yoon, Yeo-Wook 63

ARCHITECTURE REPORT

Stalin Baroque/Kim, In-Cheorl 64

FEATURE

But, We don't demand for Construction Work/Park, Soon-Jong 67

REPORT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3)/Song, Yul 68

REPORT

Houses of Kang-neung Province(3)/Chang, Soon-Yong 76

ARCHITECTURE TRAVEL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6)/Park, Hyo-Soon 82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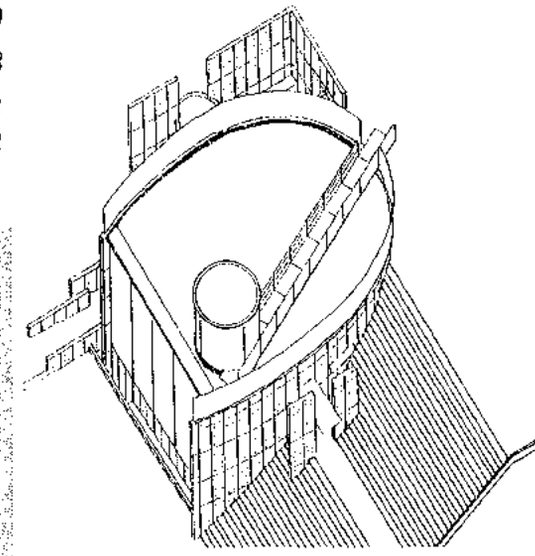
Pusan-shi Tanggam-District Apartment 90

Cheju Hotel 98

STATISTICS 102

KIRA NEWS 104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Yang, Hae-Yoon/Choi, Tae-Yong/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391)41-7371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60-12, (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가6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의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5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31-1,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중동1가77-21, (0653)52-3796 · 군산분회/군산시창동35-4, (0654)43-3816 · 남원분회/남원시 하정동 59-1, (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8(추선회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분회/순천시장천동51-11(066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11번지, (0662)652-7023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803-4, (056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하망3동341-12, (0572)34-5560 · 점촌분회/점촌시중앙동280-3, (0581)53-6877 · 상주분회/상주시남상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중방동859-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분회/영천시창구동26-10, (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4 ·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745-6403 ·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557)64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금동91-6, (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건축감리의 올바른 방향 모색

The Course of Exhaustive Supervision

金奎泰/건축사사무소 예일
by Kim, Kyu-Tae

건축물에 대한 건축감리는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의 불만과 갈등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감리를 감독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건축설계의 연장행위로써 감리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부족 탓으로 그 이유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종사자 및 행정부가 감리업무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등한시 해왔다는데 그 일차적 원인을 찾는 것이 현명한 문제해결의 출발이라 여겨진다.

먼저 실무자 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감리 및 감독의 용어를 살펴보면 국어대사전에 감리는 "감독하고 관리함"이라 기술하고, 감독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 명령, 제지하는 행위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감리와 감독의 구별 자체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전문용어로서 감리와 감독은 단순한 어감상의 차이를 넘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사법 제2조 4호를 보면 감리라 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규정은 공사감독관 복무규정(건설부 훈령 제 68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독관이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에서 감리와 감독은 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대별되어 통칭되는 감리는 광의의 설계로서 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완료하기까지(때로는 사후 평가를 위한 작업까지)시공과정에서 현장설계 또는 보완설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는 시공과정에서 설계의 연장작업이며,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시공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리고 시공관리로 대변되는 감독은 착수전 시공계획 수립부터 기업이윤확보를 위한 원가계산, 소요자재의 규격 및 자질검사 그리고 품질관리, 공기단축과 신공법채택과 개발 등 공정관리, 자재관리, 안전관리, 장비관리, 준공 및 정산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전과정과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시공자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축사가 담당하는 "감리"는 시공자 및 발주처가 담당해야 할 "감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감리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감리와 감독이 갖는 개념정리의 불분명함과 이 불분명함에 가리워 자행되고 있는 힘의 논리에 따른 행정부의 책임전가 및 시공자의 책임회피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감리비 책정에 따른 불합리성과 수주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일부 이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감리구조의 왜곡을 방기한 건축사의 현실타협적 자세의 문제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감리업무에 따른 문제해결의 해법은 힘의 논리에 바탕한 제도적, 관행적 불합리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같다.

먼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생겨난 별도감리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청이나 시청의 해당공무원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모든 건축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없으니까 건축사에게 준공무원의 자격을 주어

“

특히 미래사회에서 국민은 단순한 양적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를 지나 질적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한 업무에 따른 건축사의 의식전환이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축감리는 한차원 높은 건축의 질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보장되어야 할 건축행위이다. 건축감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

행정적인 관리, 감독까지 하도록 한 이 별도감리제도는 근본적으로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 차원을 넘어 커다란 멍에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사는 감리업무만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해야 할 조사업무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많이 있고, 규정상에 감리자의 권리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시공자나 건축주가 건축한 불법건축물들에 의해 우리 건축사들이 자꾸 행정 조처를 당하고 있다. 건축사 본래 업무가 아닌 별개의 규정으로 건축사 고유업무가 원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객이 주인을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하는 모순은 없애야 한다.

다음은 감리와 감독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에 가려진 시공자의 책임회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차 거론되었지만 감리는 기본적으로 설계의 연장으로 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즉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시방서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발견하고 설계의도가 이러한 것이니 이렇게 해달라고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축사 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공업자의 교묘한 책임전가로 인해 건축사가 시공자가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감독업무를 강요받고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건축사가 감리자의 자격으로 시공자에게 건축시 50㎜단열재를 쓰라고 했는데, 확인시에는 50㎜를 쓰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30㎜짜리의 단열재를 썼을 경우 건축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현행 법이나 제도가 공사의 1차적인 책임을 시공업자가 지도록하고 있고, 건설업법에도 해당공정의 기술은 자격증소지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비대해지자 그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모든 책임이 건설업자가 아닌 설계,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건설부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정의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각 지역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감리과를 두어 건축사의 감리업무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감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보다는 감리자인 건축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만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생각되는 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해온 건축사의 안이함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수주에 급급하느라 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윤추구에 매달려 건축사의 고유업역으로서 감리를 등한시하거나 방기하여 감리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초 어렵게 마련된 설계 및 감리 보수요율 현실화가 건축사 자체의 수주경쟁으로 인해 일부 왜곡되고 있음은 모든 건축사가 깊히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다.

모든 사회부문이 그러하듯이 건축문화부문도 문명적 사상이 하나 하나 변할 때마다 같이 대응하여 변천하였고, 그 중 건축법 및 그 관계법은 건축문화의 하드웨어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민감한 대응을 하면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이와 더불어 건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의 역할도 시대에 맞는 질적, 양적 변화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국민은 단순한 양적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를 지나 질적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한 업무에 따른 건축사의 의식전환이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축감리는 한 차원 높은 건축의 질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보장되어야 할 건축행위이다. 건축감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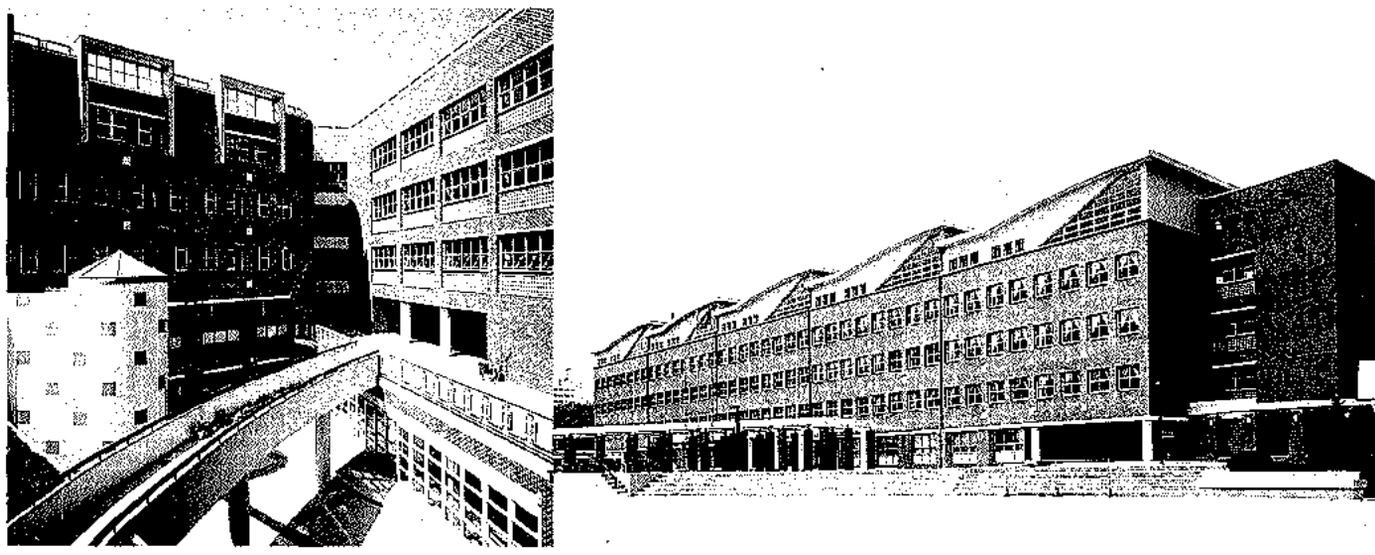
'9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심사발표

본 협회와 건설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1세기 신건축문화창달을 위한 국내최대 규모의 건축문화행사인 「'9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우리 협회가 개최해온 「한국 건축전」과 지난 92년부터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부가 공동개최해 온 「한국건축문화 대상」을 통합, 개최하게 된 「'94한국건축문화대상」은 '환경과 조화, 인간중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내건축계에서 활동중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는 물론 우리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인과 학생이 참가하였다. 총 81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는 대상 1점과 본상 4점 등 28개 작품을 수상하기로 하였으며, 계획 건축물부문에서는 신인부분 15점과 학생부문 127점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및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하였다.

준공건축물 부문

1. 작품접수 현황(81점)
   - 비주거/68점
   - 주 거/13점
2. 심사일시
   - 1차심사(사진첩심사)/'94. 9. 5
   - 2차심사(현장심사) /'94. 9. 9~9. 16
3.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이명호(대한건축학회 회장)
   - 위 원/강석원(그룹가건축 대표)
     김광욱(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희수(93년도 대상수상자)
     윤승중(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상순(롯데건설 사장)
     임영숙(서울신문 논설위원)
     조창환(경희대 부총장)
     (가나다순)
4.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10. 6(목)~10. 20(목)
   - 장소/현대주택문화센터
5. 수상작 현황

시상명		건축물명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대 상		민정학원	(주)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문정일	쌍용건설(주)	학교법인 민정학원
본상	비주거	아주대학교병원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대우	학교법인 대우학원
		여담교회	(주)정림건축 김정철	(주)프렌스건설	여담교회
		SBS등촌동 Studio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최관영+정동명	(주)태영	(주)서울방송
	주거	포이탑 빌라	한·공간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한재원+최병일	현대산업개발(주)	이종무+변재덕
우수상(설계)		EXPO A.P.T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성	대우, 롯데, 삼성, 선경	대우, 롯데, 삼성, 선경
		전쟁기념관	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성원+박홍길	동아건설산업(주)	국방부장관
입 선		국제신문사 사옥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흠	롯데건설(주)	국제신문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연구관리동	(주)대우건설엔지니어링 본부 이항섭	(주)대우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장석웅	한진건설(주)	인천직할시
		꼴라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김인철	진명종합개발(주)	김광선, 김영중
		이문 291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	(주)산원산업	김기혁
		명보 프라자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아키반 김석철	삼성중공업(주)	명보프라자
		연세 세브란스빌딩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송기틱	(주)대우	연세재단
		서울대 박물관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현대산업개발(주)	서울대학교
		대한투자신탁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동부건설(주)	대한투자신탁(주)
		동양증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상묵, 김광수, 박 승	삼성건설(주)	동양증권(주)
		용두리주택	메타건축 이종호+양남철	허 정	박영춘
		분당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환경동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의식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주)
		서화정동 주민회관	종합건축사사무소 서관·미래 허정도	중앙토건(주)	창원사
		해태사옥	정원종합건축사사무소 임용택	해태제과건설사업부	해태제과(주)
		초동교회 만성수양관	(주)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영정	서준하우징	초동교회
		'93대전 EXPO소재관	(주)세가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보+박경수	거양개발(주)	포항제철
		곤지암컨트리클럽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충언, 김광섭	럭키개발(주)	회성관광개발(주)
		영동 제일병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	진덕산업(주)	노성일
		EXPO '93우주 탐사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수+박 승+한상묵	삼성건설(주)	삼성전자
		서강대 다산관	(주)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부태진	현대건설(주)	서강대학교
		증권감독원	(주)정림건축	동부건설(주)	증권감독원



준공건축물부문 대상／민정학원(본지 9월호 참조)

계획 건축물 부문(신인·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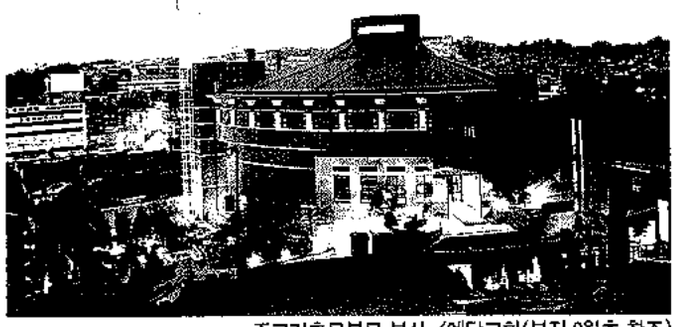
1. 작품접수현황(142점)
   - 신인／15점
   - 학생／127점
2. 심사일시
   - '94. 9. 7
3. 심사위원명단
   - 위원장／최관영(일건건축대표)
   - 위　원／김광현(서울대건축공학과 교수)
     김택성(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상경(예전건축대표)
     민현식(민현식건축 대표)
     이정근(우리계획건축대표)
     최영집(탑건축대표)
     (가나다순)
4.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10. 6(목)~10. 20(목)
   - 장소／현대주택문화센터
5. 수상작 현황

신인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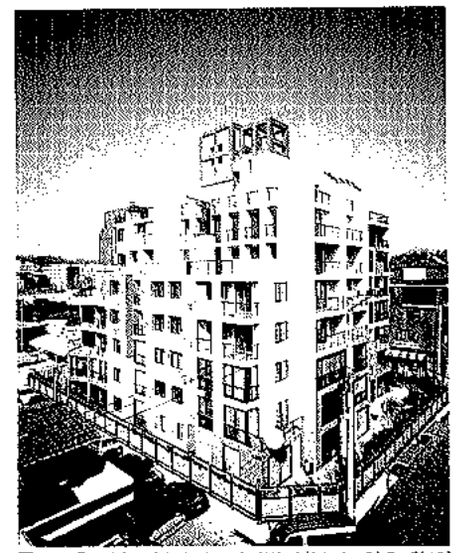
구 분	작 품 명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Station－도심가로변 소규모 건축	정기훈, 고혜경	경원대 대학원 건축학과
우 수 상	봄·여름·가을·겨울	최봉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인
장 려 상	소유하는 공간 존재하는 공간	서현철, 양승중	(주)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Symbiosis(공생)－근린공원시설 Complex	박윤종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Art Complex	김윤정, 황길순	정열엔지니어링·무원건축
입 선	국립중앙 박물관	심재군	(주)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Urban Trace (지역민+여행자를 위한 도시안내관)	서석원, 강형찬	(주)신동아건축, 아키안
	기억(서대문 형무소 기념관)	이희영, 이경선	건축사사무소 이르택
	From stack to stackless library	남상환	부산대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기억에 대한 현상적 의미	홍성욱, 박영철	큐빅 디자인연구소

학생부문

구 분		작 품 명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Hybrid Metropolitan Infrastructure	김덕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rchitecture Sub.
우 수 상		Time-Museum of Contemporary art	김남훈	한양대 건축공학과
		淸·美	조영선, 황창석	홍익대 건축학과
장 려 상		우리마을	한재형, 최유종	중앙대 건축공학과
		파출소는 …전시된다	김장균, 노재만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응용과학 기술센터	신진섭, 박희락	충남대 건축공학과
		Park·Parking·People·	김재정, 조성범	충남대 건축공학과
		A Place for Connection -지역문화 교류센타	최재성, 김선주	부산공업대 건축과
		From here to there	변상규, 김인복	청주대 건축공학과
		존재방식－건축전시장, 설계사무실, 주거	류정희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Consideration of History	심충렬, 성기수	목원대 건축학과
		흔적	김양섭, 강민성	목포대 건축학과
		우리의 삶은…	민지승, 김율모	목포대 건축공학과
시. 도건축 사회장상	서울	Mode in Road	정승운, 박근철	건국대 건축공학과
		Identity Crisis -인사동 계획-	한훈기	명지대 건축공학
	부산	Gap·Time·Memory (도심의 기억력 형성을 위한 장치)	백수영, 장명화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광주	삶의 공존	박 호, 박계록	광주대 건축학과
	대전	한울타리	장서균, 김문장	충남대 건축공학과
	충북	Linear Configuration	김동식, 김종익	청주대 건축공학과
입 선		적은 이야기	김성수, 우영선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B 612(아이들의 성)	문병인, 박건기	숭실대 건축공학과
		Open School	천 보, 신상우	홍익대 건축공학과
		한강다리공원 계획안	이종구, 이동규	연세대 건축공학과
		존재의 위치적 중요성, 복합 주민시설	권경태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Revival	김인환, 박극자	동의대 건축공학과
		Rendezvous a city	염진용	충북대 건축공학과
		(샛길 딸린 도시형 주택) 마당	박상훈, 조혜원	충북대 건축공학과
		어떤제안(소규모 파출소 계획안)	남승희, 김연수	목원대 건축학과
		流…人	이병규, 송연호	청주대 건축공학과



준공건축물부문 본상／예닮교회(본지 9월호 참조)



준공건축물부문 본상／포이탑빌라(본지 8월호 참조)

심 사 평

■ 준공건축물부문／총평

李明浩/대한건축학회장

준공부분에 대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한해 동안의 건축창작활동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시상이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입선작은 사진첩에 의해 1,2차에 걸쳐서 선정되었고, 입선작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주거부분의 응모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작품내용에 있어서도 돋보이는 특징을 찾기가 어려워 입선작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반면, 비주거부분에서는 건물의 용도, 기능, 스케일 그리고 조형표현 등이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데 크게 고심하였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된 작품이 적지 않았다. 응모작품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설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인간중시 및 환경과의 조화구현, 건축문화창달 및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창작의욕의 고취라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기능과 예술성에 대한 충실성, 독창적인 새로운 이미지추구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작품행위에 귀감이 될 작품성을 내포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상이상의 수상작품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동시에 수상되는 것이므로 현장심사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현장심사에서는 이를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가 삼위일체가 되어 창의성있는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한 협동적 노력의 척도를 가늠하는데 비교적 큰 비중을 두었고 전반적으로 계획의 부합성, 미적 완성도, 시공상태, 기능 및 구조의 합리성, 하이테크의 도입의욕 그리고 지역기여도 및 주변과의 조화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진첩에 의한 1,2차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작품이 현장심사에서 평가절하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대상 및 본상의 수상작은 심사위원 상호간의 토론으로 결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주거부분만 토론으로 결정되고 비주거부분에서는 심사의견의 자유로운 개진을 통해서 심도깊은 토론을 전개하였지만 종국에는 표결로 결정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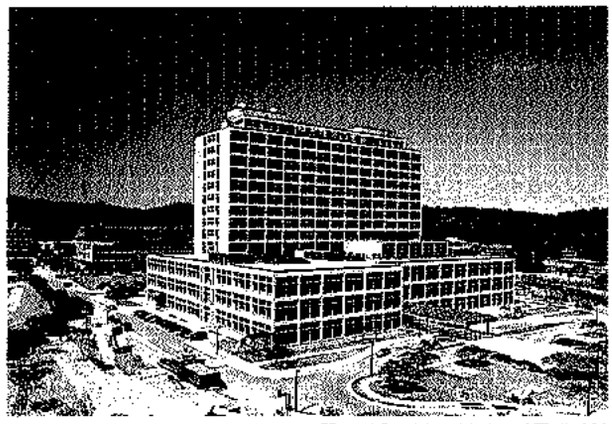
각 수상작에 대한 심사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작품인 민정학원(상명 초·중·고교)은 종래의 고착적이고 진부한 학교건축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교육적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는 공간환경과 형태 및 색채의 조화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므로써 학교건축계획의 참신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지가 비교적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실군, 특별교실군, 체육관, 수영장, 급식시설 등 필요교육기능을 이상적인 적정규모로 조합시켜 내외부공간의 원활한 연계와 지하층의 적절한 선큰처리로 효율적인 Block계획과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특히 국민학교의 열린 교육방식을 건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였다. 시공에 있어서도 고도의 Workmanship을 발휘하여 깊은 부분까지 정교한 시공기술을 운용하므로써 학교건축으로서의 질을 한층 높이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민정학원재단측은 설계진과 함께 외국의 학교건축전문교수진과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갖는 등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장을 창출하기 위한 의욕을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비의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민정학원은 학교건축의 선도적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고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삼위일체적 협동작의 표본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옥외운동장의 규모가 협소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본상 작품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병원구성요소의 Zoning계획과 동선체계가 교육기능과 진료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병원관리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Space Program과 진료시설계획이 합치되고 있으며, 적절한 시설 투자와 정교한 시공기술을 구사하는 등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효시적 모범을 부여하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현관과 외래접수대기홀을 재래의 One Room형태와 달리 분리시키므로써 동선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주요설비공간 및 수직동선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유지관리 및 에너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영안예식부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등 기능적인 간결한 동선계획이 우수하였다. 다만 건물의 외형이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다소 단조로운감을 주었으며 병동부에서는 직



준공건축물부문 본상/아주대병원

준공건축물부문 본상/SBS등촌동 공개홀(본지 9월호 참조)

선형의 긴복도로 인해 소음장애가 따를 우려가 있고 NS, STATION 및 코어부분에 자연채광이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2) 예닮교회는 산기슭의 높은 위치, 경사진 구분도로, 부정형의 협소한 대지형태 등 입지조건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낮은 담의 안뜰과 옥외계단의 매개공간을 통해 다단식으로 교회에 접근시키는 외부동선 처리가 인상적이었다. 대예배공간의 부채꼴 평면과 설교단 상부의 음폐된 고측창식 채광도입으로 설교단을 향한 집중력을 유도하고 성가대석을 1개층 높게 위치시킨 예배공간의 구성은 시각적, 음향적, 심리적으로 조화된 일체감을 갖게하는 발전적 계획수법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외관조형에서 곡면지붕에 처마, 공포, 기둥의 현대감각적 표현이 높게 평가되었다.

3) SBS등촌동 공개홀은 가로변 좁은 대지에 대형 스튜디오공간을 끼어넣기 위해 공간측을 대각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로변 정면에 자연스럽게 생긴 삼각형 공간을 앞마당으로 해서 Pylon으로 도로공간과 구획시킨 것은 가로접촉면 외부공간의 계획수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다. 외관은 면과 선의 조화로 단정함과 경쾌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잔잔한 변화와 흥미를 표출하므로써 흔히 가로접촉면 건축이 안고있는 경직성을 탈피하는 독특한 조형디테일을 구사한 것이 높이 평가 되었다. 다만 내부 공간에서 당초의 대형 업무공간을 소형공간으로 구획한 것은 기본계획단계에서 프로그래밍상 혼선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포이 탑빌라는 소도로변의 작은대지를 아담한 소규모 집합주택으로 발전시키는 계획개념이 높이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계획개념은 국토이용면에서나 도시 주거수요문제 해결상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포이 탑빌라는 앞뜰과 뒷뜰공간으로 구분되고 앞뜰은 독립주거의 정원과 같이 그리고 뒷뜰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겸한 서비스공간으로 계획되어 외부공간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각 주호의 현관은 코어내의 옥내정원을 중심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어 주호간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며 특히 천창으로부터 사입되는 자연광을 받는 옥내정원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외장재로 쓰인 드라이비트마감재의 질적향상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우수상인 대전 EXPO아파트는 넓은 인동간격을 확보한 여유있는 배치계획, 가로동선 및 주동접근로 처리 그리고 주동의 정면성을 살린 조형수법 등에서는 높이 평가되었으나 당초 설계와 달리 단지 전체적으로 모든 주동을 17층으로 통일시키므로써 스카이라인의 단조로움을 야기하였고, 단지내 중심광장의 이미지가 집중력과 구심력을 발휘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건축창작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다 같이 건축의 문화적 가치창출에 적극 호응, 참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앞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범국가적 의식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인 주거부분의 질적, 양적향상이 절실한 과제라고 인식되었으며, 아울러 앞으로 비주거부분의 심사를 보다 간결하게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용도기능별로 분류하여 입상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 계획건축물 부문 / 총평

崔寬泳/일건종합건축사 사무소

근대건축 이후 오늘의 세계적 건축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하이테크 등 다양한 건축이념들로 인하여 혼돈화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다시 근대건축(Mordernism)이 재해석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따라서 표현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우리의 건축교육 현황은 양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학과의 수는 무려 110여개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건축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양질의 설계인력은 모자라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럴것이라는 예견을 하게 된다.

더욱이 세계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첨예한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우리의 건축설계도 이것으로 부터 예외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오히려 우리의 건축설계계도 장차 세계속으로 진출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차제에 민간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정부의 한 부서인 건설부와 언론사인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한국 건축 문화대상」이라는 Title로 건축공모전을 하는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EXPO 아파트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전쟁기념관(본지 7월호 참조)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좋은 건축을 위한 힘을 결집하고, 좀더 뚜렷한 미래지향적 건축방향을 모색하며 양질의 건축설계 인력을 배양하며, 학교교육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좋은 건축을 낳게하여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번 건축전중에 심사대상이었던 학생부문에는 127점 이라는 많은 작품이 제출되었는데 비하여 신인 부문에는 불과 15점이 제출되었다.

신인들은 현업에 종사하느라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임을 이해하면서도 다소 섭섭함을 떨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견에서는 학생작품 보다 외형적으로는 덜 적극적인 제작양상을 보고 순간 놀랐으나 자세히 들여다 본 결과 상대적으로 좀더 확실한 내용을 담고 현실성이 있는 테마를 택하고 있음이 확연히 구분되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심사방향에 대한 심사위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얻어진 키워드(Key Word)들은 도시적 맥락(Context)의 이해속에 건축계획적 성격이 강한 것, 참신하고 창의적인 것, 충실하고 정통적인 표현기법, 뚜렷한 의도에 의한 진지한 디자인 등이었으며, 이러한 키워드(Key Word)들은 바로 심사기준으로 연결 되어졌다. 이렇게 하여 좀 허황되거나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건축적이지 못한것이나 도시적 맥락의 이해가 없는 것이나 전혀 교과서적인 표현을 무시한 작품들은 입선작에서 제외되었다.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열이 높이 평가되었고 조형의지가 강하게 돋보였으며, 결과 또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대지에 대한 적용성이 부족하고 건축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논리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의 진지한 해석이 부족했다.

학생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작품은 도시적 해석과 조형 그리고 충실하고 정통적 표현방법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지가 미국의 한 도시내에 있었고 작가 또한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이였음이 의외의 일이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건축 문화대상』이라는 타이틀에 비추어 최고상으로 결정하는데 대한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 어느곳에서 건축공부를 하든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쉽게 합의를 보았고,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우리의 건축학도들이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폭넓게 학생들 상호간에 발전적인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과 올바른 표현방법은 좋게 평가받는 공정한 심사의 예를 남기는 보람을 각 심사위원들은 함께 느꼈음을 기억한다.

끝으로 신인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들어 실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하여 표현방법이 양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 보다는 내용의 충실성을 읽을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고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계획건축물 부문/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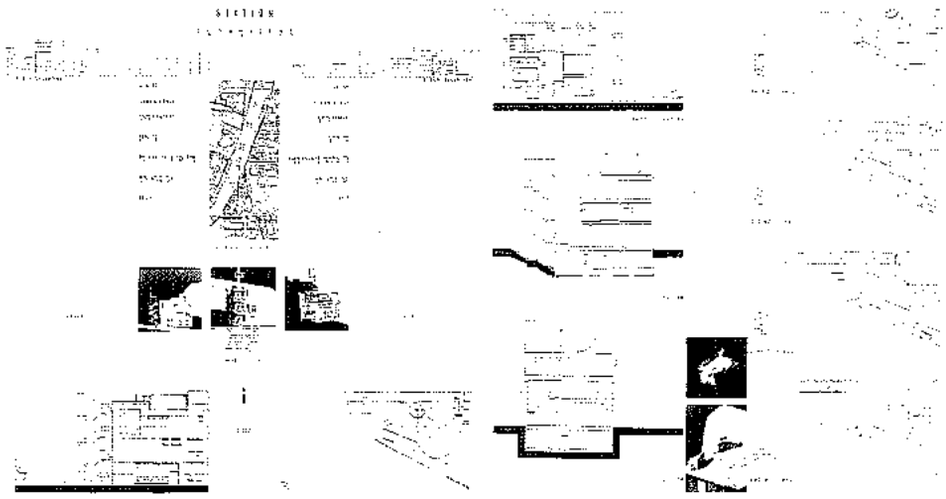
李廷根/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올해는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건축공모전의 성격이 바뀌었다. 주제를 미리 제시하던 방식이 없어지고 서울경제신문사 건설부가 공동주최하던 한국건축문화대상이사협회의 한국 건축전과 통합 운영되게 되었다. 공모시기도 봄에서 가을로 옮겨졌다.

공모전 담당자들은 출품자 수의 작품의 질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두 공모전을 통합하는 절차상 공고기간이 짧았고 공모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더구나 올해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자가 많아서 신인부분의 공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모시기가 건축가 협회 주최의 건축대전과 겹치는 것도 출품자 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된다.

7명의 심사위원들이 공동으로 아쉬워하는 점은 공모의 주제가 없어진 점이다. 하나의 주제를 걸고 작품을 하는것이 건축사협회 작품공모전의 특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특징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앞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다. 주제가 없다는 것은 출품자 쪽에서는 스스로 주제를 설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출품자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자 쪽에서는 객관적인 가늠의 척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모형식에 있어 주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점은 심사의 어려움이나 출품자의 작품제작 과정의 어려움을 떠나서 작품공모를 통해서 우리의 건축문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느냐하는 공모전의 기본목표에 깊이 연루된 문제이다. 예를



계획건축물부문 신인 최우수상

들면 신춘문예나 순수 미술전에서 작가에게 주제를 맡기는 것은 작가자신이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모든 속박을 풀어 놓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가 건축공모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간에 공통으로 이해되고 적용되는 문법이라는 공동의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 과연 작가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넓은 의미에 있어서 언어에서 처럼 이해되고 수용하며 통화가 가능한 공통의 문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시각적인 면에서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영역을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기능 및 환경적인 측면과 이것에 기술적인 매체성을 더한다면 작가들이 각자 임의로 설정한 주제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들을 건축적인 사고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건축공간의 구성방법이나 구성문법을 추구함에 있어 반드시 지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쓰여지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는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각자의 관점에 맡겨질 문제이다. 실용성이나 실현성이 작품의 전제조건으로 추구되지 않는다해도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목표는 반드시 건축적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도 그 작품의 추구는 건축적 사고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잇는 작업이어야하고, 건축적 실천면에 있어 우리의 삶의 공간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작품이 현실적이고 구상적인 주제설정과 구성방법을 택하였어도 주제를 추구해 들어가는 목표와 주제설정의 뿌리가 되는 문제의식은 전자와 다를 바 없다. 단지 건축작품을 추구해 가는 방법의 선택이 다를 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공모전의 주제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준비기간을 가지고 여러형식의 대화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건축적 현실의 문제점을 첨예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출품희망자들이 정해진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작품을 구상해가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는 깊이를 더해 가리라고 예상된다. 출품자들과 발제에 참여한 건축인 공동체 및 심사자들과 그리고 관람자 등 모두는 공동의 주제에 대한 각자 나름 대로의 생각과 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공동의 건축적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주제의 설정은 건축 커뮤니티의 더 많은 성원이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공동의 범위와 틀안에서 서로간의 대화가 잘 되도록 대화의 효율성을 높혀준다.

만약 건축공모전의 최선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건축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공동체의 구성원들간에 그리고 일반 대중사이에 건축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쪽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축공모전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투철한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있고 주제설정의 방만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우려는 본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인부문에서도 불식되지 않았다. 설정한 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설정한 문제의 건축적 해결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해내는 것이 작품제작의 모체이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한 주제의 초점이 흐리면 건축적인 해법의 제시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현란한 표현기법은 허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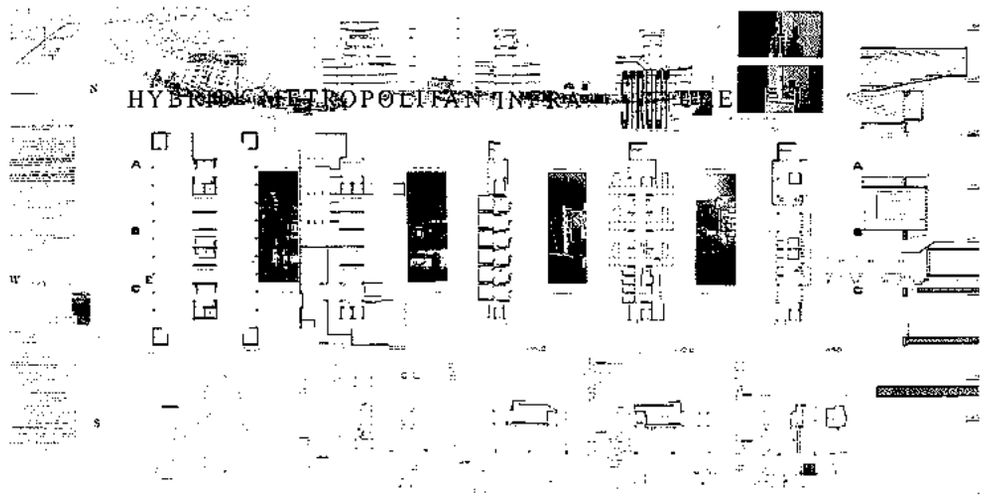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심가로변 소규모 건축'은 비교적 설계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주제였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무얼 하고자 하는지 간명하게 드러낸 점이 앞섰다. 이 작품에서 더 바라고 싶은 점은 남대문로의 실제적인 한 필지를 택했다면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제 조건에 대한 건축적 대응도 풀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로 취급했어야 했다. 좀 더 나아가 도시건축으로서의 가로변 소규모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해의 암시가 있었으면 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봄/여름/가을/겨울'도 주제가 비교적 명확한 작품이었다. 주거의 물리적인 장치들을 계절적인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변용 적용하여 안락한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탐구였다. 재미있는 주제였으며 작가에게 더 요구하고 싶은 점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주거에 대한 해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주거전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쪽으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것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3개의 작품중 '소유하는 공간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소감만 피력하고자 한다.,

건축대학 계획안인 이 작품은 왜 이렇게 지어야하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입선작 5개 작품중에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계획안이었다. 작품에 쏟아부은 정열이나 에너지에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도시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획건축물부문 학생 최우수상

계획 작품이 실현되었을 때의 환경적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배려와 비전을 갖추지 않았을 때 전문가적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겸허함으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작품이었다. 작가자신은 물론 건축인 모두가 심려해야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근래에까지 건축공모전마다 그 전반적인 경향은 문제의식에 근거한 주제의 끈질긴 추구보다는 허황된 열정의 과도한 발산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된다. 절제되지 않은 광기는 창조에 기여할 수 없다. 균형잃은 리비도의 건축적 발산은 문화의 가면을 쓴 동물적 권력에의 의지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공모전이 건축인 공동체 및 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건축환경과 생활공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매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입상자 및 출품자 모두에게 이러한 노력에 기여한 점에 대해 경하하여 마지 않는다.

여러 단체에서 주최하는 건축공모전의 수가 많아지고 시기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공모전마다 뚜렷한 특성을 가진 행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공모전이 되었을 때 건축공모전은 건축공동체에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의 건축문화발전에 상승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계획건축물 부문 / 학생

金相景/예전종합건축사 사무소

'94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부문에 제출한 많은 작품들을 여러 심사위원들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출된 작품의 주제를 크게 나누어보면, 도시가로의 건축, 우리의 일상적인 거주생활을 담은 공동주거, 지역문화 공간 등, 비교적 현실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유감없이 펼친 흥미로운 작품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미국에서 수학중인 학생의 작품인 「HYBRID METROPOLITAN INFRASTRUCTURE」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미국 대도시의 가로의 택지를 지하에서 지상까지 각 Level 마다 변화 있는 기능과 효율적인 공간, 그리고 도시와 어울리는 형태를 창조하여, 조직적이며 아름답게 구성하고 표현한 우수한 작품이다. 역시 도시환경이란 자연환경과는 달리 조직성과 질서라는 틀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우수작으로 「TIME·MUSEUM OF CONTEMPORARY ART」와 「淸·美」란 작품이 선정되었다. 두 작품 모두 미술관 계획안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정교하고 세련된 공간과 형태를 제안한 우수작들이다. 전자는 우리 전통공간 개념을 미술관에 적용시켜 내부와 외부공간의 교차와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한 점이 돋보였다.

「淸·美」도 비슷한 예로서 용산가족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시키면서 미술관 기능을 대지에 어울리게 전개하여 역시 균형있고 세련된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낸 우수작이다.

그 외에 수상한 많은 작품들도 나름대로 솜씨를 발휘하여 정성들여 만들어낸 우수작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상작품에 선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결과의 차이는 다소 미미한 것 같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열심히 자기 전공분야인 건축설계에 정진하며 전력투구하는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전반적인 작품의 경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은 사회에 절실하게 호소할 만한 좀더 현실적인 주제를 좋은 아이디어와 조화시켜 얼마나 구체화시켰는지의 과정의 표현이 부족한 점이었다. 단순한 결과물의 집착보다는 왜 이렇게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설계과정에 대한 표현과 이해가 더 있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건축은 결코 단숨에 화려하게 결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며, 주어진 건축주와 그의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주어진 대지조건을 밀도있게 조화시키는 일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건축전은 우리사회에 절실한 몇 가지 주제와 대지상황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각자가 선택하여 제안하는 형식이 오히려 내용있는 전시회가 되리라 본다. 이러한 과정이 학교의 설계 교육의 내용에서 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것이 건축교육 방향의 모색이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부디 건축 설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오래도록 간직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질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의 구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훈련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여 우리 건축문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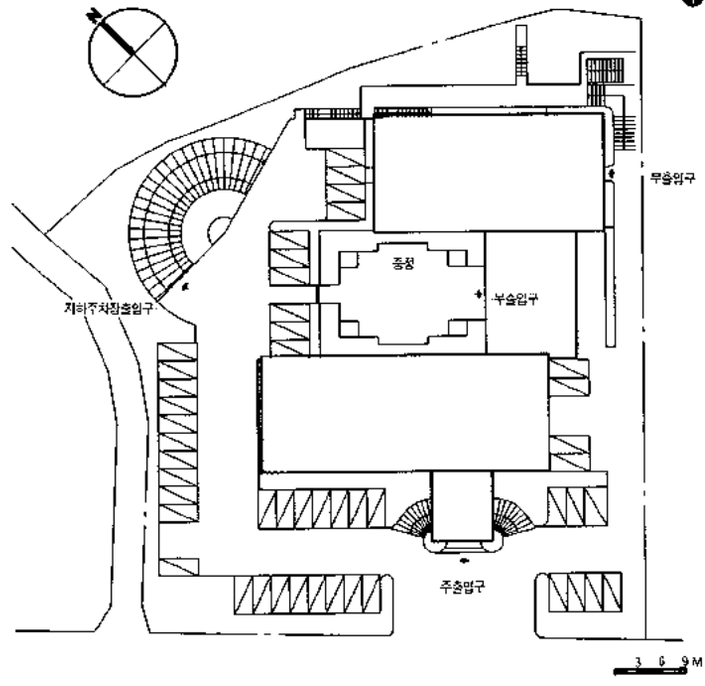
이화관광호텔

Ihwa Hotel

金善洋/(주)한종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eon-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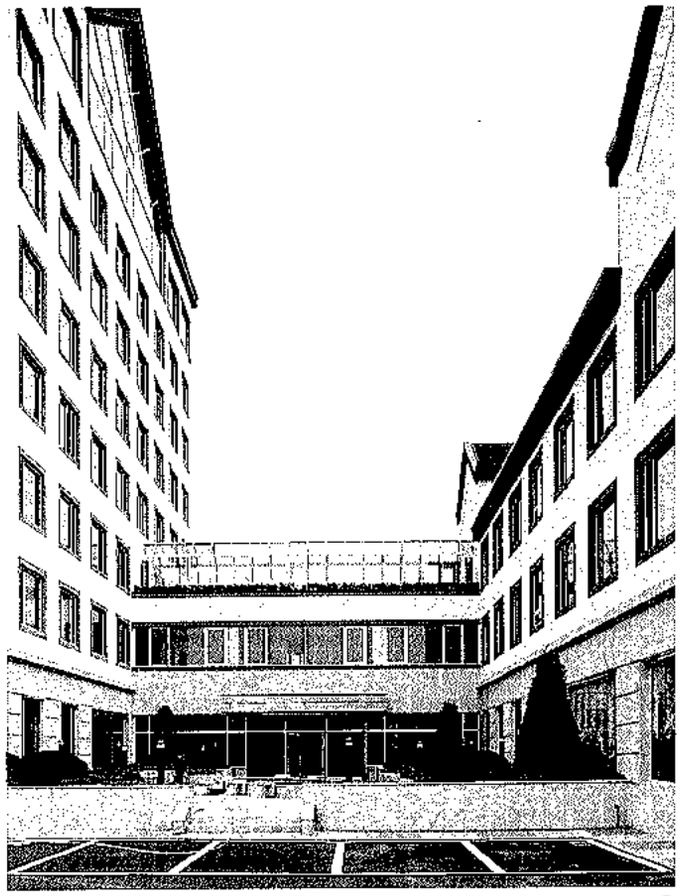
❶

위치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산 61-1
대지면적 / 4,611.85㎡
건축면적 / 1,239.50㎡
연면적 / 10,024.42㎡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외부마감 / 벽－아이소코트/지붕－아스팔트 싱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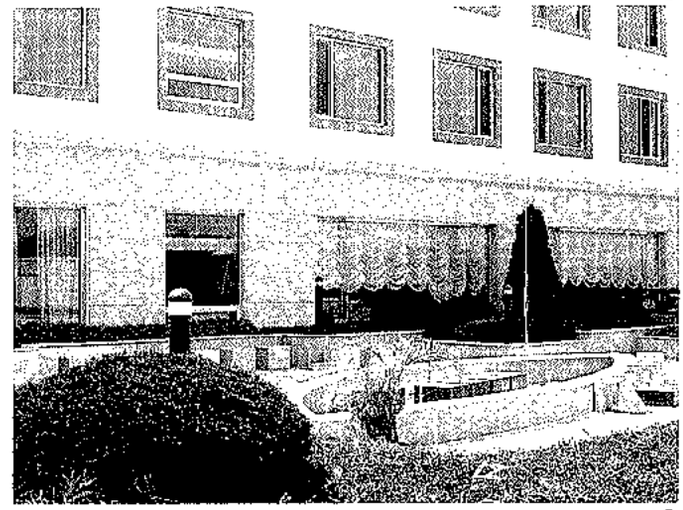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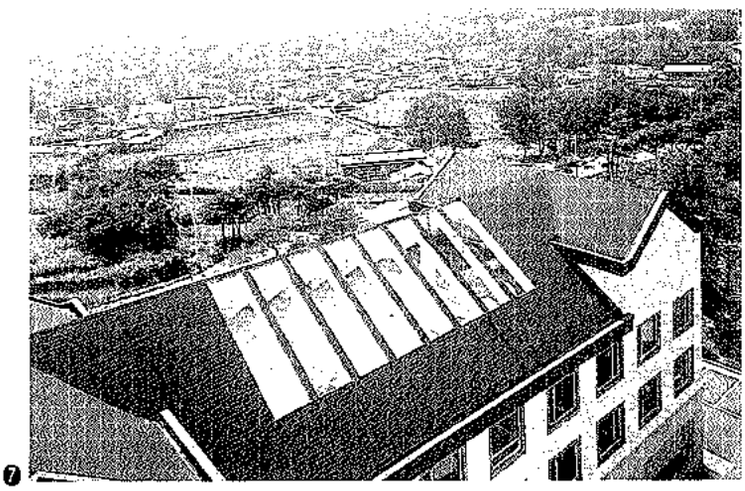
❹



❺

❶ 도로에서 바라본 호텔전경
❷ 배치도
❸ 저층부 전경
❹ 중정 전경
❺ 중정 디테일

❻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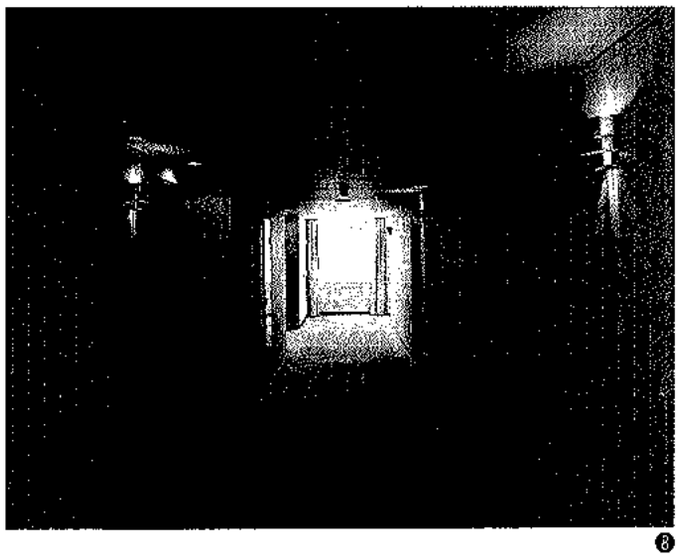
이 호텔부지는 경기도 충청도 사이의 아산만 근처의 야산지대에 있다. 오산사에서는 상당히 먼거리(서남쪽 약 30㎞)에 있지만 서해안에서는 자동차로 불과 5분거리이며 도심의 혼잡이 없는 야산 끝 고갯마루의 부지를 선정하였다 관광호텔이긴 하지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티호텔과 비지니스호텔의 중간형태로 계획하였다. 아담한 부지안에서 건물은 세 계의 블럭으로 나누어 수평선이 있는 면을 향하여 전면은 로비와 사무실 그리고 중앙부는 연회장과 쇼핑가, 분수가 있는 중정, 후면은 주로 객실과 스카이라운지, 양식당을 두었다. 전면은 3층, 중앙부는 지하1층, 배면부는 8층으로 변화를 주어 건물과 지붕의 매스가 보는 위치에 따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무창구분과 반사유리 커튼월의 조화, 중·저·고의 변화, 벽과 유리의 질감에서 오는 대비감, 규격화된 사각창틀과 스카이라운지의 대형 삼각창과의 대비 등에서 자연환경에의 순응과 어울림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연출해 보았다.

▩배치계획 : 부지의 형태와 객실에서의 전망, 도시계획선과의 일치 등을 감안한 C형 배치에 도로와 건물사이에서부터 좌측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ㄱ자형 옥외주차장을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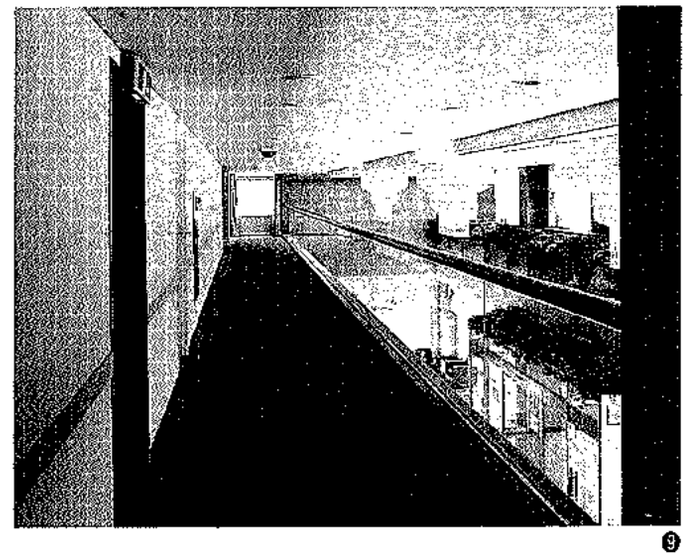
▩평면계획 : 전면부 1층은 높은 천정의 로비와 프론트, 전후면이 개방된 커피숍이 있고, 2층은 사무실과 객실로 처리했다. 업무용과 고객용으로 분리된 두개의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각각 사우나와 중층부의 연회장으로 연결된다. 고층배면부는 1층이 양식당과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 중간층을 전부 객실로 처리하여 농촌풍경과 서해안 그리고 야산의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였다.

▩입면계획 : 아이소코트와 아스팔트 싱글의 질감과 주변의 경관에 조화되는 건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I자형 박공지붕과 형태와 중앙의 개방부는 +자형 고층지붕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외벽에서의 컬리는 대지와 지층과 고층벽간의 자연스런 조화를 의식하였으며 개방되어야 할 곳과 폐쇄공간은 외관에 치우치지 않는 솔직하면서도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스카이라운지의 드높은 경사천정 아래에서의 시원한 칵테일 한잔이 눈앞에 전개되는 저층부의 형태와 정원 그리고 흙색과 진초록의 조화되는 농촌풍경과 멀리서 불어오는 바닷바람 소리를 벗삼아 더할나위 없이 향기롭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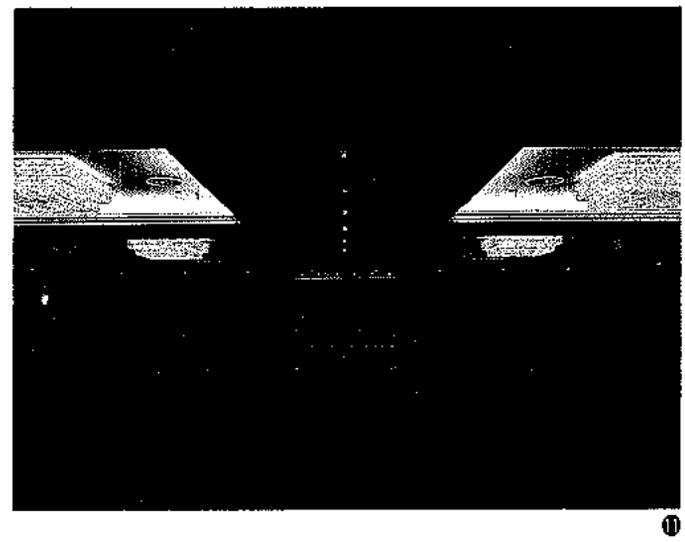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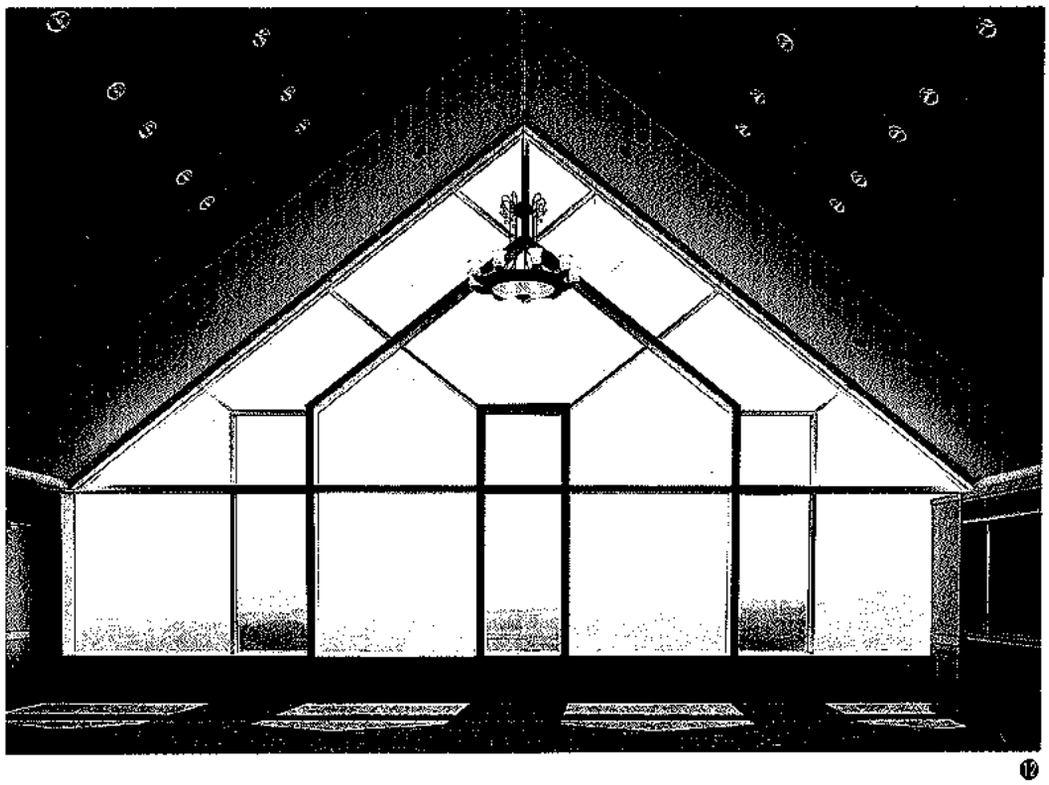


❾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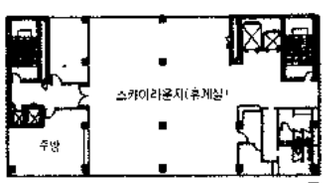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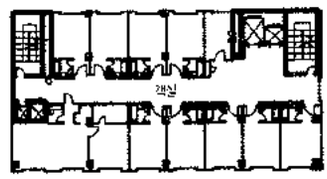


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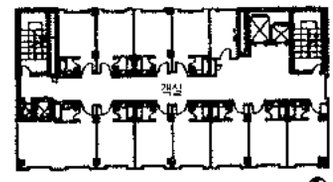
❻ 주현관 디테일
❼ 저층부 지붕디테일
❽ 객실 복도
❾ 2층 로비 개방 부분
❿ 1층 커피숍
⓫ 지하1층 연회장
⓬ 스카이라운지 창호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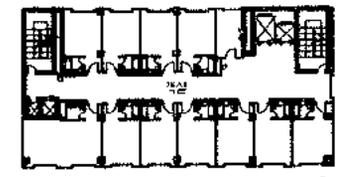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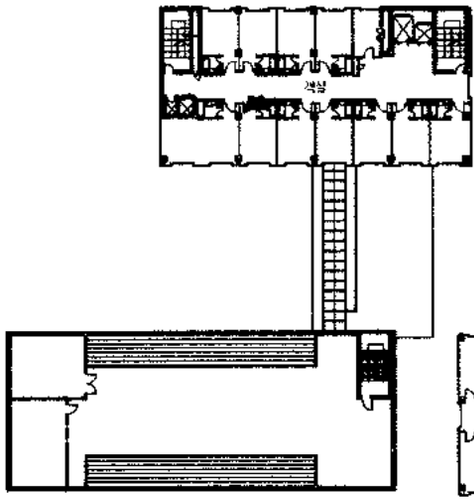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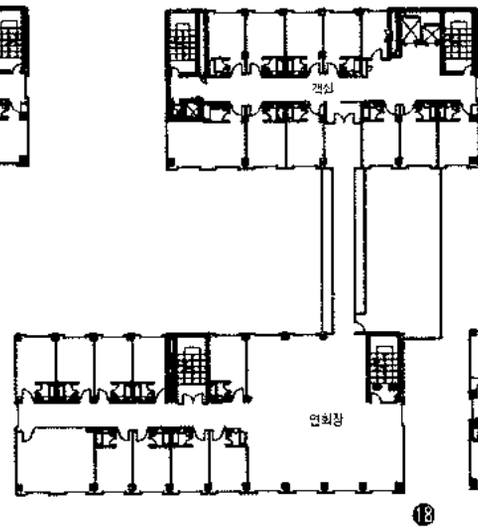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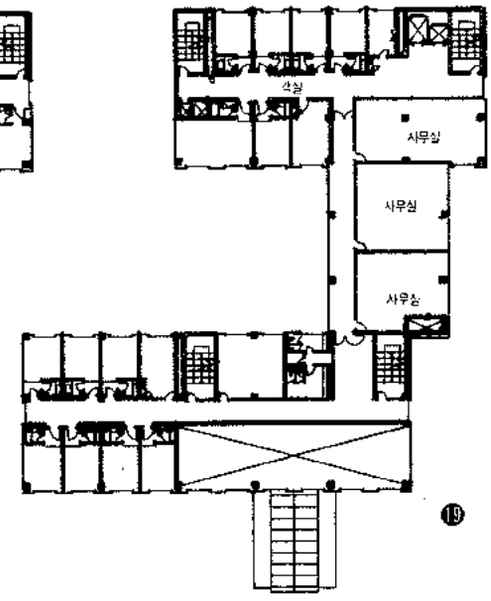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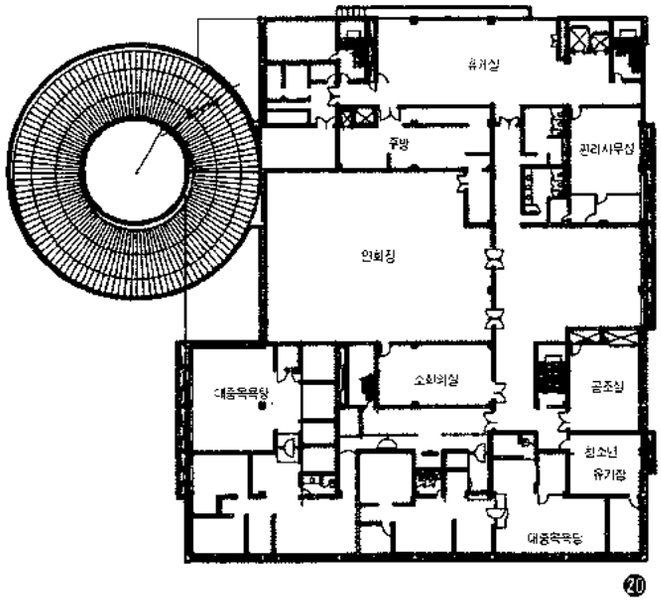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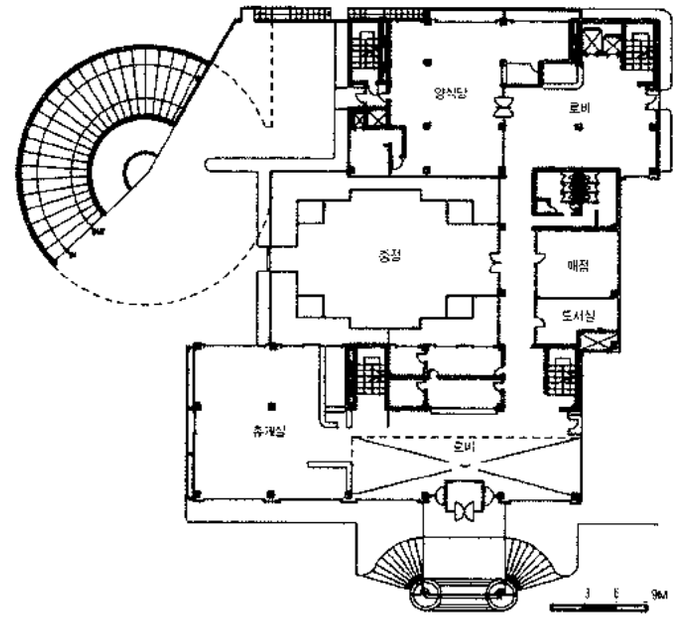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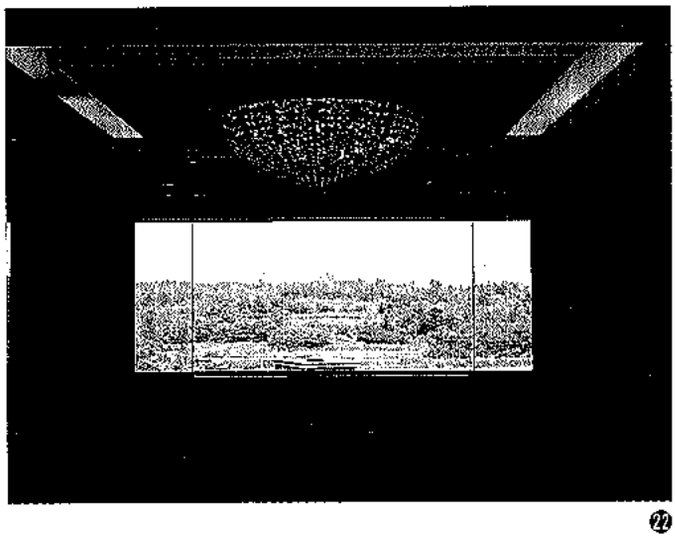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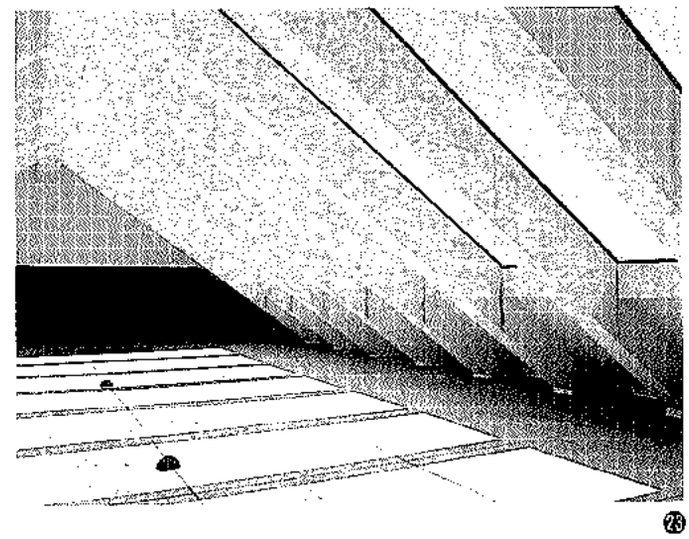
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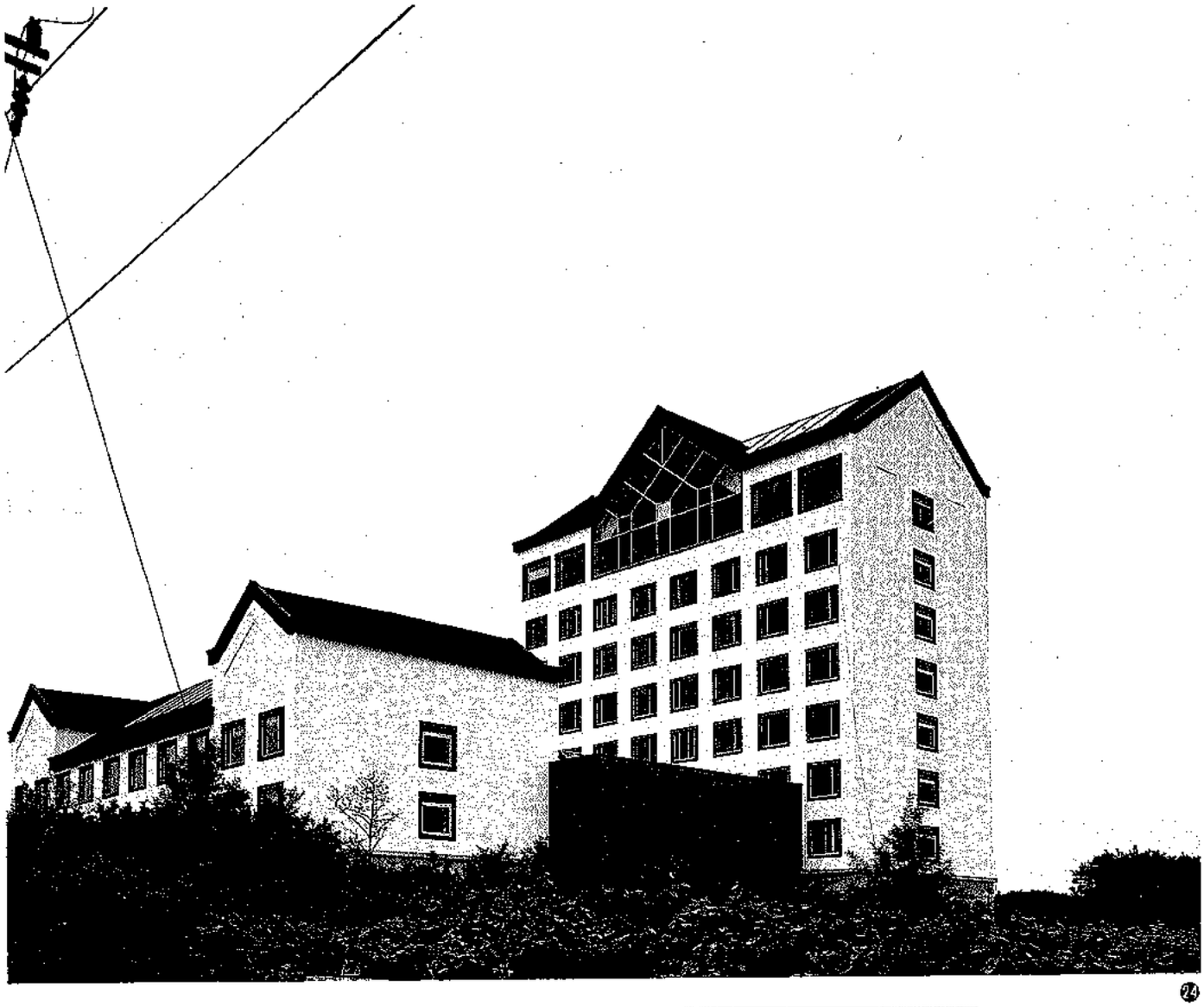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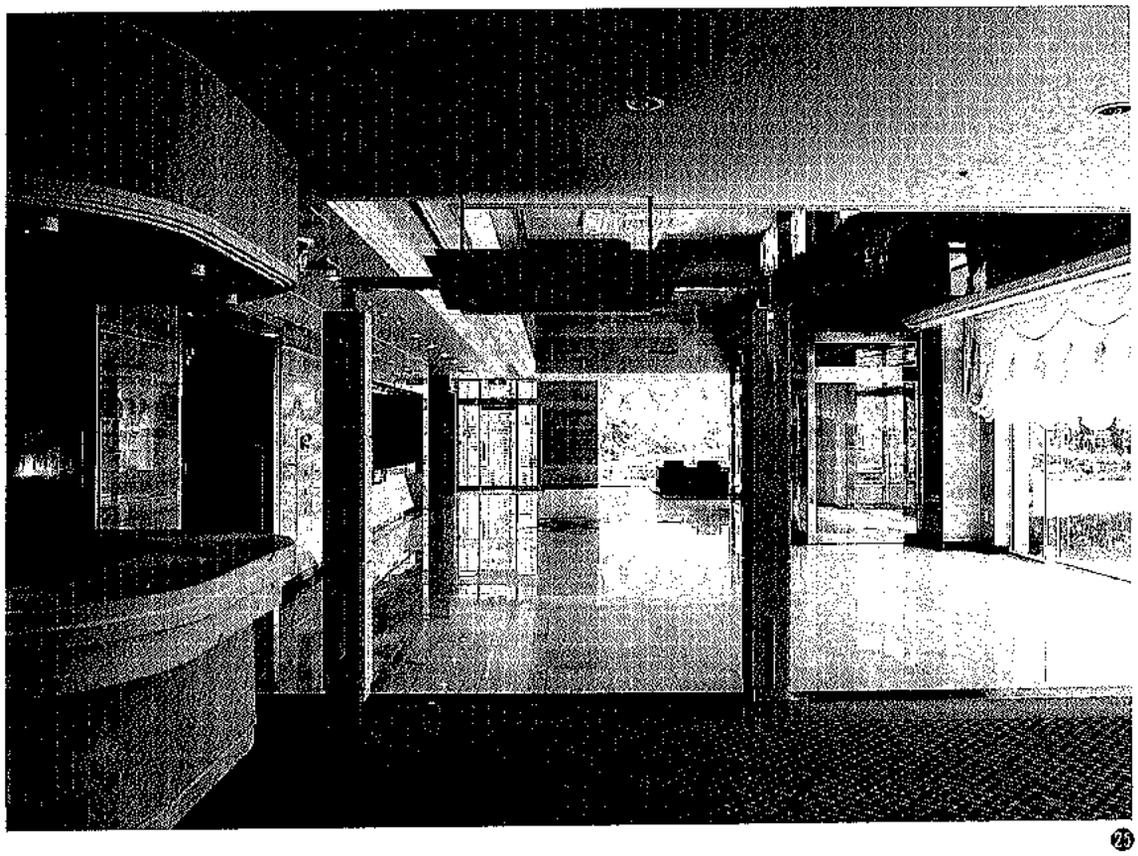
㉒



㉓



㉔



㉕

⑬ 8층 평면도
⑭ 7층 평면도
⑮ 6층 평면도
⑯ 5층 평면도
⑰ 4층 평면도
⑱ 3층 평면도
⑲ 2층 평면도
⑳ 지하1층 평면도
㉑ 1층 평면도
㉒ 지하1층 휴게실에서 본 전원풍경
㉓ 저층부 지붕 철골 부분
㉔ 남측에서 바라본 전경
㉕ 커피숍에서 바라본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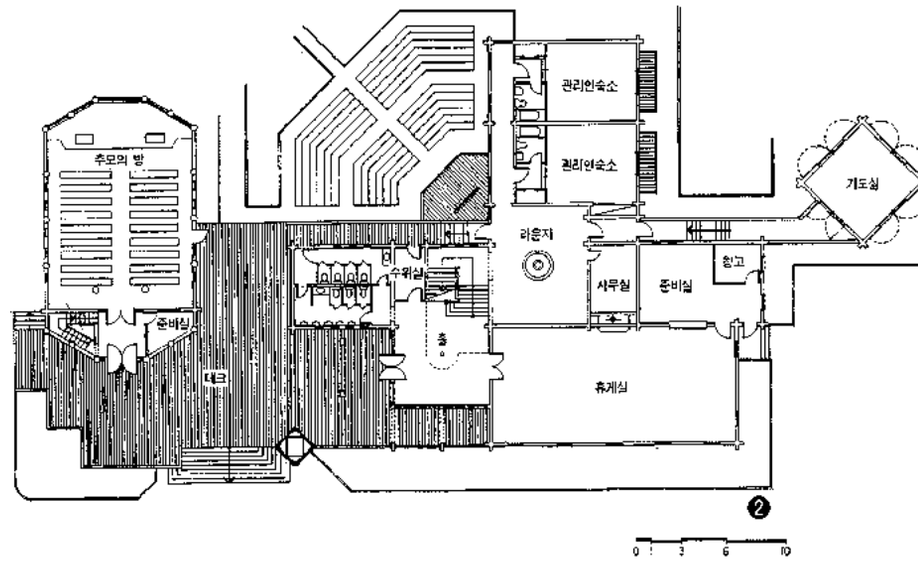
초동교회 안성 수양관

Chodong Church Community Complex

朱榮正/종합건축사사무조 예조
Designed by Joo, Young-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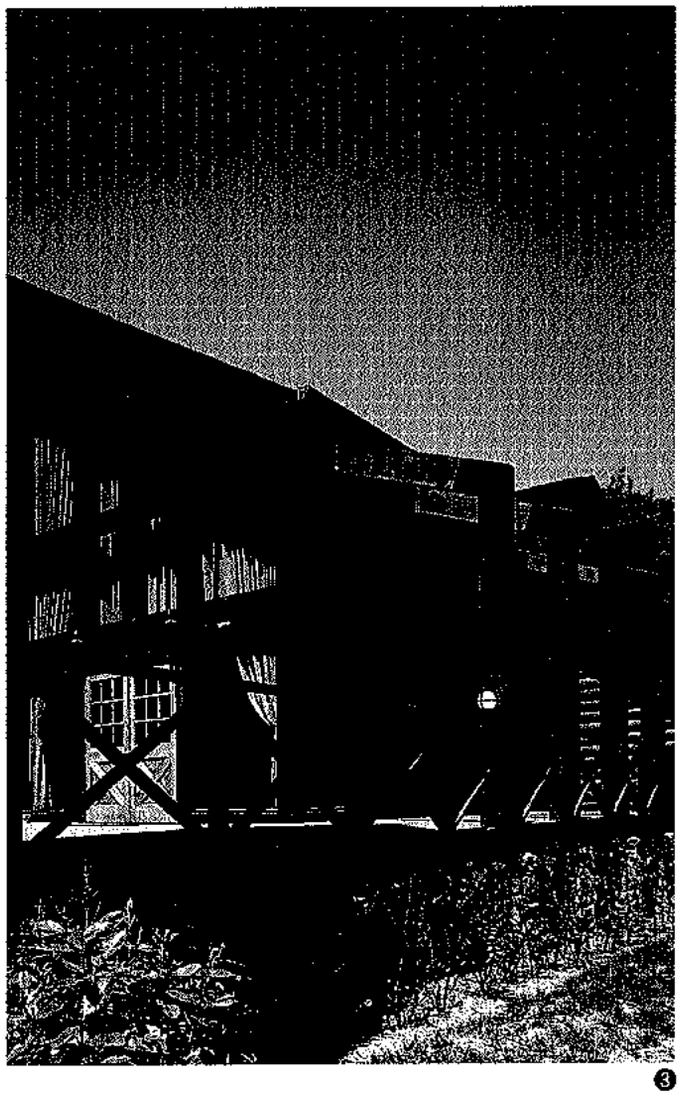
❶

위치 /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배태리
건축면적 / 676.36㎡(204.96평)
연면적 / 914.57㎡(276.66평)
층별면적 / 지하1층/43.89㎡(13.3평)
지상1층/666.46㎡(201.95평)
2층/204.22㎡(61.88평)
구조 / 목구조
내외부마감 /
예배당/12inch Full Round Red Cedar
지붕/적삼목 기와
식당 및 부속실/8inch D Type Red Cedar
지붕/적삼목 기와
설계담당 / 김민주, 안규섭, 유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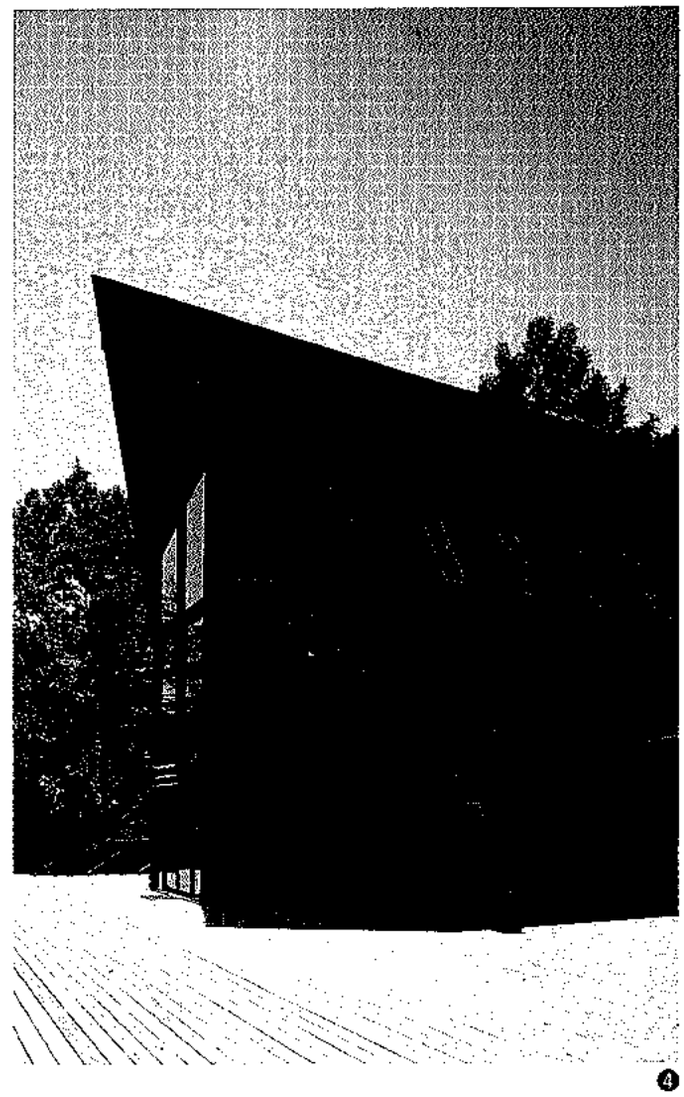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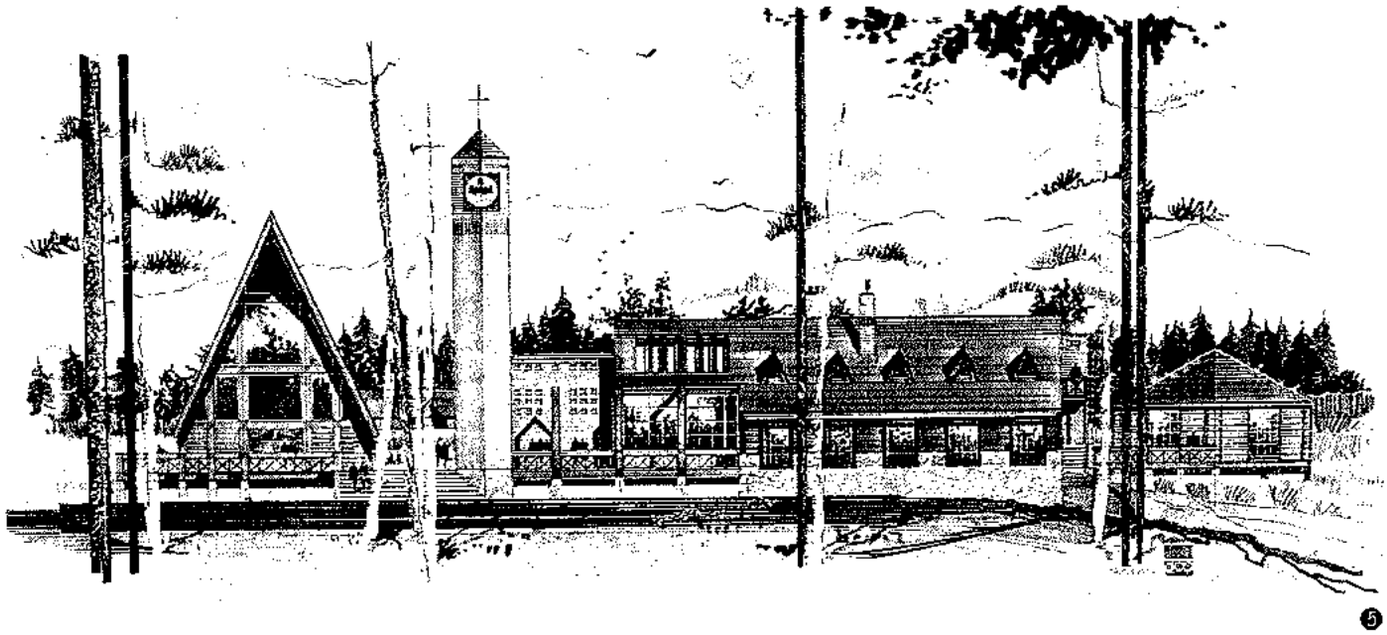
❶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❷ 배치도
❸ 사무동에 연결된 Deck와 버트레스
❹ 체플동 주출입구 전경
❺ 입면 스케치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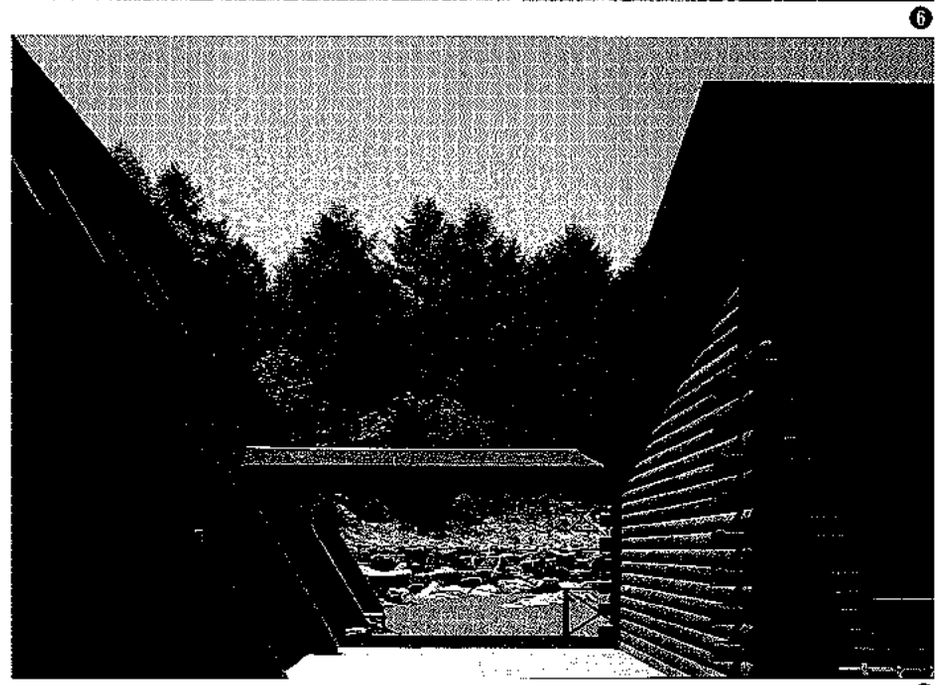
❹



❺

❻

❻ 뒷산에서 내려다 본 전경
❼ 채플동과 사무동 사이로 보이는 뒷마당
❽ Deck에서 연결복도를 통해 바라본 숙소
❾ 숙소 2층 복도
❿ 채플동 2층에서 바라본 제단
⓫ 자연광을 도입한 계단실 내부



❼

본 계획이 가지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일반적 교회 건축과는 달리 예배, 숙박, 식당 등 다양한 기능 및 행태를 갖는 수양관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건축재료가 통나무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양한 공간구성에 난관이 있었다.

대지여건도 울창한 숲으로 둘러 싸여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 재료선택이 적절하였다는 판단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정적이며 밝은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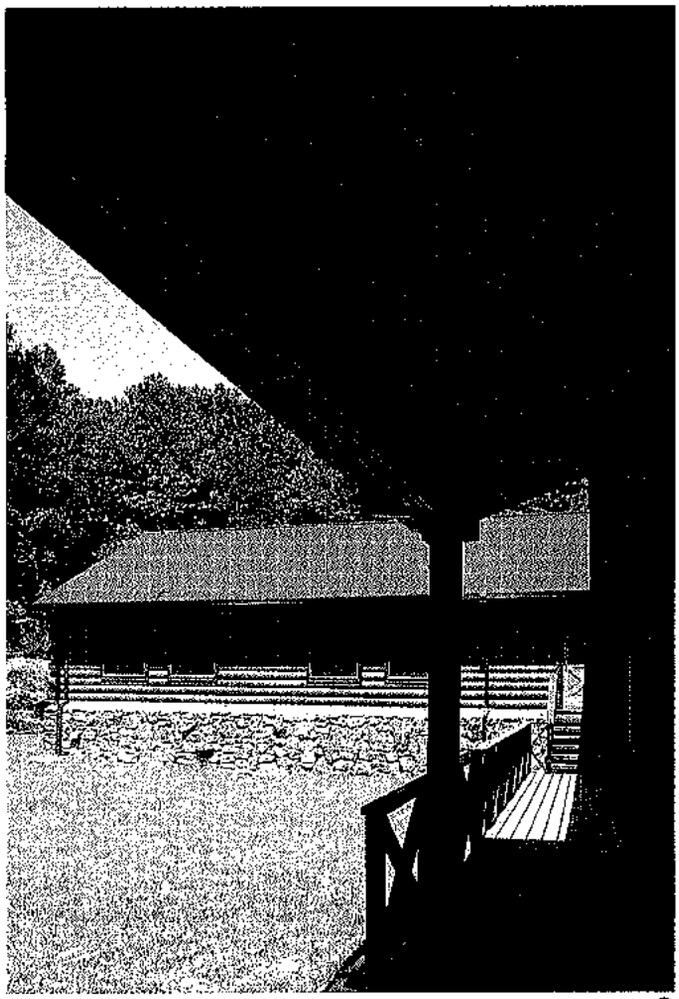
일반 교회건축과는 다른 수양관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대지조건, 주어진 건축재료를 집약하여 총체적 판단속에 설계개념을 설정진행해 나갔다.

전체적인 배치는 Village개념으로 각 기능의 분산과 한국적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뒷마당, 사랑채, 안채, 별채로 전체 공간을 분할하고, 주 진입의 Identity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면에 랜드마크적인 종탑을 배치하고 오픈된 Deck level에서 예배당과 식당 및 부속실의 2개의 Zone으로 나눔과 동시에 공간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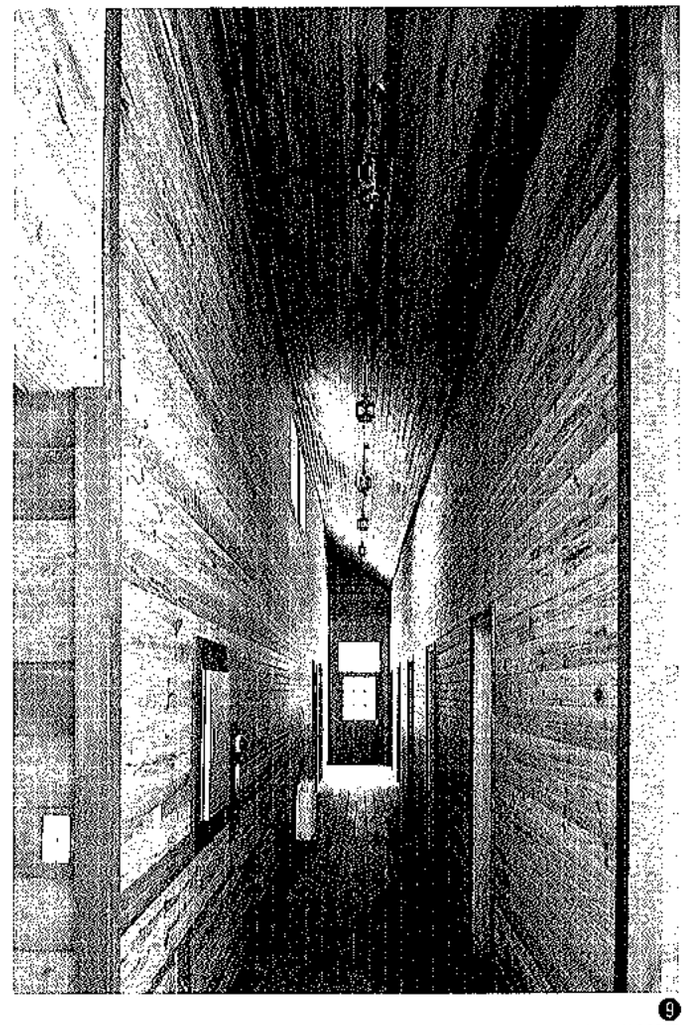
2개의 Zone간의 기능과 동서의 흐름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실은 약 170석 규모로 뒷면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면유리로 처리했으며, 식당 및 숙박시설은 4X4m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오른쪽 세미나실은 전체적인 평면에서 마름모꼴로 분리하여 한국전통의 정자적 이미지를 갖도록하여 한국전통의 양식을 도입한 반면 미래의 적용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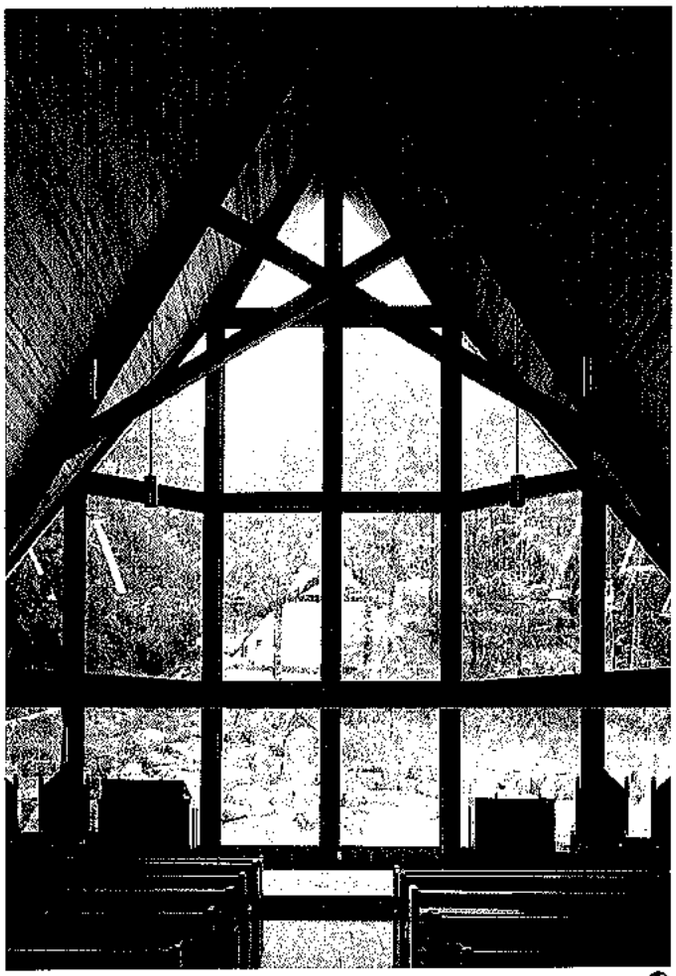
교회 건축 계획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불특정다수의 의견수렴이라는 어려움속에 건축가의 의도와 건축주 요구의 조화로운 표출이 아쉬웠던 작품이다.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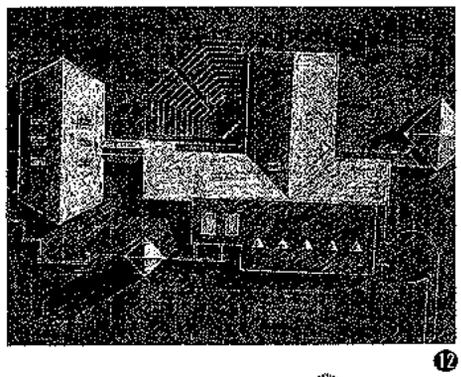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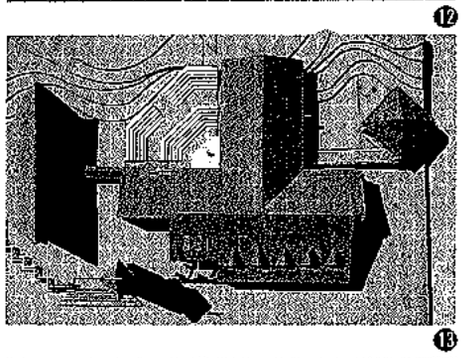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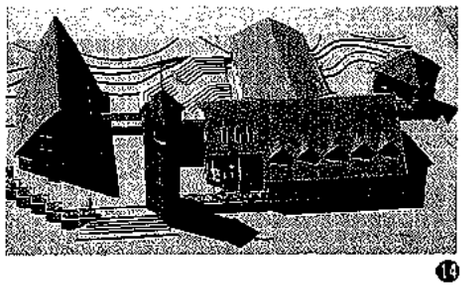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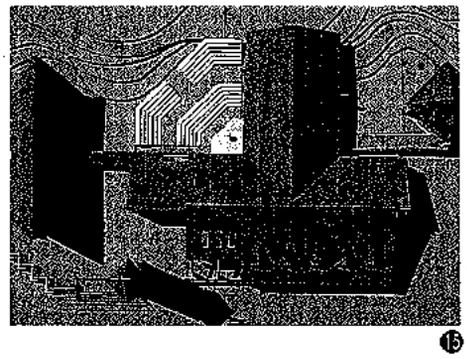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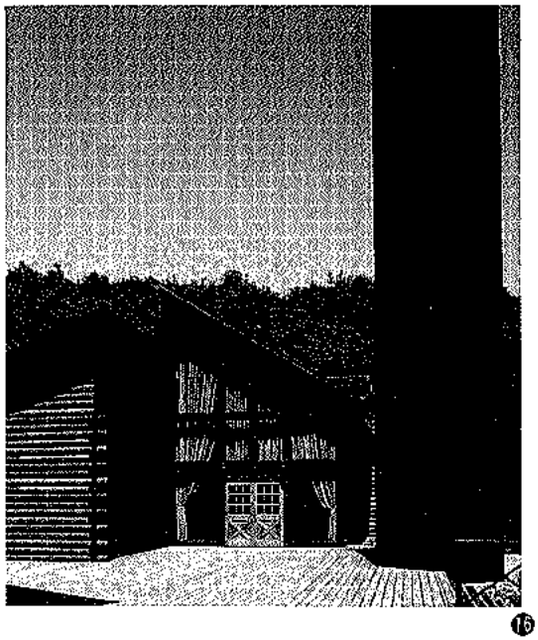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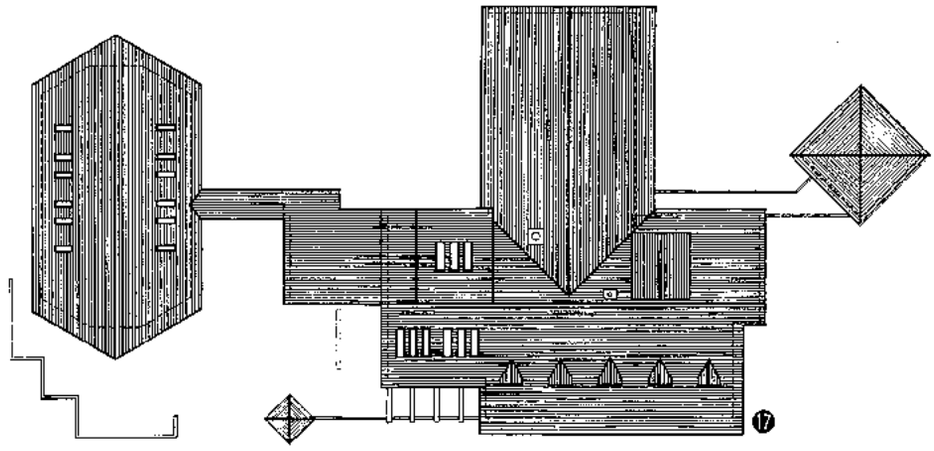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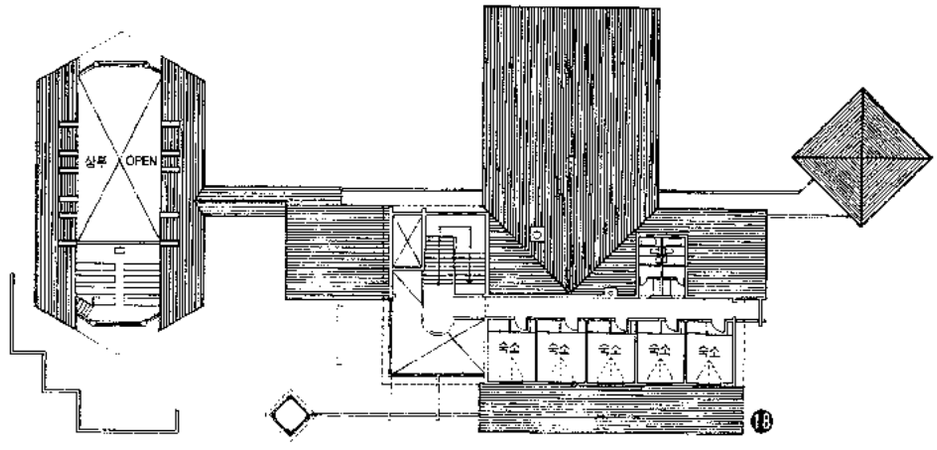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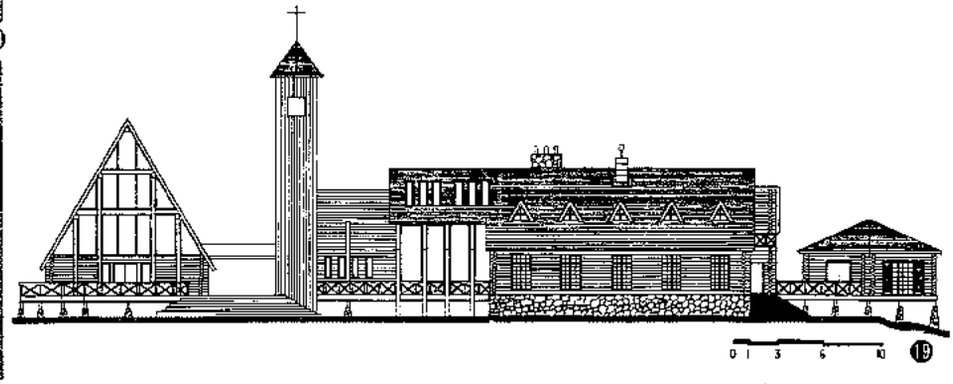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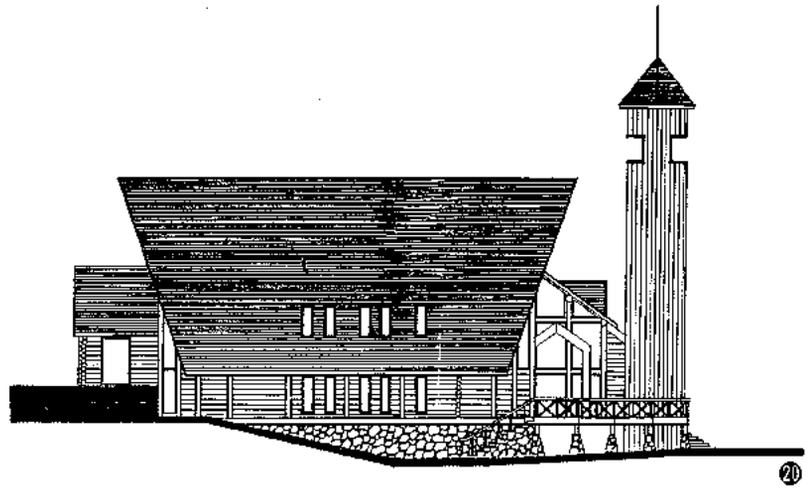
⑰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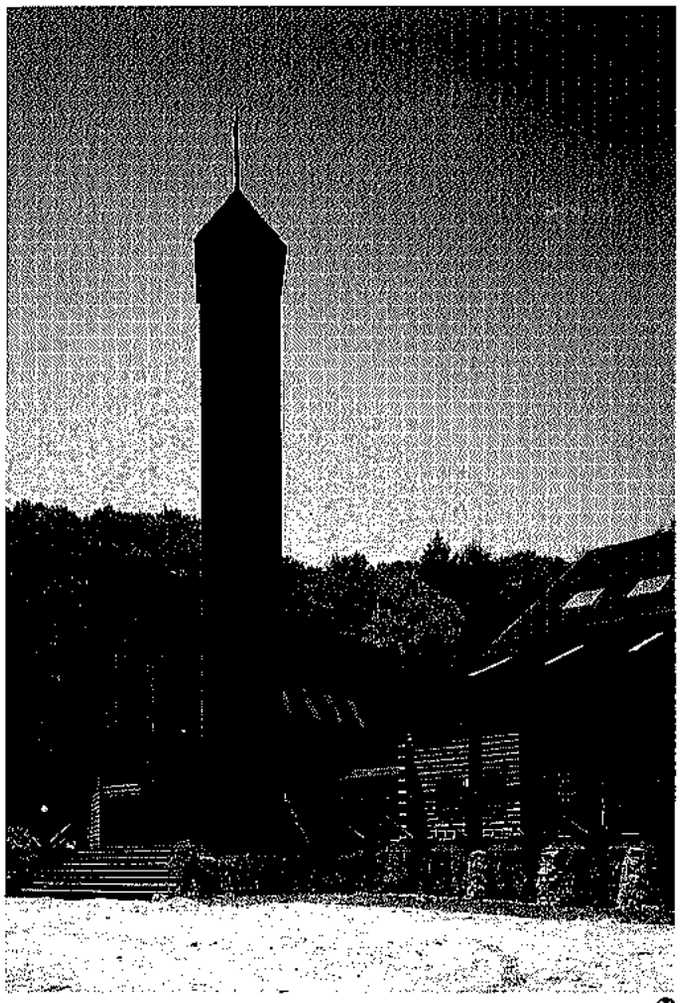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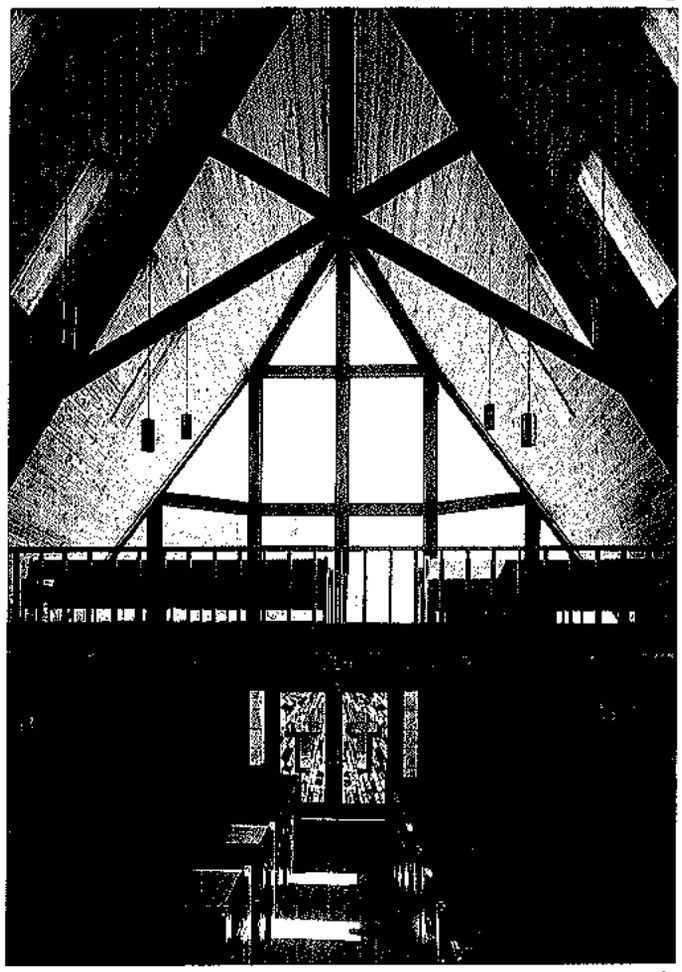
⑳

⑫ 모형 1
⑬ 모형 2
⑭ 모형 3
⑮ 모형 4
⑯ 사무동 전경
⑰ 지붕층 평면도
⑱ 2층 평면도
⑲ 정면도
⑳ 서측 입면도
㉑ 수양관 주출입구 전경
㉒ 기도실로 통하는 브릿지
㉓ 구조미를 살린 채플동 내부
㉔ 2층 숙소로 통하는 내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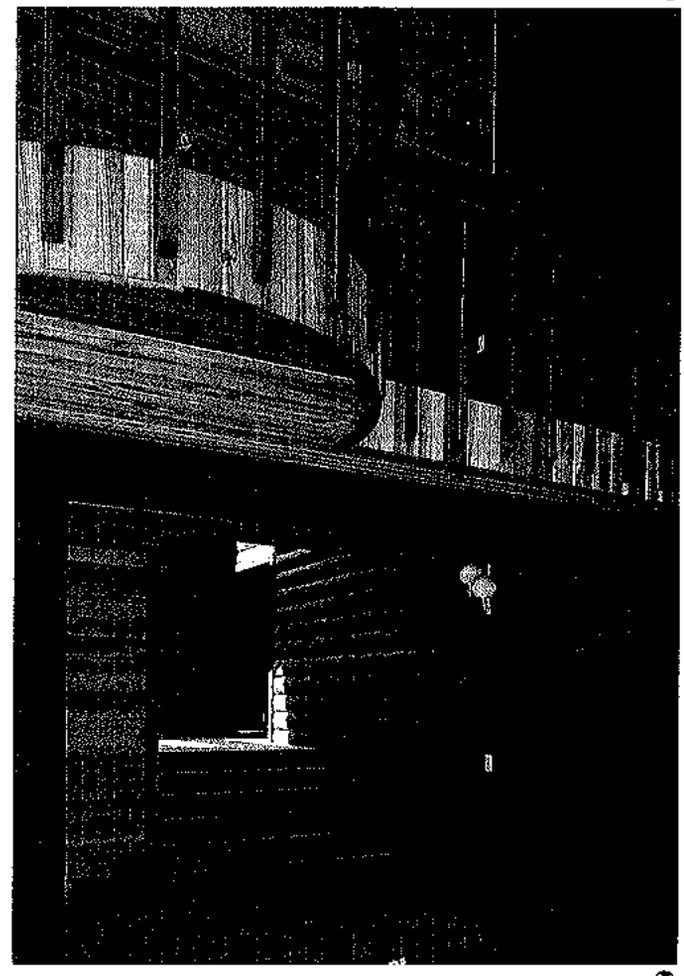


㉑

㉒



㉓



㉔

증권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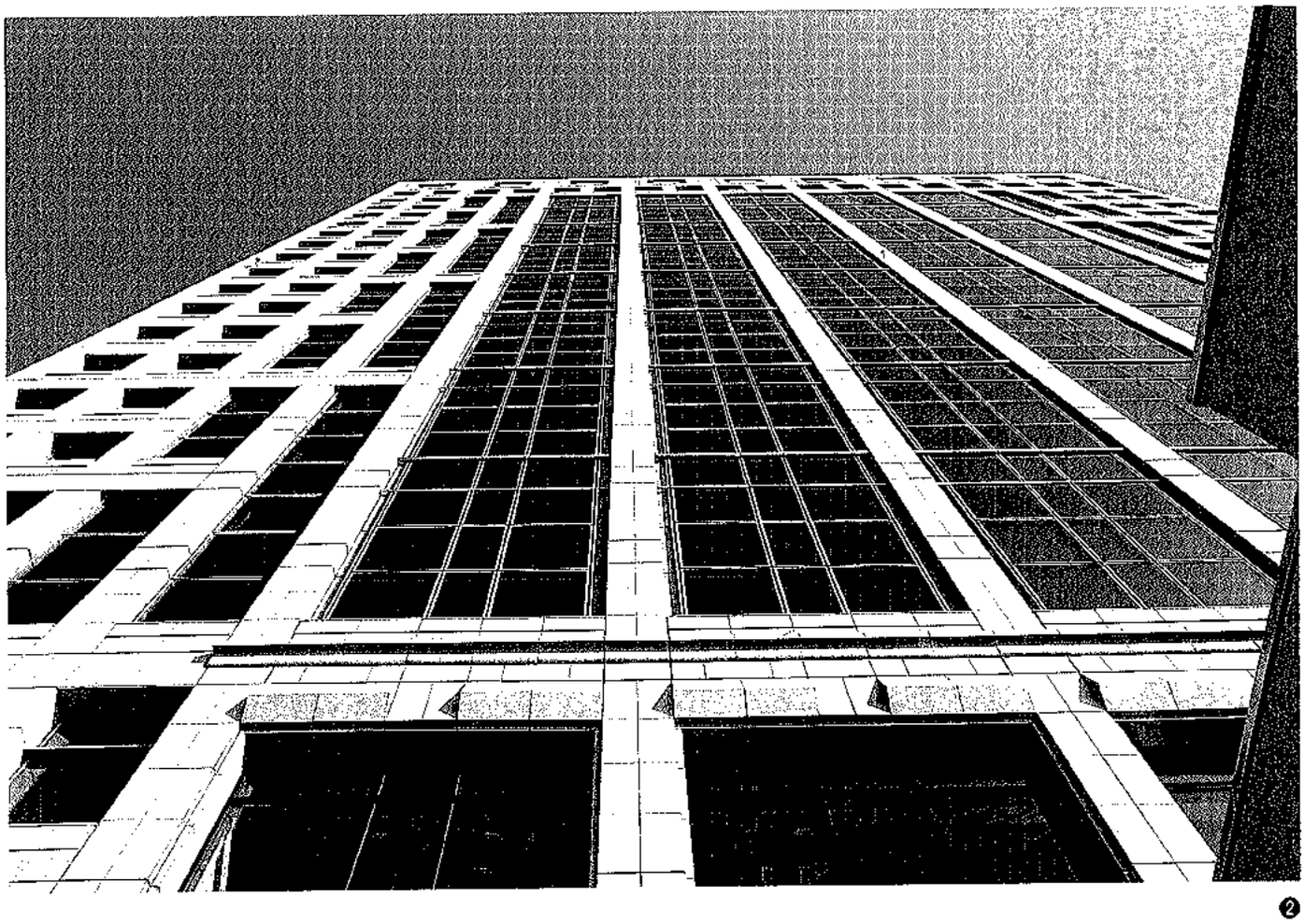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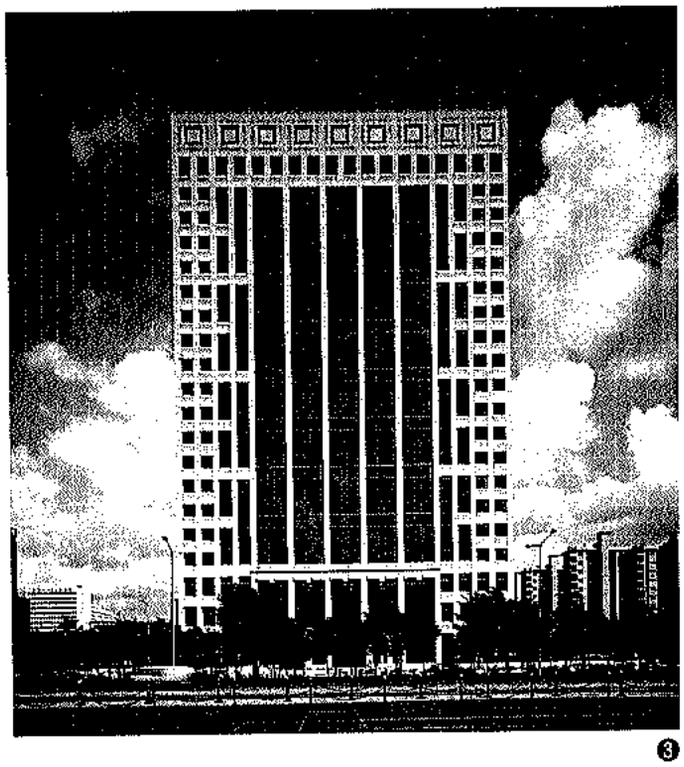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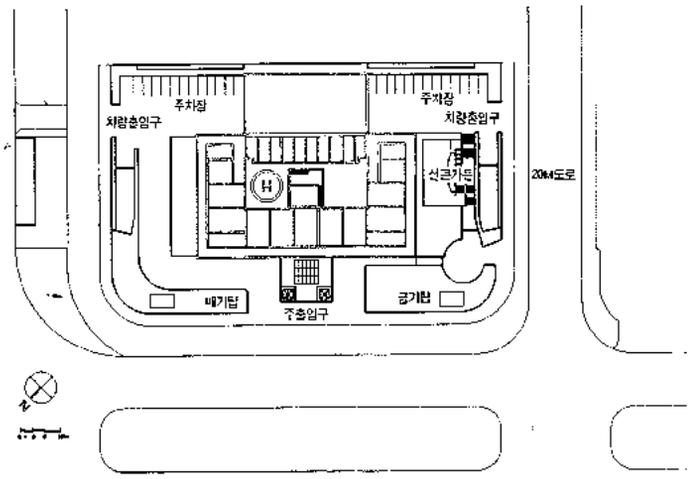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지역 / 일반상업지구
지구 / 주차장 정비지구, 제1종 집단미관지구, 업무지구
대지면적 / 6,612㎡
건축면적 / 2,184㎡
연면적 / 48,219㎡
건폐율 / 33.08%
용적률 / 433.7%
규모 / 지하4층, 지상20층, 옥탑2층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커튼월, 열반사복층유리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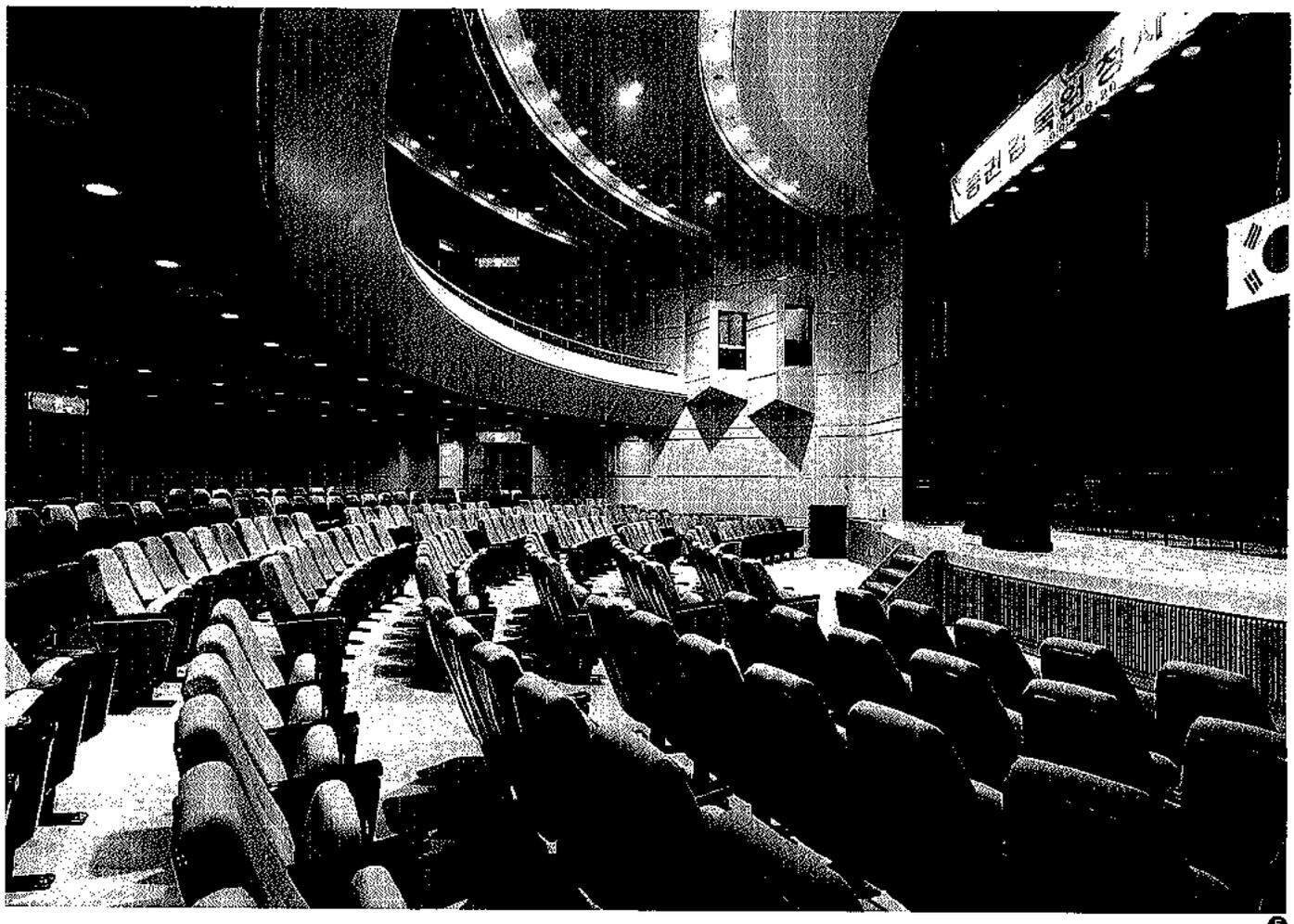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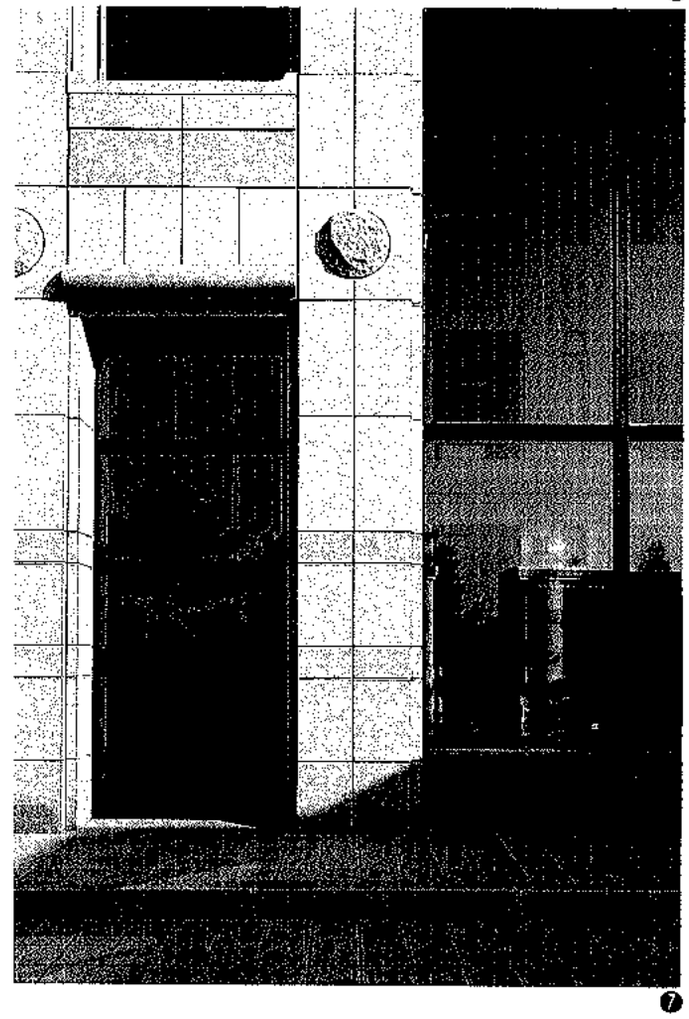
❹

❶ 동북측전경
❷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❸ 북서측 전경
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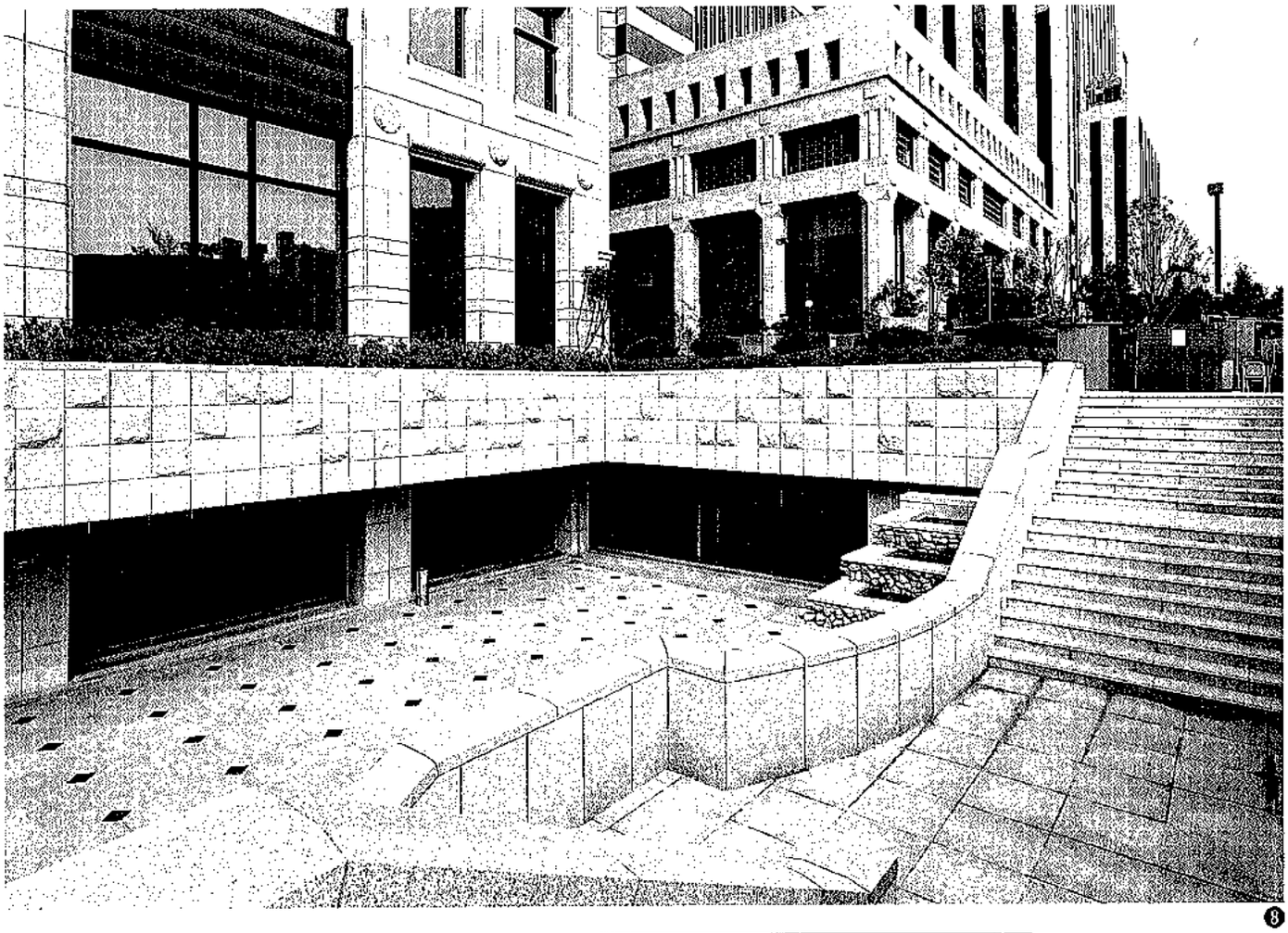


❺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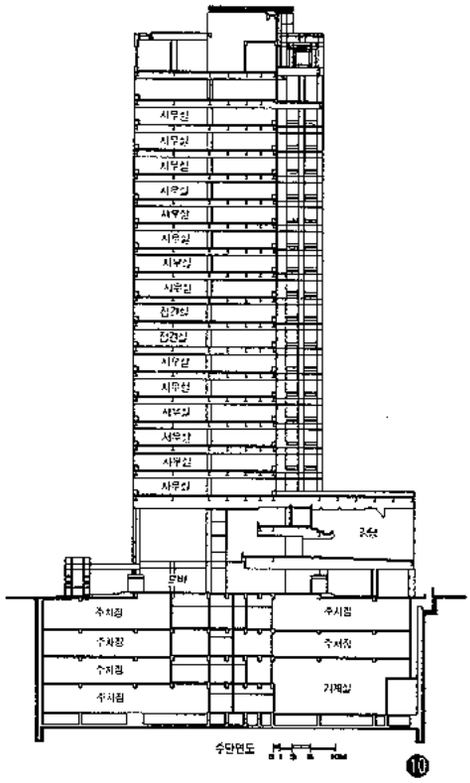
❼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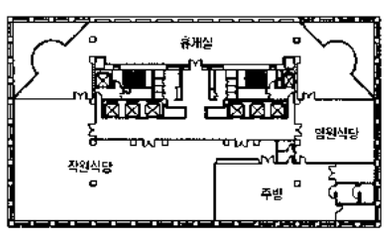
❾

❺강당내부
❻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홀
❼주출입구 벽면 상세
❽선큰가든
❾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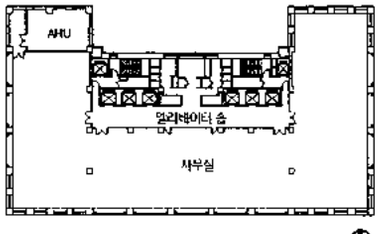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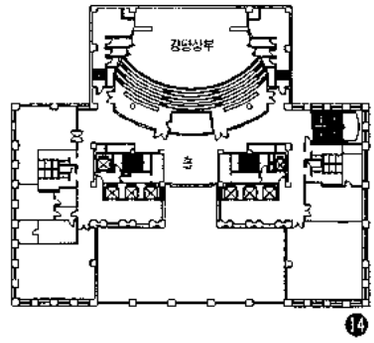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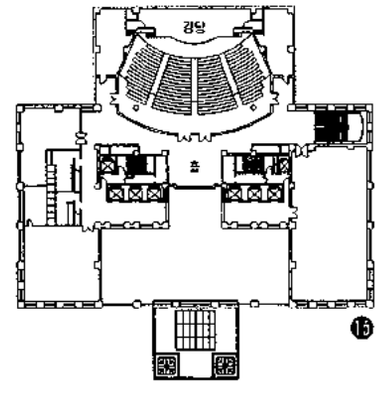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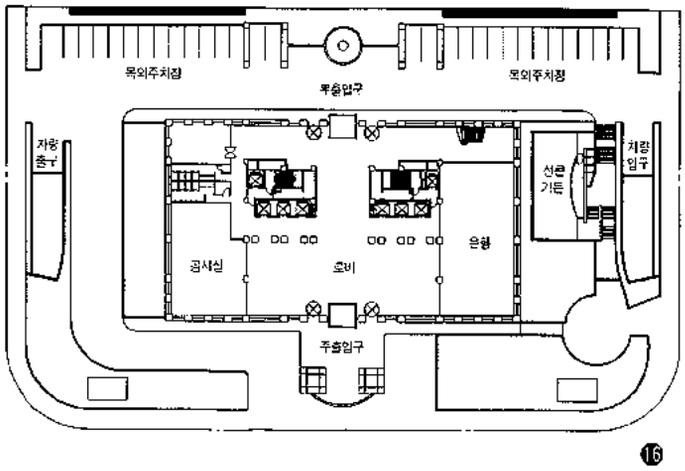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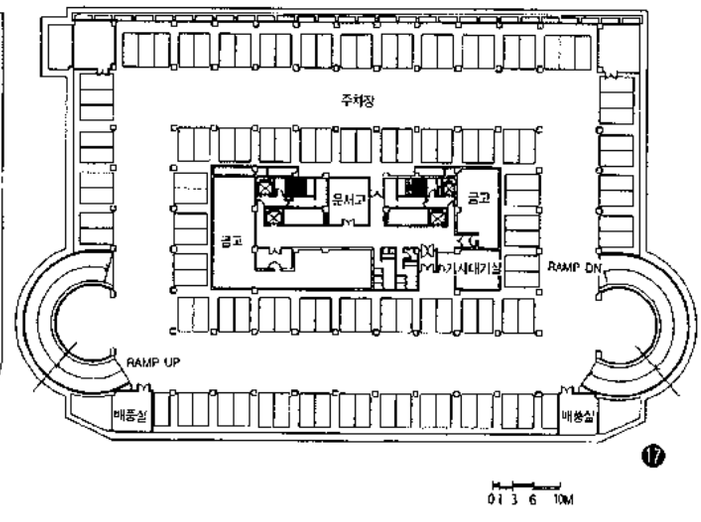
14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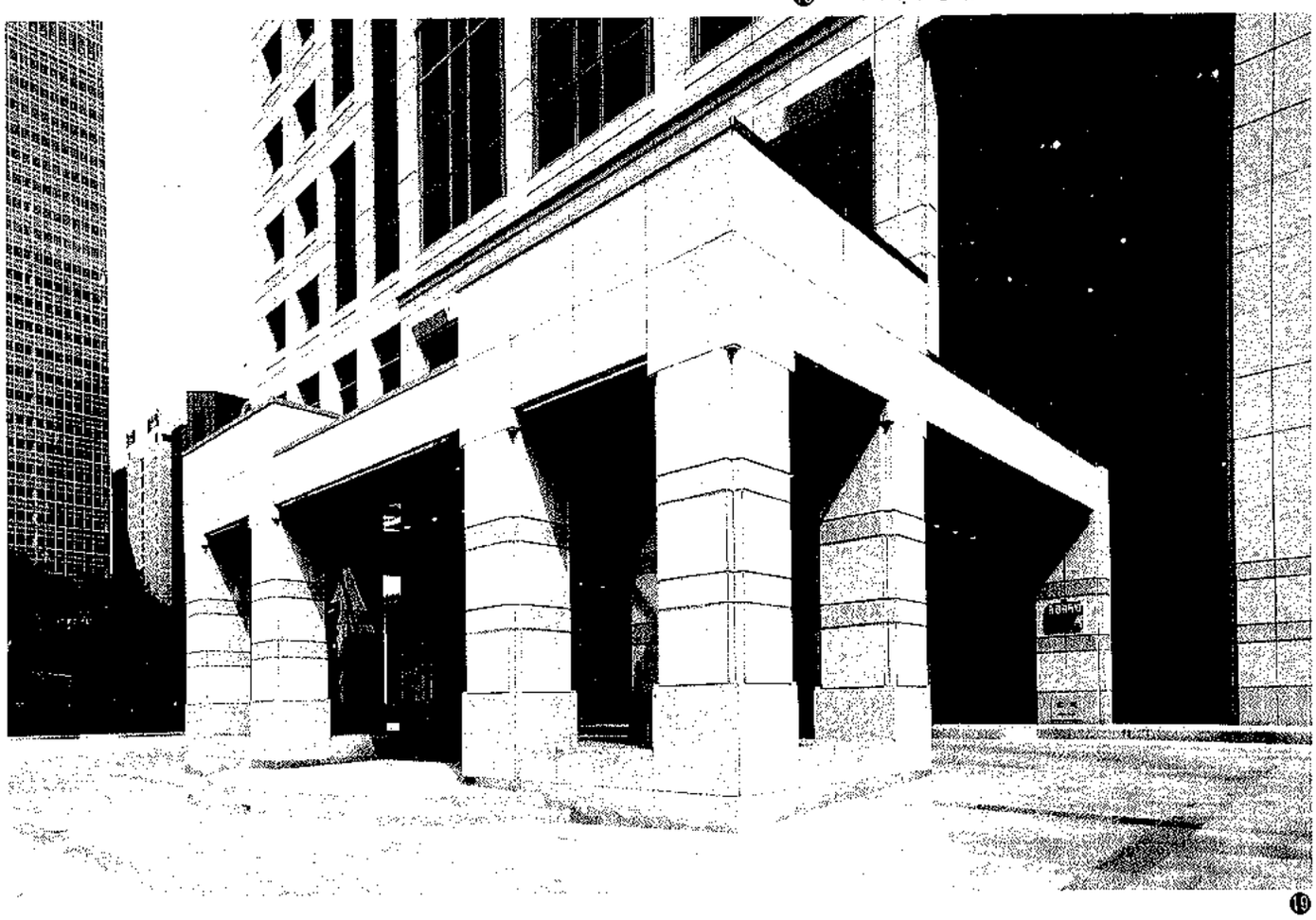
⑱

질주하는 자동차와 움직이는 군중이 늘 운집하는 여의도 광장을 끼고 있는 증권 감독원 부지는 우리나라 증권 금융계의 중심이 되는 여의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이 조성되는 증권 타운과 접하여 도토리 키재기같은 군속에서도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노력한 예이다.

증권 감독원은 이미지 구현적인 측면에서 결코 화려하지 않되 강한 상징성을 가지며,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금융 감독 기관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 조성에 의한 편의성, 쾌적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외부 조형은 우리 전통 격자 완자 문양에서 그 외형적인 모티브를 느끼게 되며 하나 하나의 반복, 또 크기를 달리하여 변화되는 창호의 리듬은 우리멋(전통)이 갖는 친근감과 정교한 다듬음(솜씨)을 표출하여 정직하고 꾸밈없는 공기업 상(像)의 반영으로 의도하였다. 업무 수행에 요구하는 제반 시설의 유기적 체계와 능률 증대, 쾌적한 실내외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설비, 정보통신의 종합화에 의한 인텔리전트 빌딩화를 꾀하였다.

충분하지 않게 책정된 공사비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였으며, 설계자가 현장 마무리(감리 업무)를 짓지 못한 게 한편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세찬 여의도 바람 속에서 늘 신선하고 단아한 선비 모습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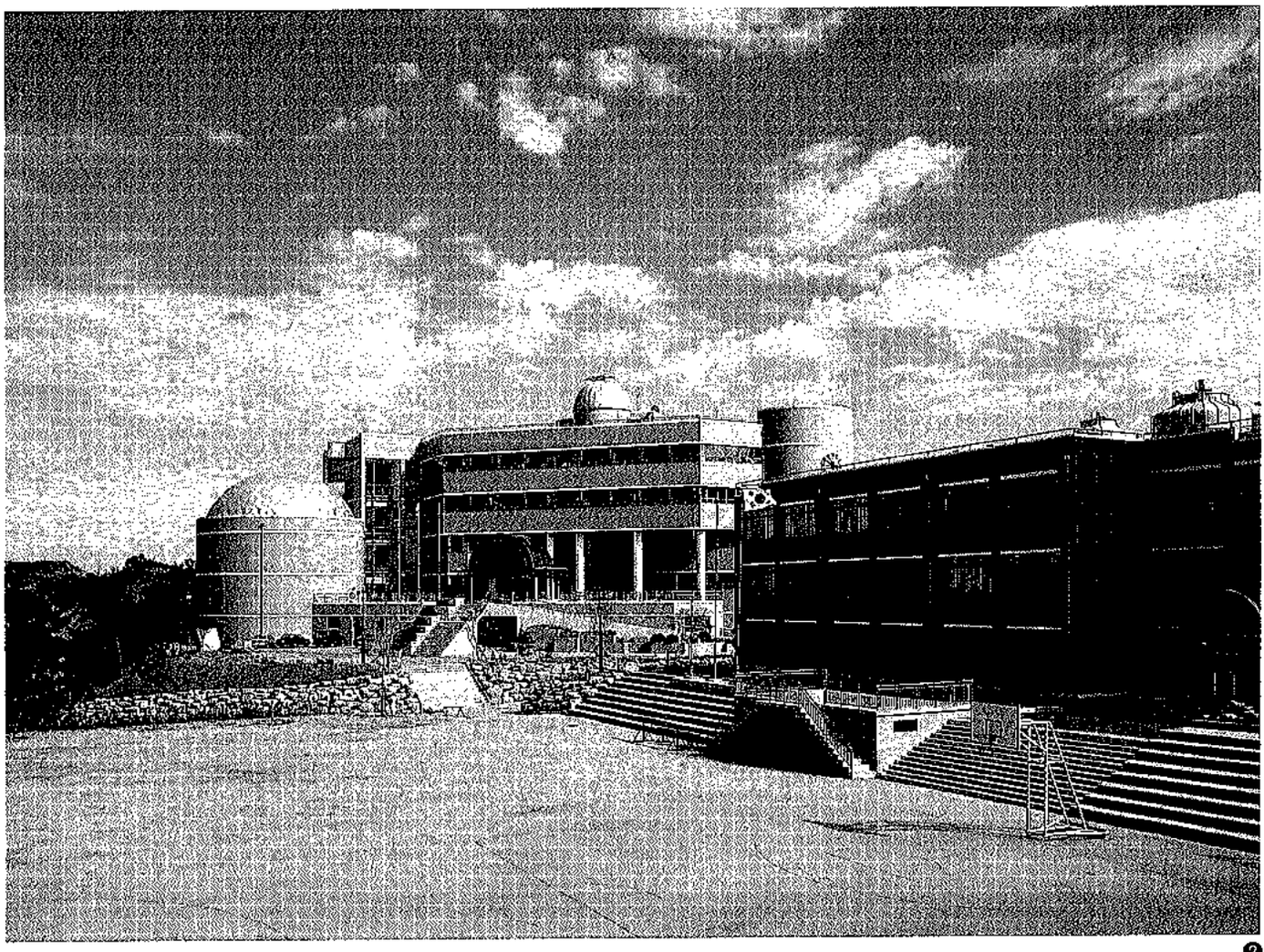
⑩ 주단면도
⑪ 20층 평면도
⑫ 서측전경
⑬ 기준층 평면도
⑭ 3층 평면도
⑮ 2층 평면도
⑯ 1층 평면도
⑰ 지하1층 평면도
⑱ 1층 로비 전경
⑲ 주출입구 상세

경상북도 과학교육원

Kyeongbuk Educational Science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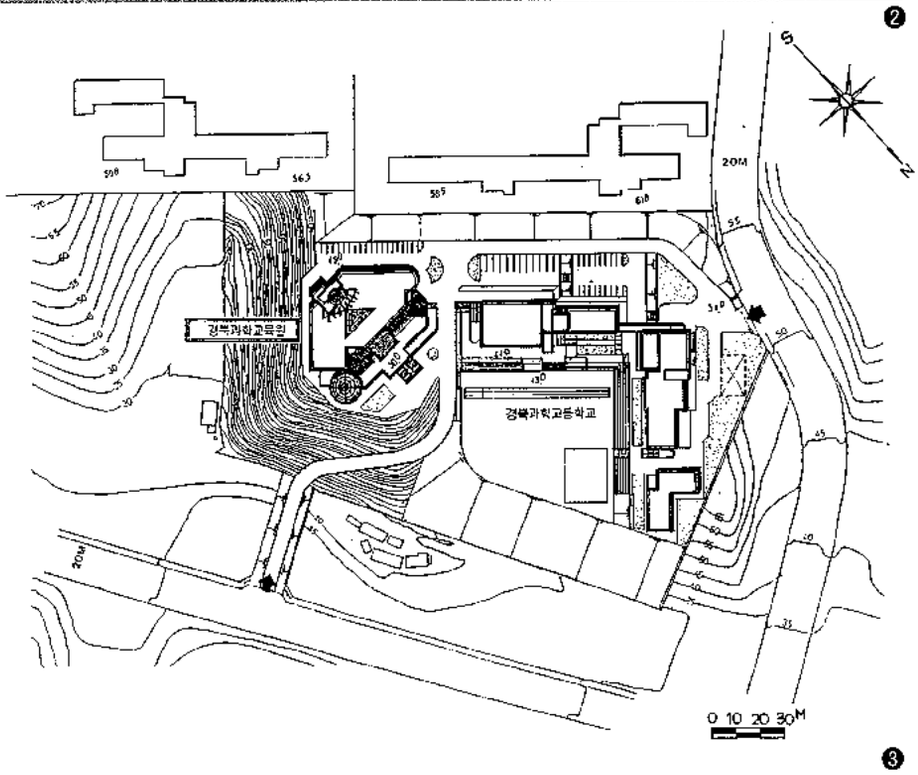
李根坤/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
Designed by Lee, Keun-Gon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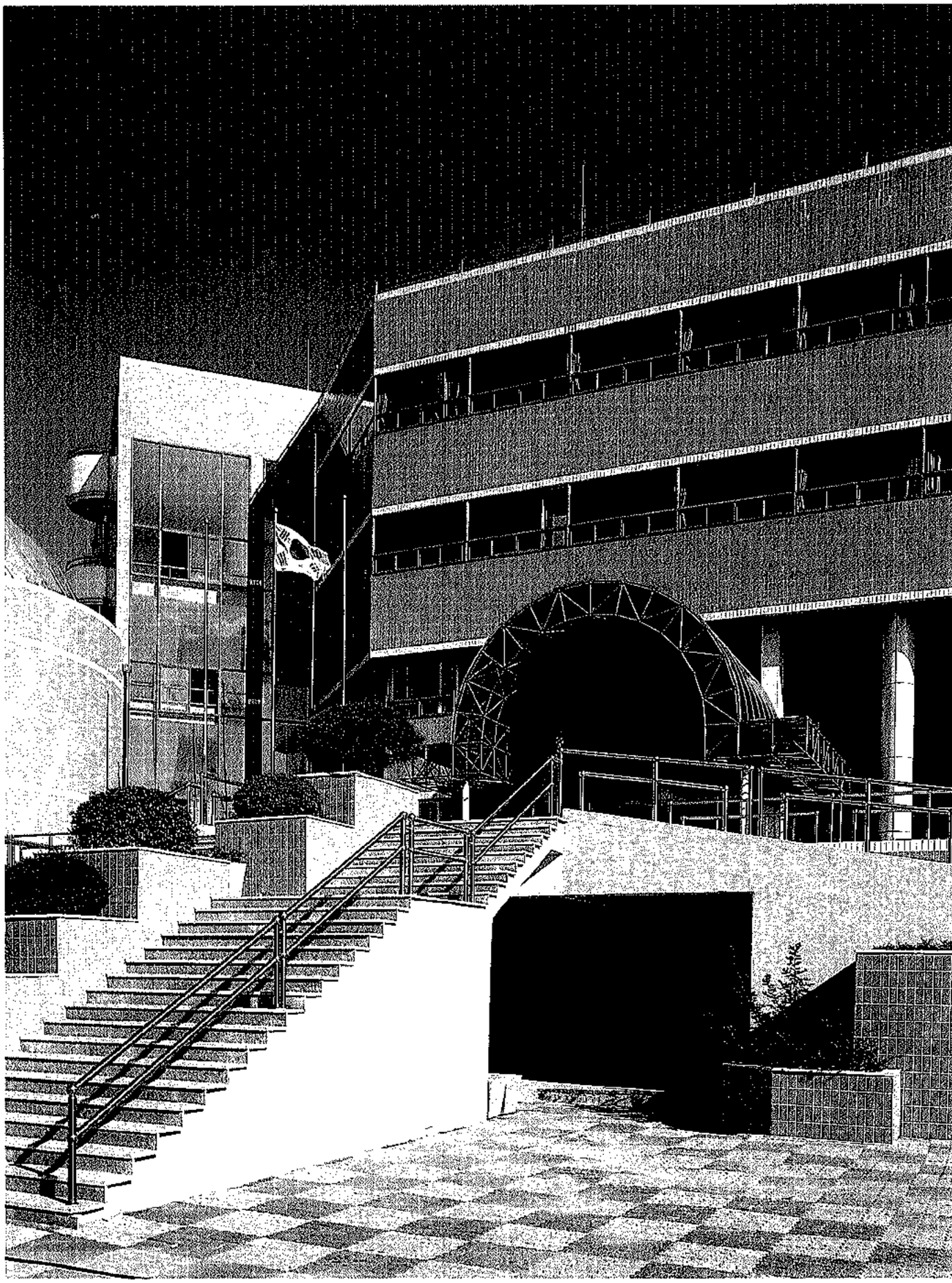
❷

대지위치 / 경북 포항시 용흥동 산 60-1 번지 외 12필지
대지면적 / 34,074㎡
규모 / 지하1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면적 / 2,165.13㎡
연면적 / 8,757.61㎡
지역지구 / 자연녹지 지역
외부마감 /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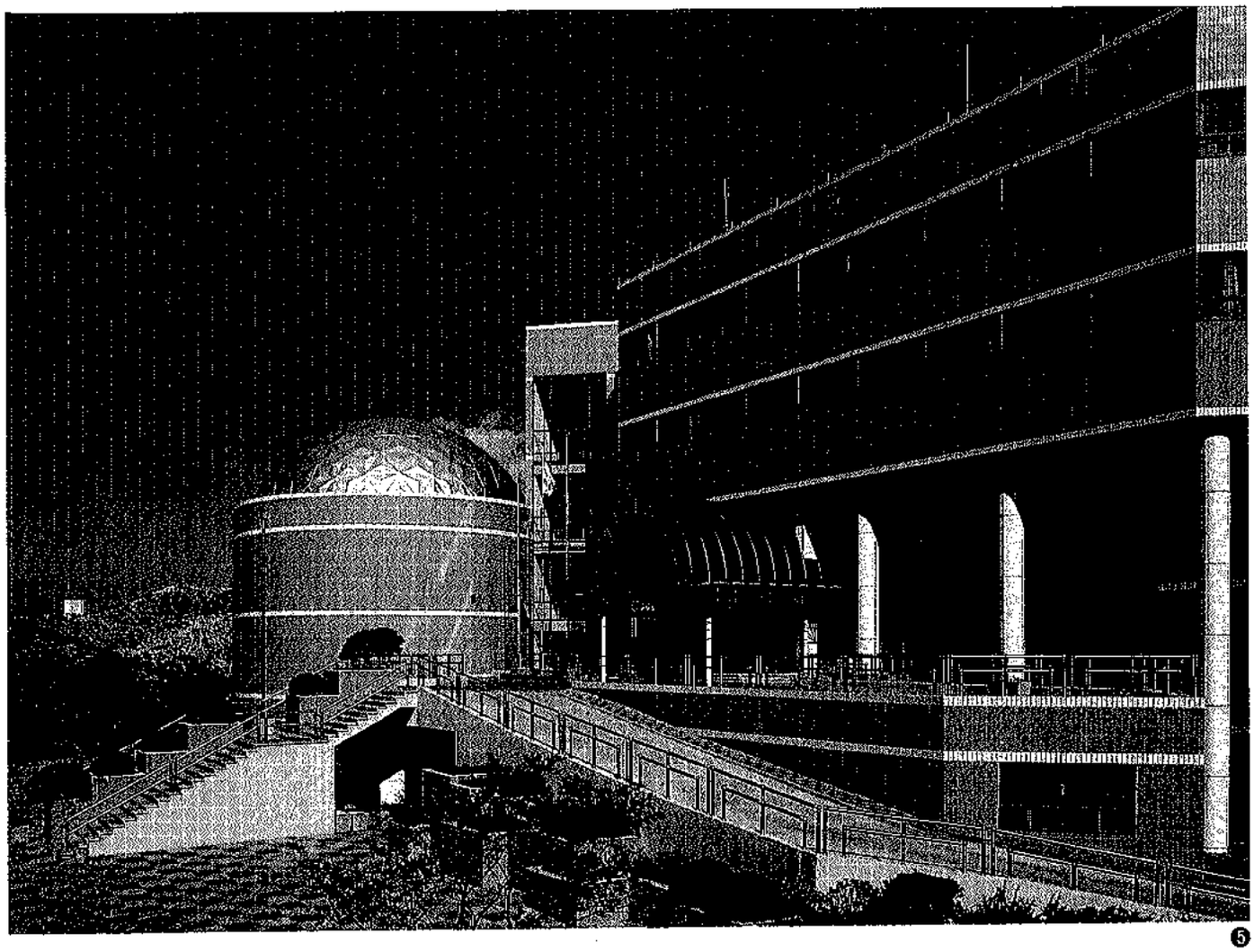
❸

❶ 서측전경
❷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본 전경
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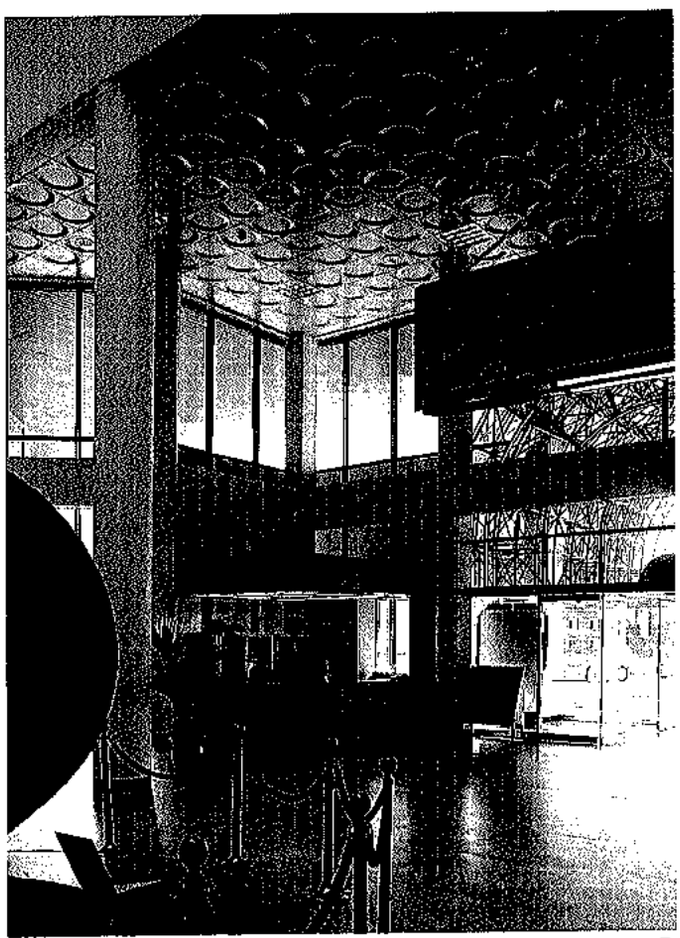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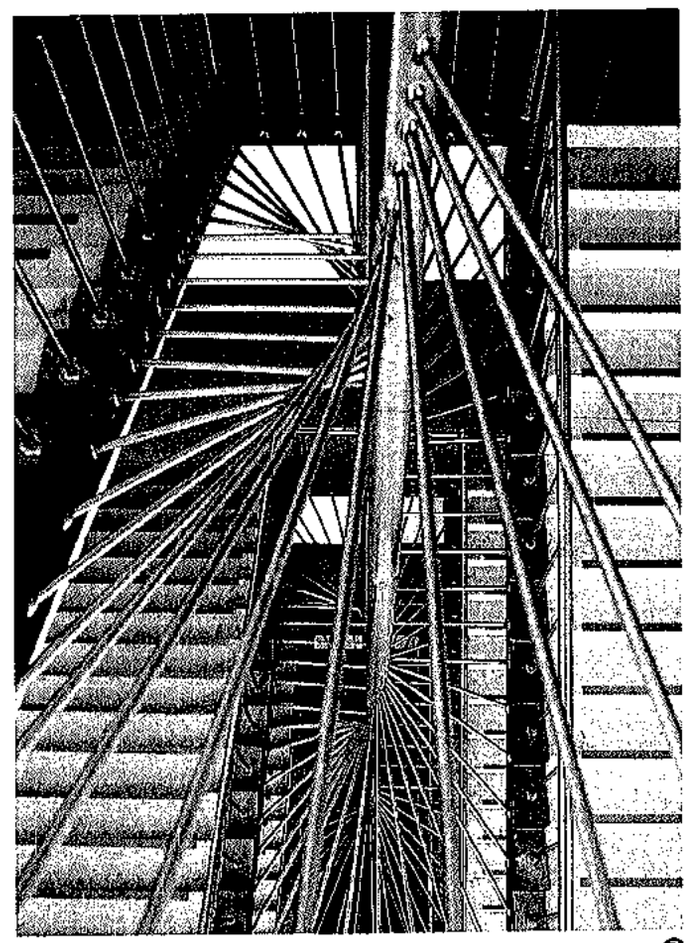
❹ 정면에서 본 계단 및 2층 주출입구
❺ 북서쪽에서 본 2층 주출입구 전경
❻ 2층 현관 로비
❼ 계단 open 부분 스텐파이프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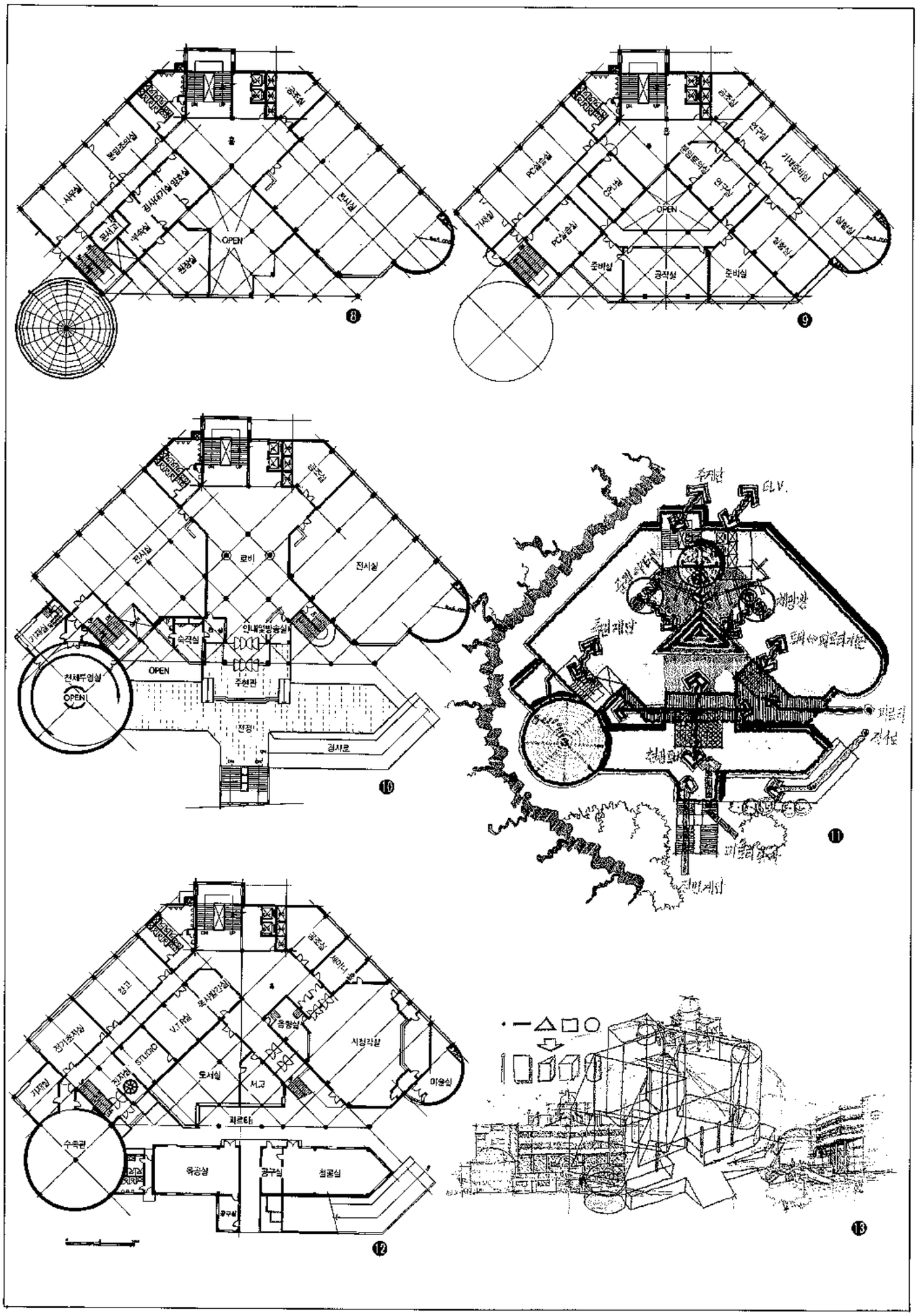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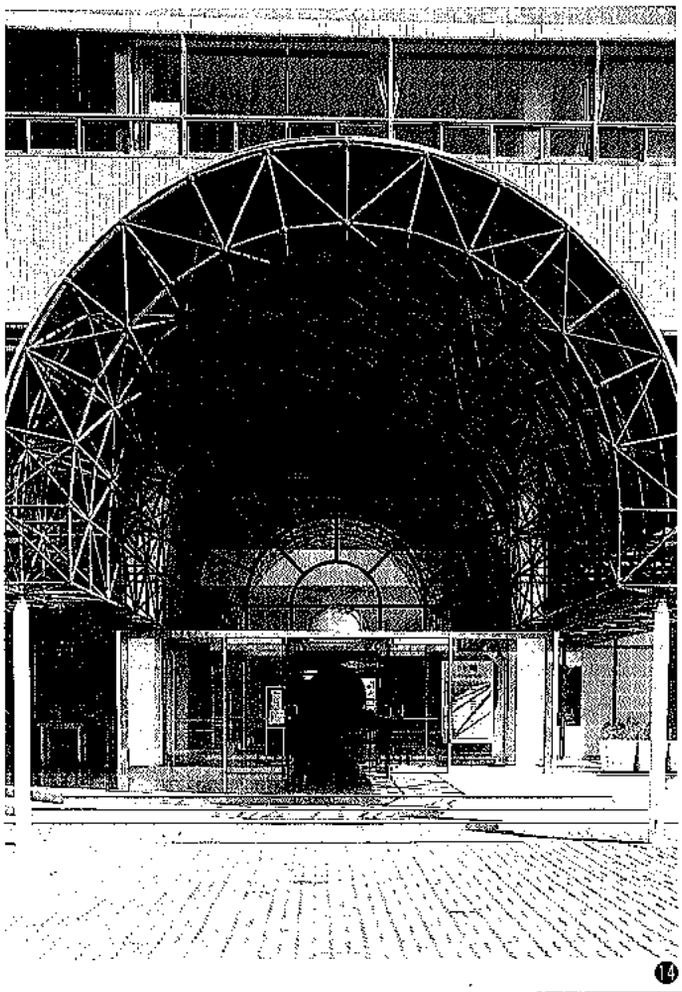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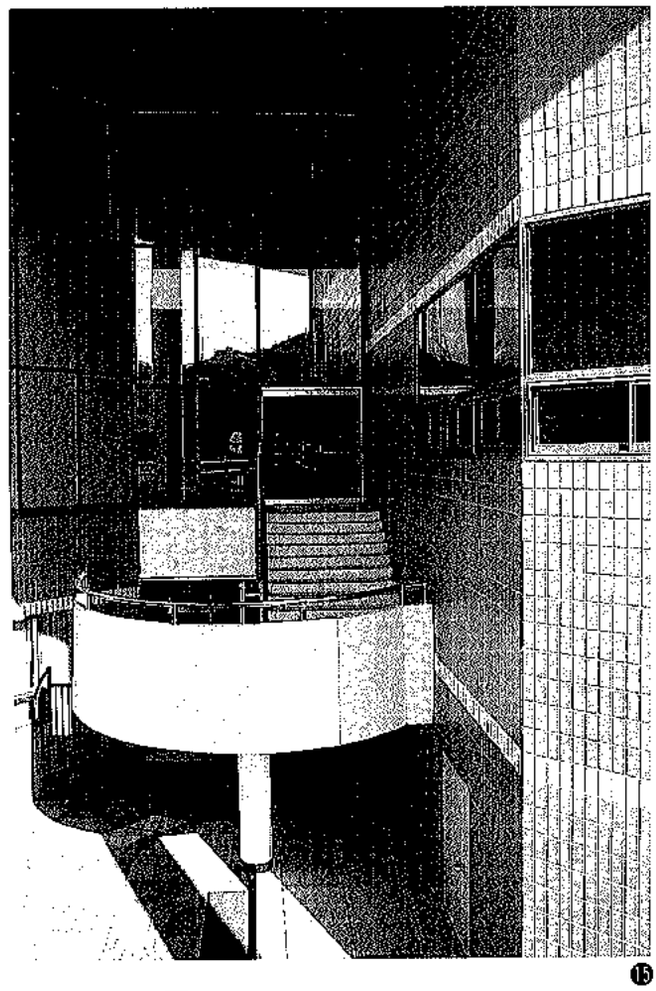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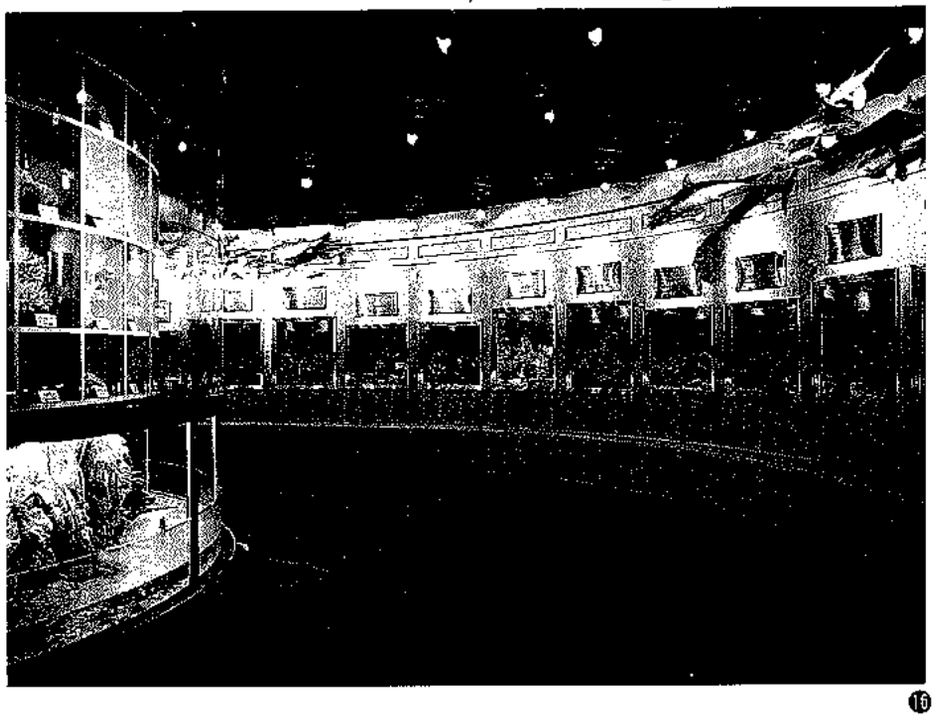

사무실
본관조의실
정보기술연구실
원시고
박물실
원형실
OPEN
전시실
공조실
⑧
PC실습실
연구실
기자실
준비실
공작실
⑨
로비
인내및방송실
수격실
OPEN
천체투영실
주천관
전정
검사로
⑩
주개관
D.L.V.
체험관
⑪
기자실
장기출차실
창고
V.T.R실
STUDIO
도서실
서고
휴게실
수족관
옥공실
공구실
철공실
시청각실
이용실
⑫
⑬



⑭



⑮



⑯

⑧ 3층 평면도
⑨ 기준층 평면도
⑩ 2층 평면도
⑪ 각기능분석 스케치
⑫ 1층 평면도
⑬ 개념스케치
⑭ 현관 캐노피
⑮ 1층 피로티와 2층 로비연결 계단
⑯ 수족관

기본방향

○기능(탐구력/창의성/연구)
- 21세기를 향한 기초과학교육의 산실
- 자연경관의 손상을 가급적 줄인다.
-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의한 홀, 복도등의 순환성 요소들은 통행의 장소만이 아닌 홍보나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형태(부지/환경/질)
- 기초 기하학-□△◎의 발전한 외부형태 도입
- 건물의 질감(Texture)과 색채는 주위와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시각적 영향력을 고려
- 건물의 통일감과 안전감을 살린다.

○경제성(각종 설비/구조/재료)
- 에너지 절약 계획 실징
-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재료와 마감재는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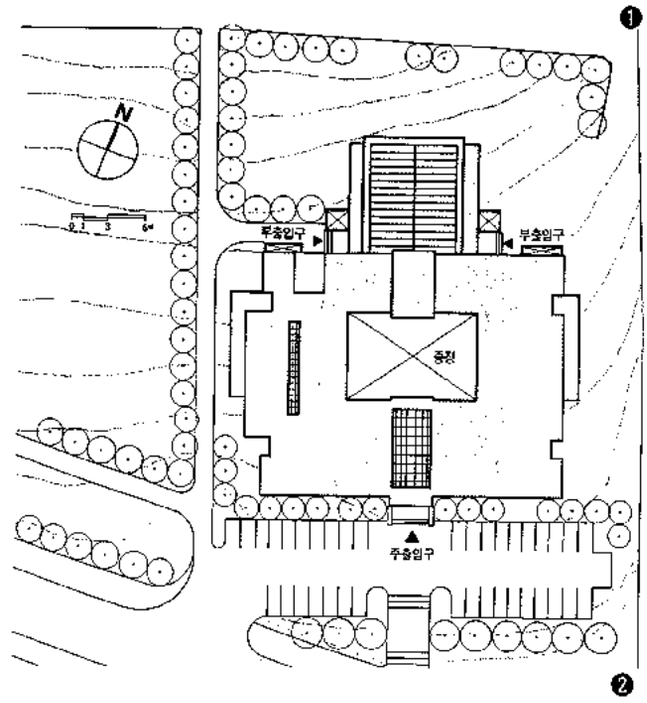
○시간성(과거/현재/미래)
- 2층을 주현관으로 동시다발적 동선의 분산계획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확장성, 융통성 고려
-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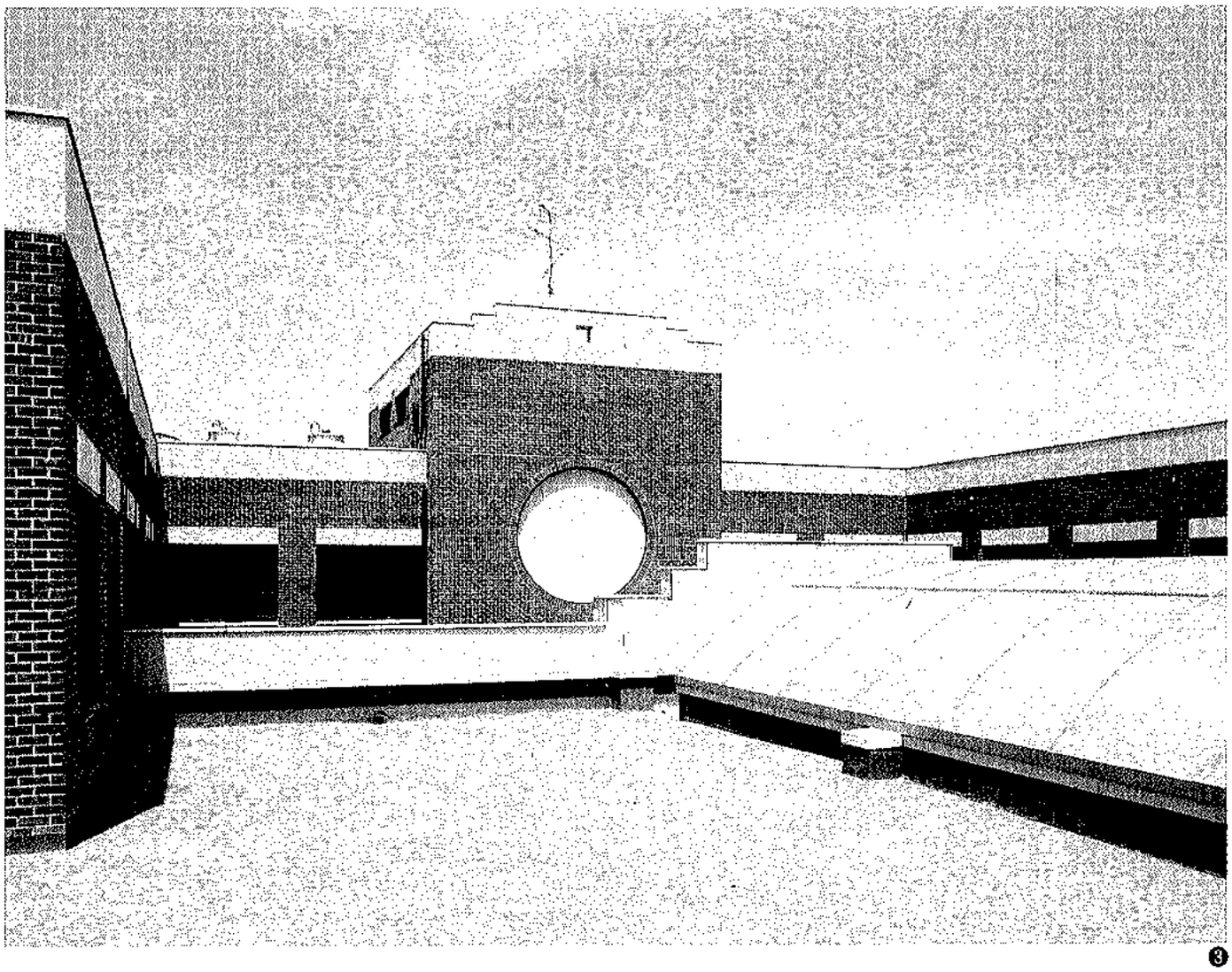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

Yungnam Junior Graduat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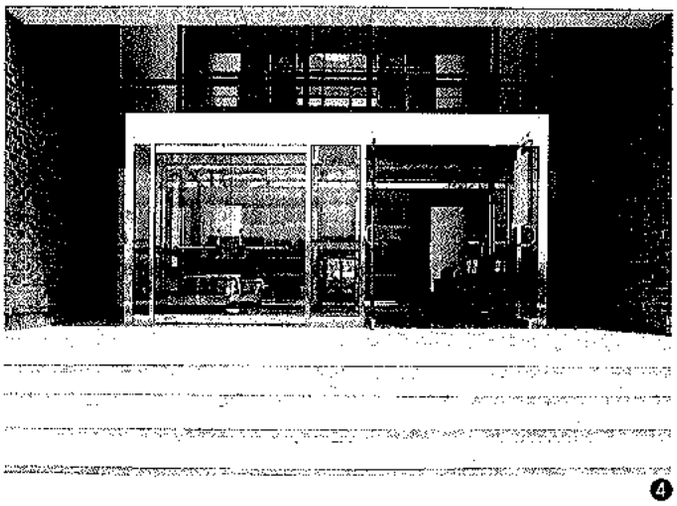
徐輔光/종합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위치 / 대구시 대명동 영남대 캠퍼스내
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 206,337㎡
건축면적 / 2,387.16㎡
건폐율 / 14.54%
용적률 / 62.59%
규모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비방식 / 중앙집중식
주요외장재 / 화강석 버너구이, 변색벽돌 치장쌓기, 16㎜ 컬러복층유리
설계기간 / 92.4.~8.
준공 / 94.3
계획담당 / 이중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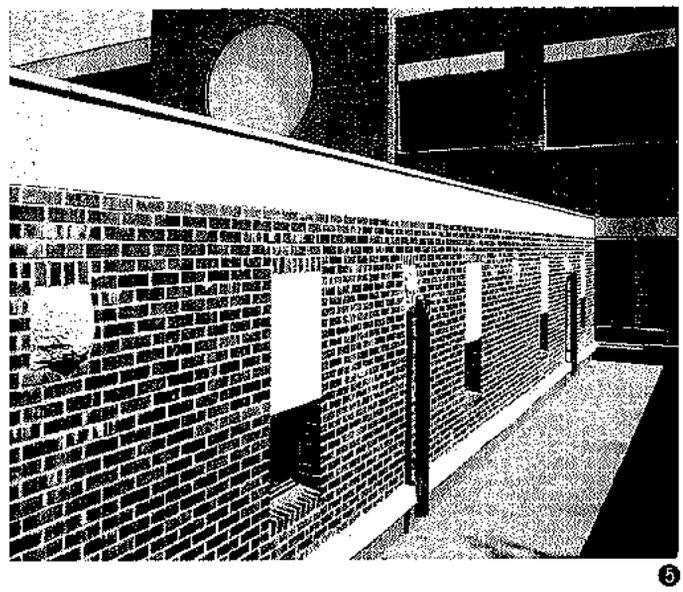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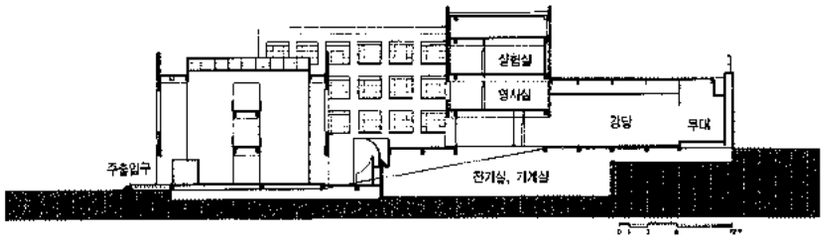
❸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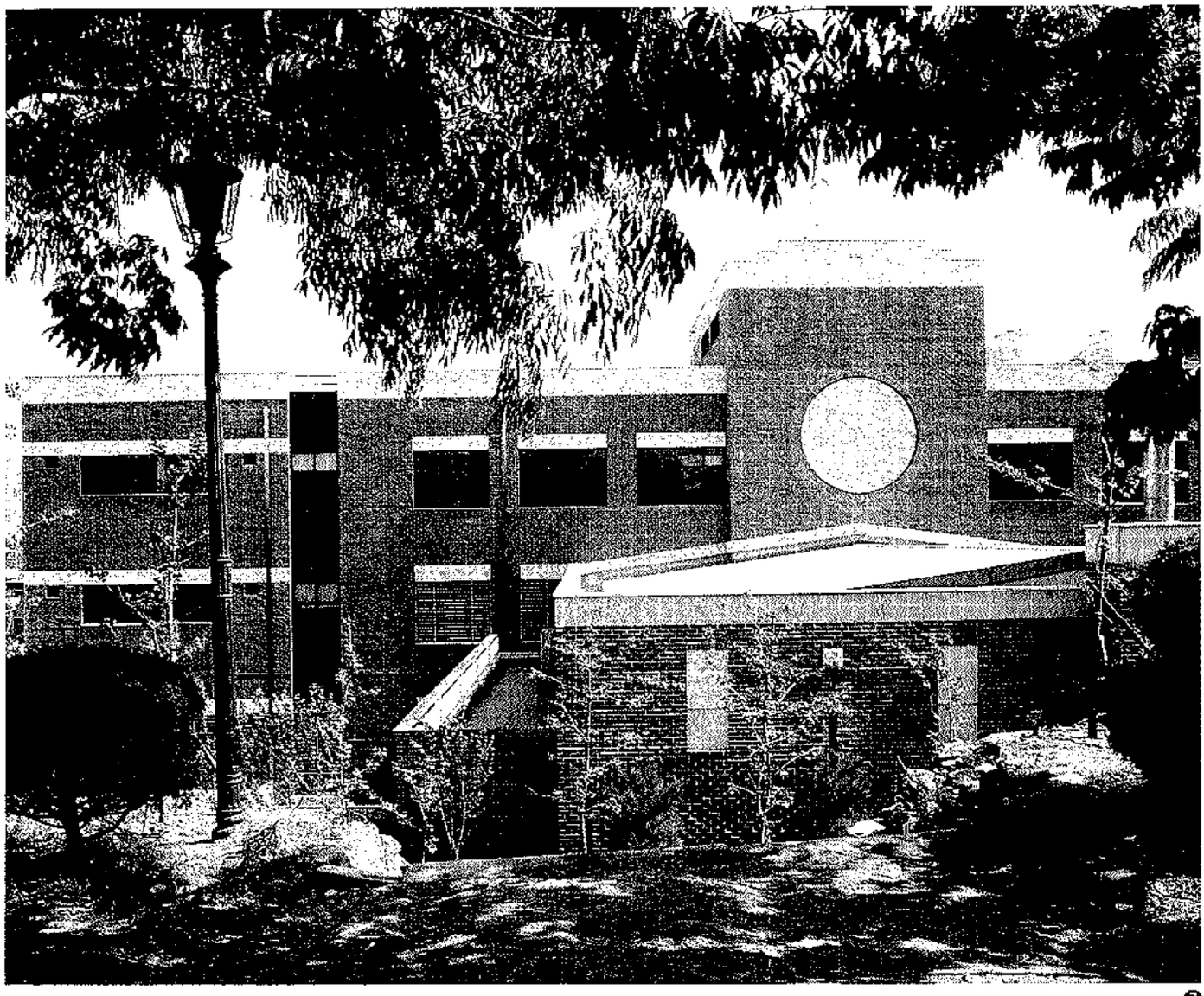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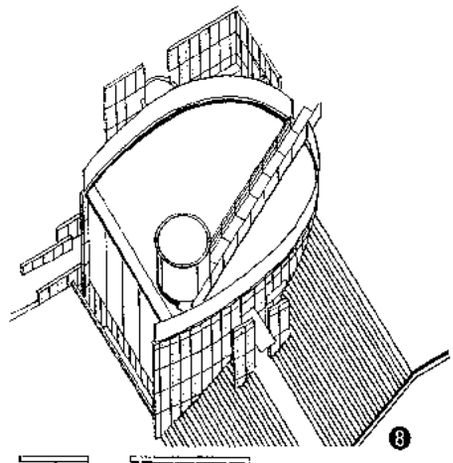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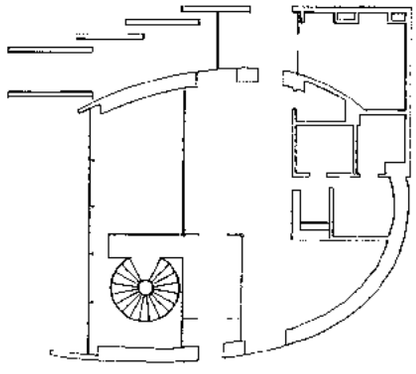
❶ 남측전경
❷ 배치도
❸ 3층 옥외공간
❹ 주출입구 상세
❺ 강당으로 연결되는 외벽디테일
❻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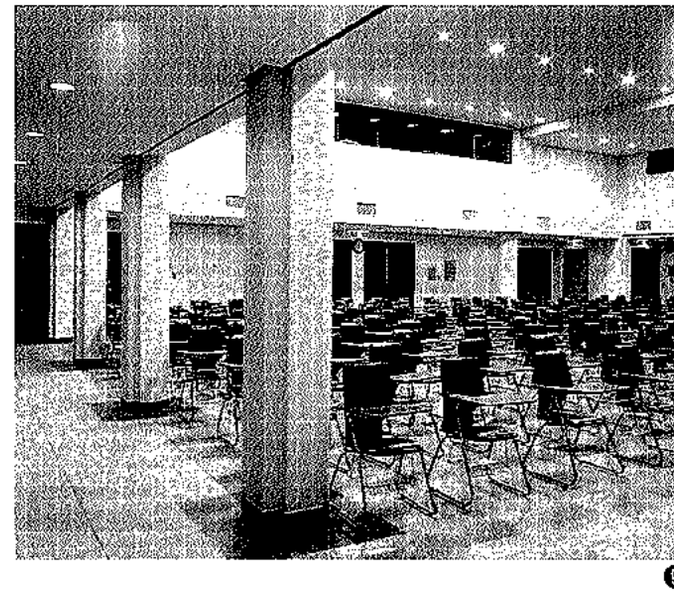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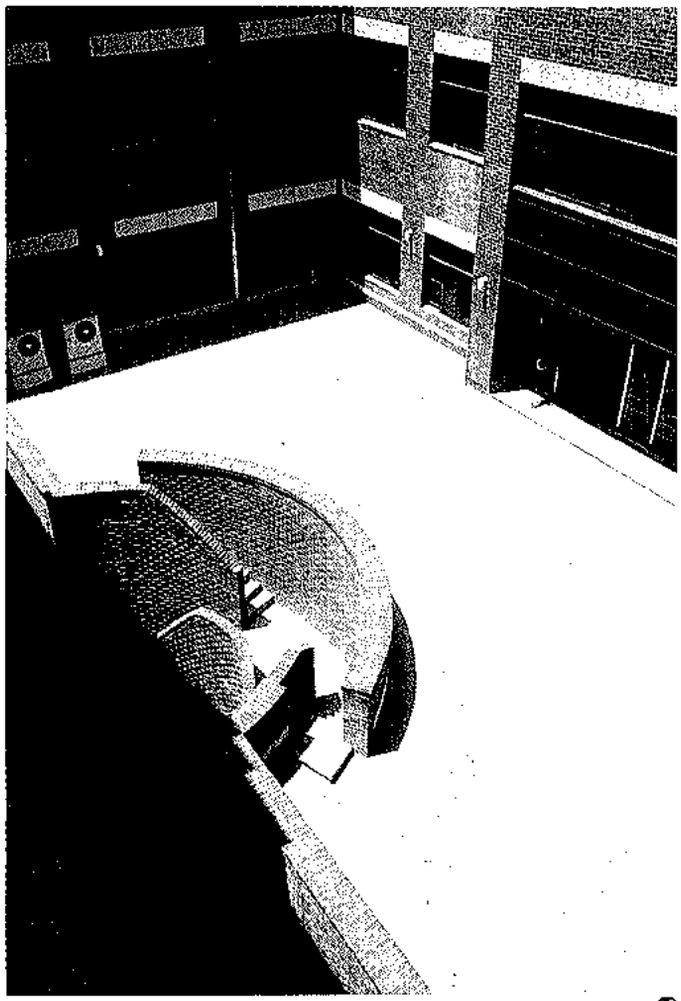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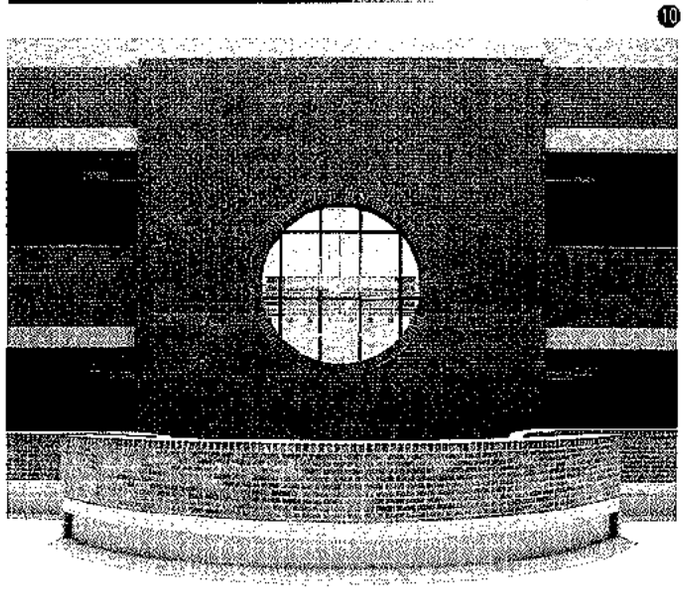
❾

❼ 북측전경
❽ 엑소노메트릭
❾ 강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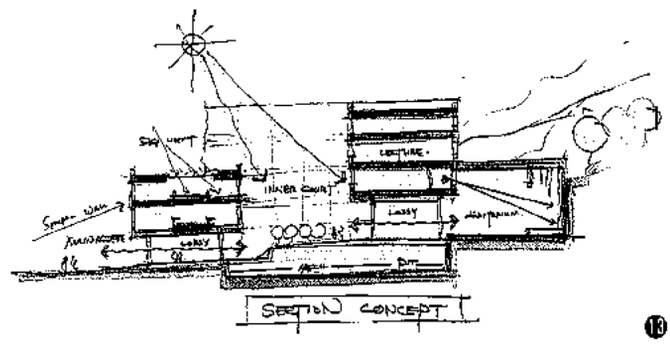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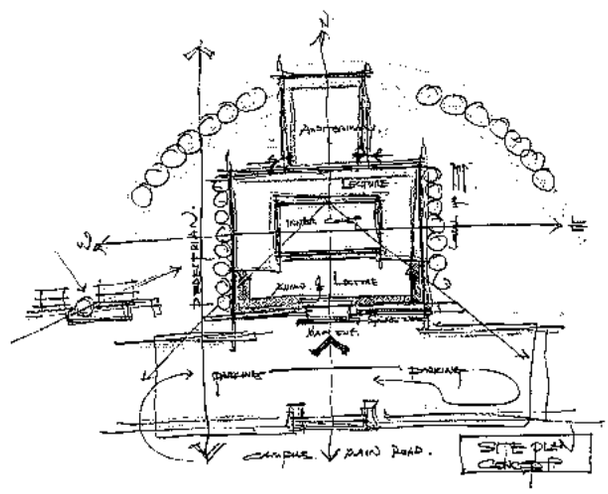
⑪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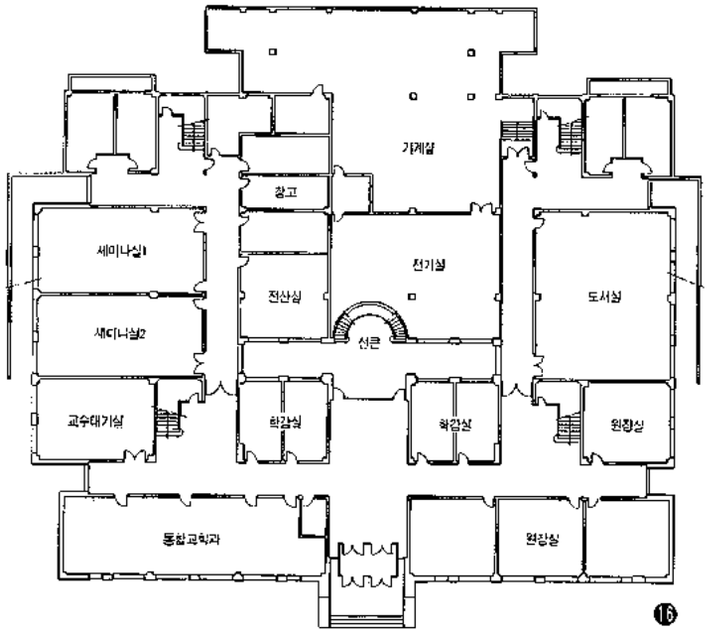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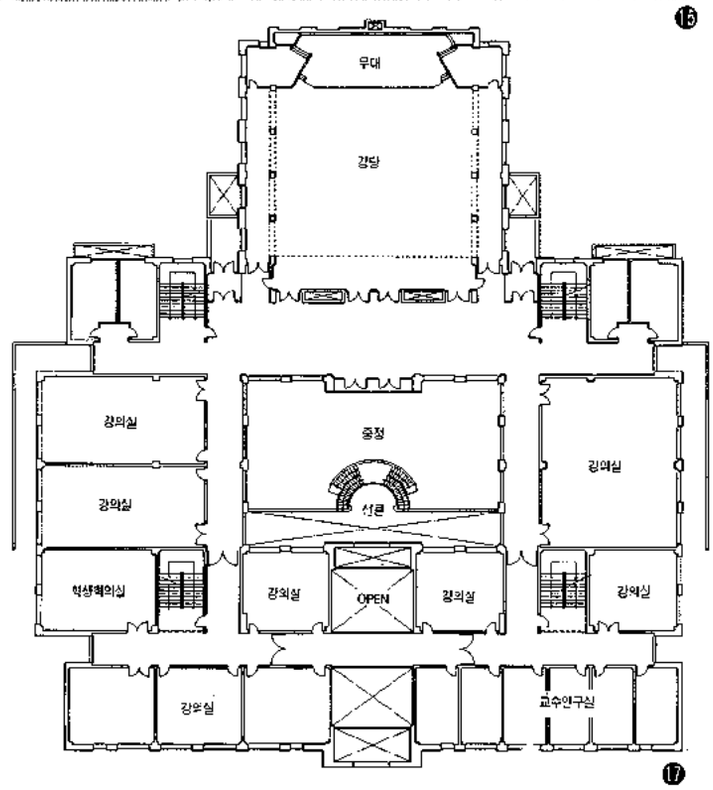
⑭

⑩ 1층 연결옥외계단이 있는 2층 중정
⑪ 옥외계단부
⑫ 2층 중정에서 본 옥외계단 입구
⑬ 초기안 스케치 1
⑭ 초기안 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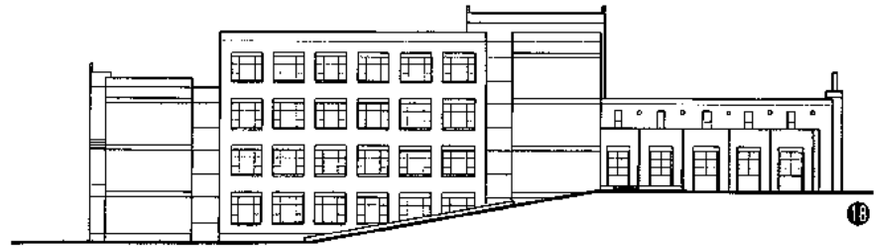
⑮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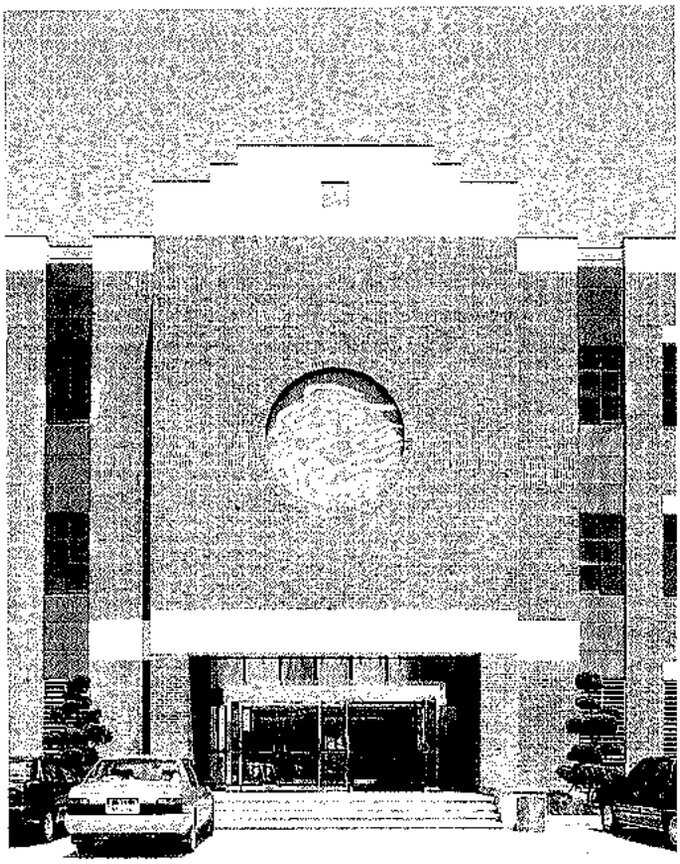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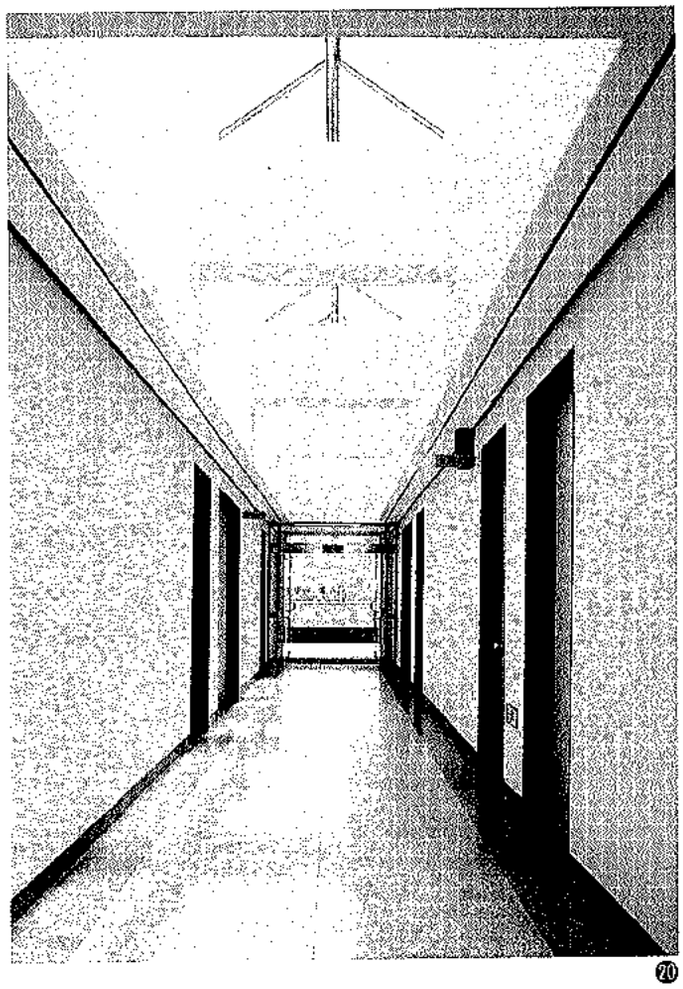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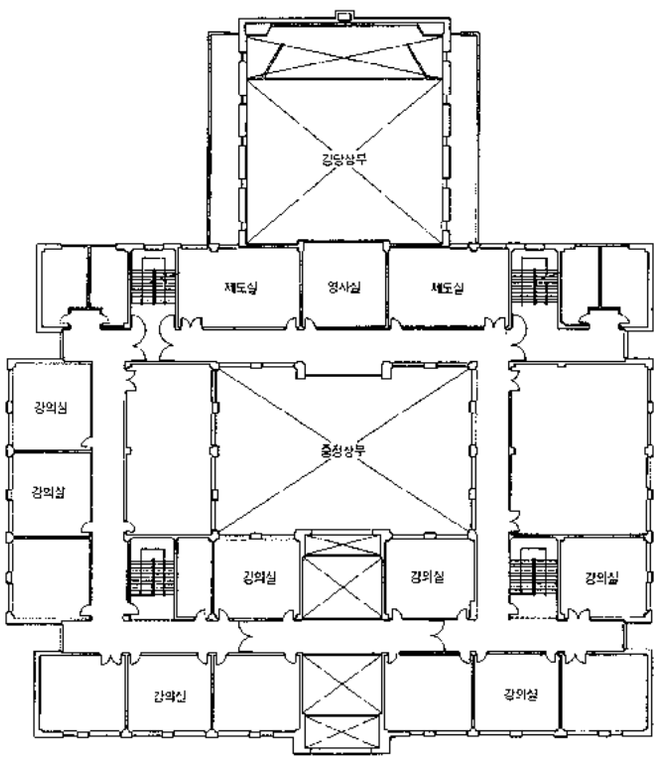
⑮ 남동측 주출입구 전경
⑯ 1층 평면도
⑰ 2층 평면도
⑱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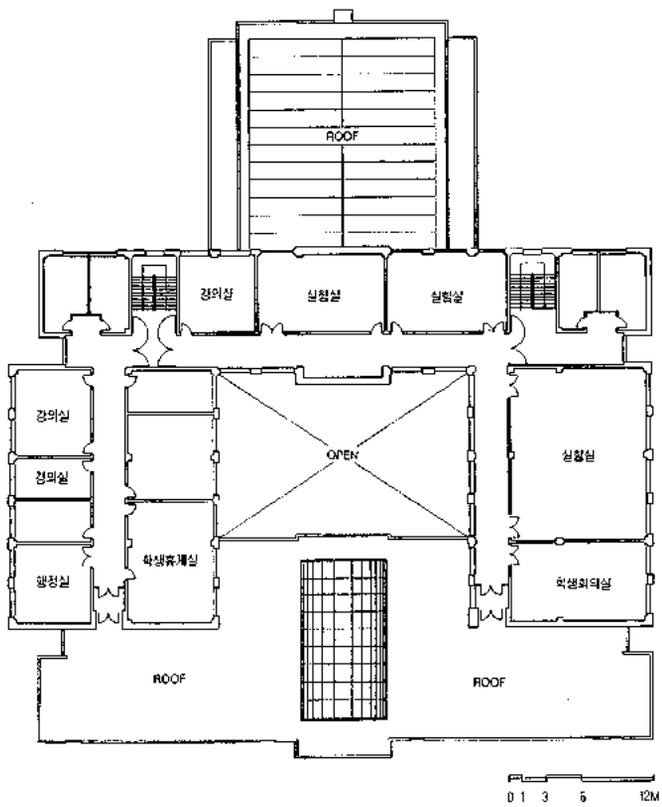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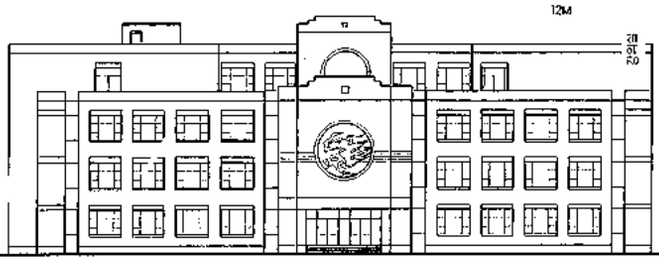
⑳



㉑



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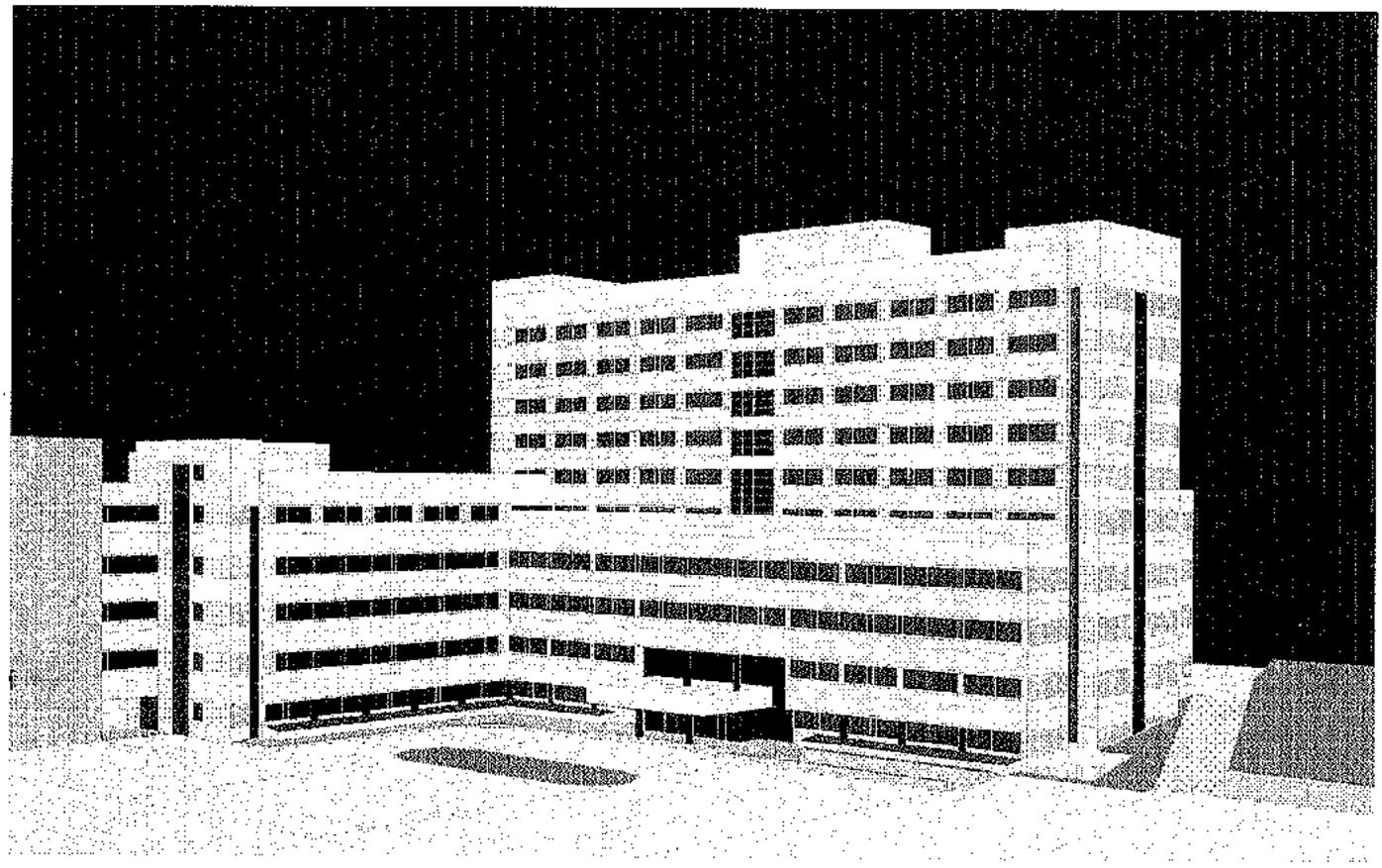
㉓

⑲주출입구
⑳톱라이트를 이용한 복도
㉑3층 평면도
㉒4층 평면도
㉓남측면도

대구 카톨릭대학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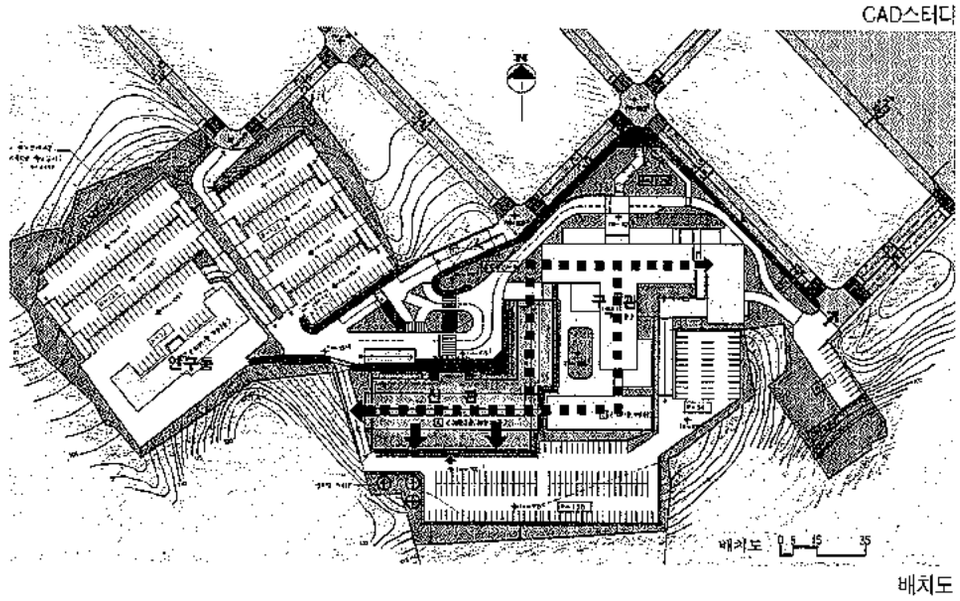
T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

金武權/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Mu-Kwon



CAD스터디

대지위치 /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331-1번지 외 17필지
대지면적 / 38,420㎡ (11,622.05 평)
건축면적 / 6,985.74㎡ (2,113.18 평)
건폐율 / 18.18%
연면적 / 44,309.40㎡ (13,403.59 평)
용적률 / 94.08%
규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병상수 / 812bed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피니쉬코트
설계담당 / 권순철, 하성훈
구조담당 / 이홍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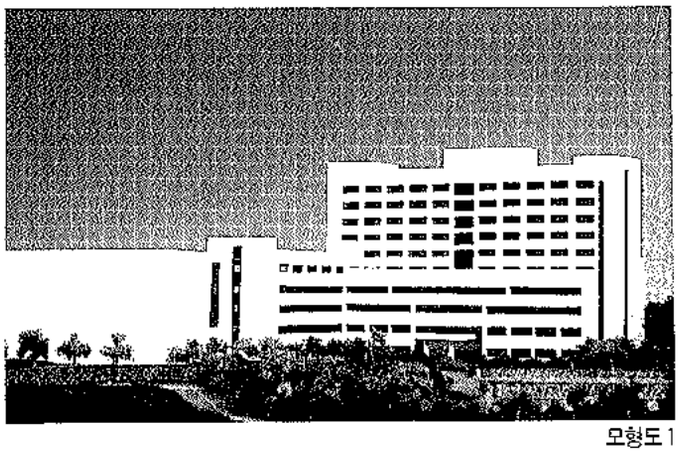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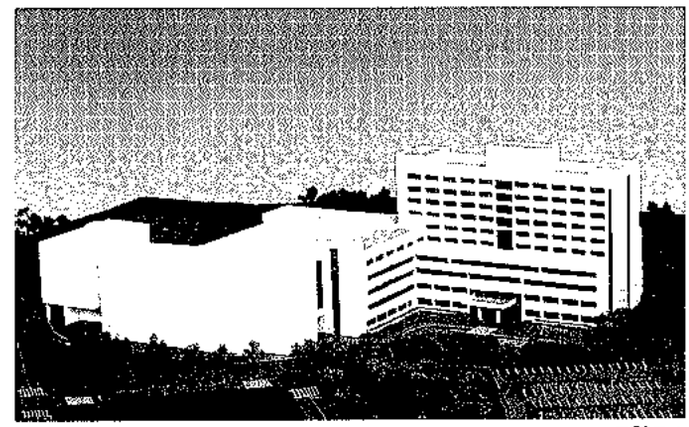
본 계획은 기존의 열악한 의료시설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대학종합병원의 위상과 내실을 갖추기 위한 목표아래 전개되었다. 2년여 동안의 계획기간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병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800병상의 완전한 공간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기존 건물의 낮은 천정고, Low Value의 설비, 전기 시스템은 전면개보수라는 전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에 신관건물의 완공후 구관건물의 기능수용 그리고 개보수후 완전한 병원체계의 설정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시행하였다.

사례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전국각지의 병원들이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행한 점을 발견하여 직접 병원의료진(의사, 간호사, 관리인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들 나름대로의 행위패턴을 이해하고 개선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립의료관리연구원과 타병원의 전문가에게 얻은 조언은 실로 크나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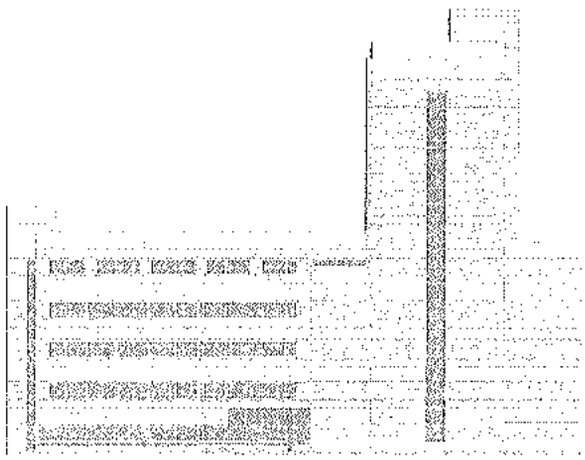
배치계획은 신관건물을 주건물군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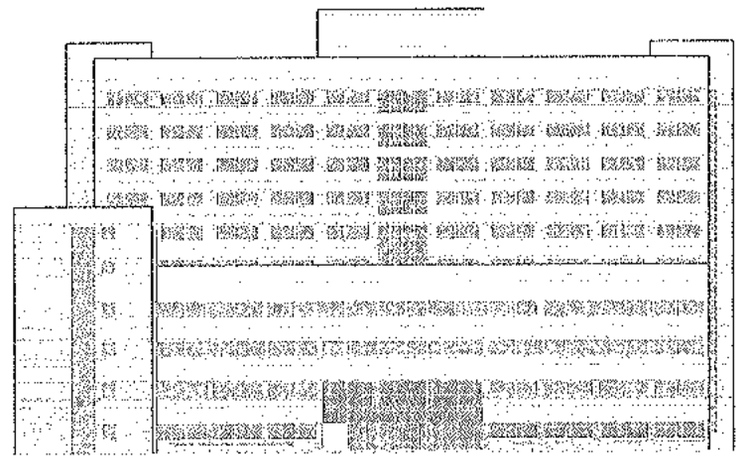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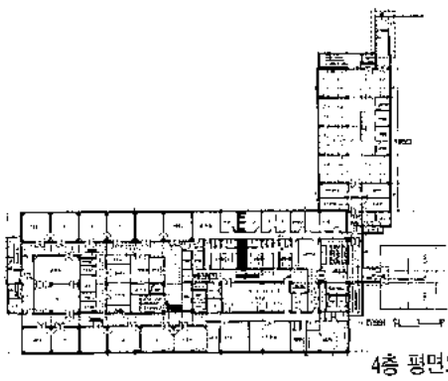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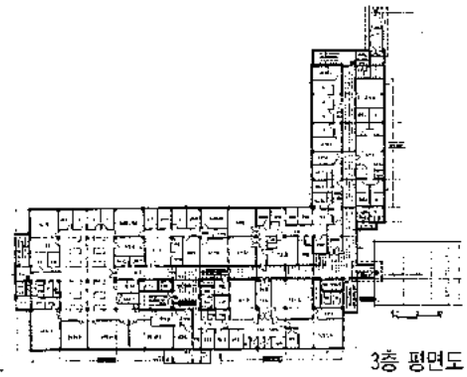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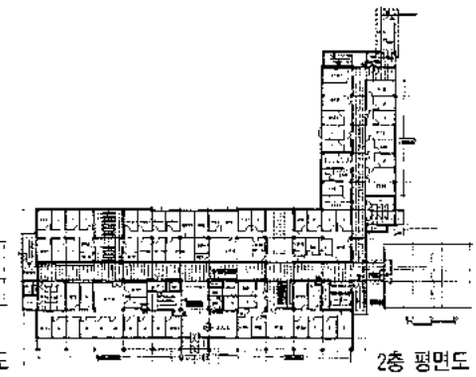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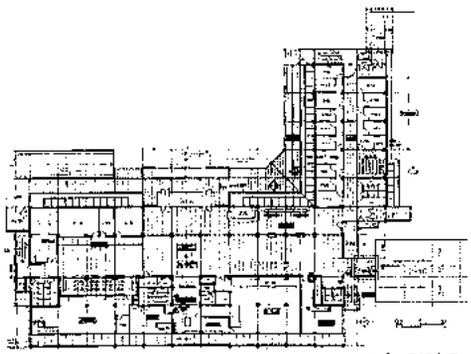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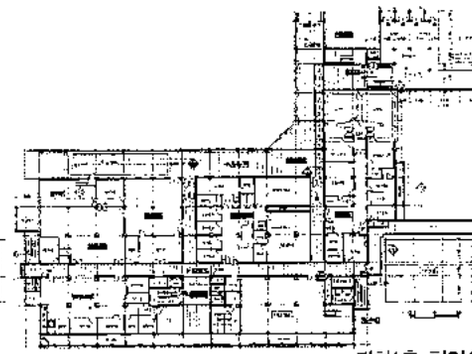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전제아래 일반차량, 보행자동선, 물품반출입, 응급동선을 분리하고 충분한 주차공간확보와 장래증축을 고려한 여유대지 그리고 발전방향의 설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관과 신관의 원활한 흐름전개를 위한 Mass군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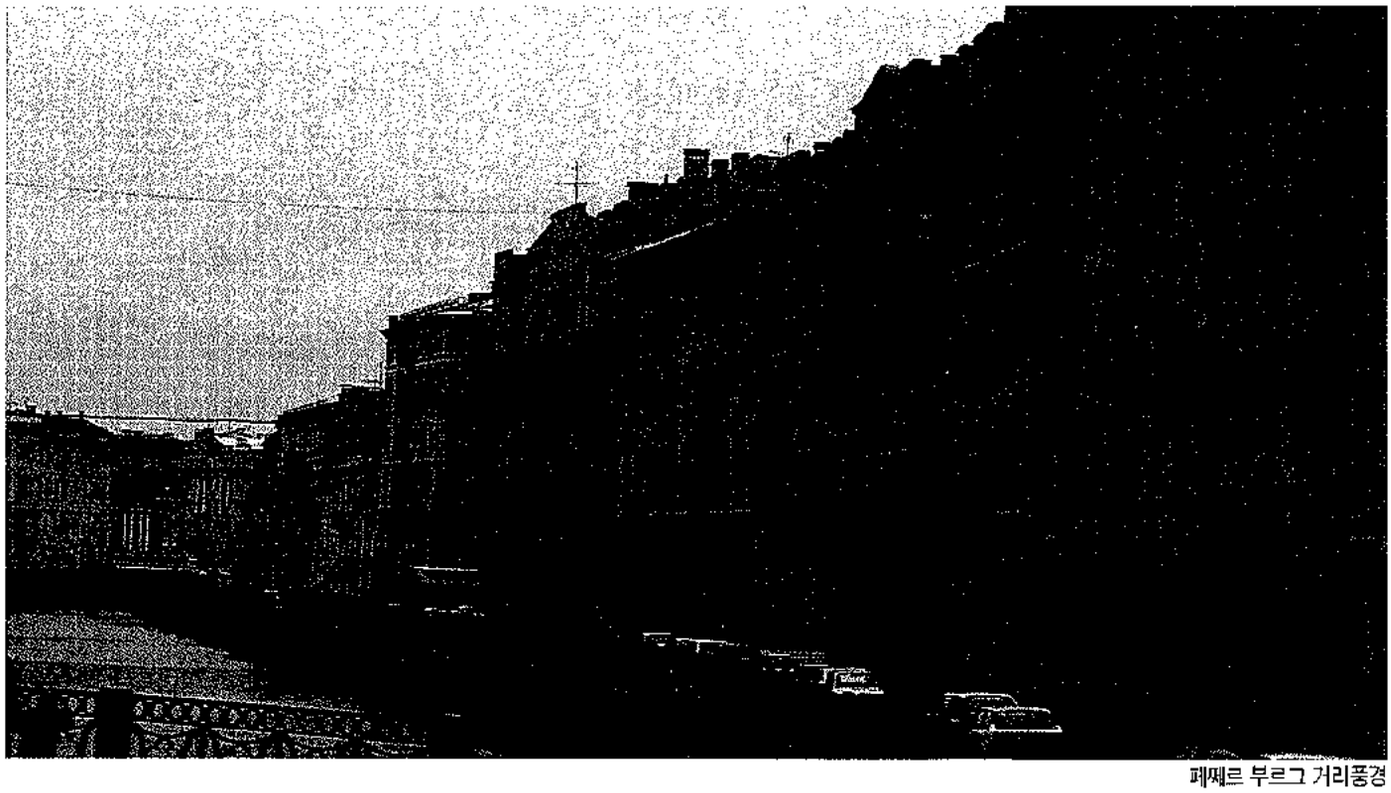
내부기능은 병원행위패턴에 대한 예측과 실증을 통한 시설지침의 설정과 공간배분에 기초하여 외래부-중앙진료부-병동부의 다차원적흐름을 전개하였다. 외래부는 환자동선과 대기공간에, 중앙진료부는 각 시설의 이용자와 외래/병동부간의 연관성에, 병동부는 각 부분별 수요예측과 간호단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중앙진료부는 수술실수, 분만실수와 신생아실의 격리실, 환아방 등의 운영, 중환자실(SICU, RICU, NICU…)의 분리, 치료 및 진단방사선의 기기선정(Linac, AfterLoading, Simulator, CT…)검사부의 특수기기와 실험패턴, 약국의 이원화(외래, 병실)와 특수약품의 제제한도 등이 평면구성에 커다란 작용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다.

UR개방에 따른 병원관리분야의 개방에 대한 외국전문업체의 관심과 그들이 예상하는 시장성을 역으로 추측하면 우리의 병원운영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나 하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병원건축의 공간구성에 있어 병원운영시스템이 가장 핵심요소라는 것을 감안하면 운영시스템-공간구성간의 전이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탈린 바로크

Stalin Baroque

金仁喆/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by Kim, In-Cheol



페쩨르 부르그 거리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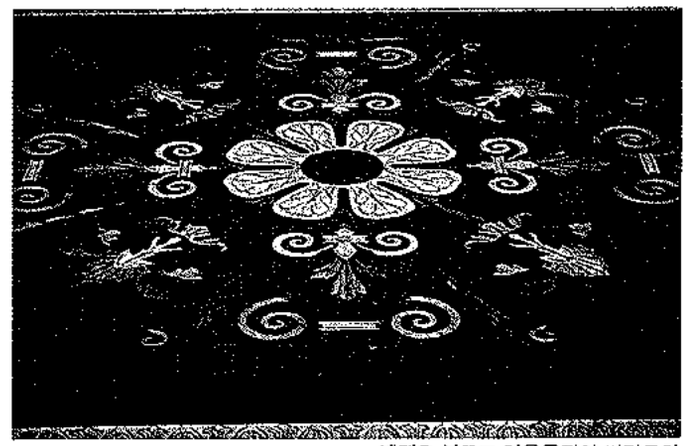
지독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북유럽을 여행하였다. 여러번의 유럽여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북구를 찾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알바 알토를 순례하는 기회가 있어 더위도 피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짐을 꾸렸다.

근대건축의 4대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피우스, 미스 반 델로에, 르 꼬르뷔지에, 알바 알토에 대하여는 재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알바 알토는 다른 세명의 건축가보다 십년정도의 세대차이가 난다는 점과 유럽의 변방에 해당하는 핀란드의 지역 건축가라는 점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조류였던 국제주의 양식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이 속한 바탕을 건축언어로 구사하였다는 것이 특이한 건축가로 평가되고 있다. 알토에 관한 지식은 이제는 너무도 보편적인 것이어서 이번의 여행은 그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었다. 현장에서의 느낌은 역시 기존의 평가대로 풍토성과 인간의 조화가 건축의 기본적인 힘이라는 것이었다. 헬싱키공대 기계과 4학년이라는 교포학생의 안내를 받았는데 4년동안 도서관을 이용하였지만 천정에서 빛이 들어 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야 알게 되었다고 신기해 할만큼 알토의 건축은 화려하거나 뛰어나지 않았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속에서 건축가의 겸손은 마치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혼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힘을 견주는 스포츠에서 힘을 빼었을 때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처럼 결코 과시적이거나 도전적인 형태가 아님에도 결국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요즈음 잔뜩 힘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건축에게 말없는 교훈을 주고 있었다.

일정상의 차질로 인하여 국경에서

페쩨르 부르그의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지하철



페쩨르 부르그 겨울궁전의 바닥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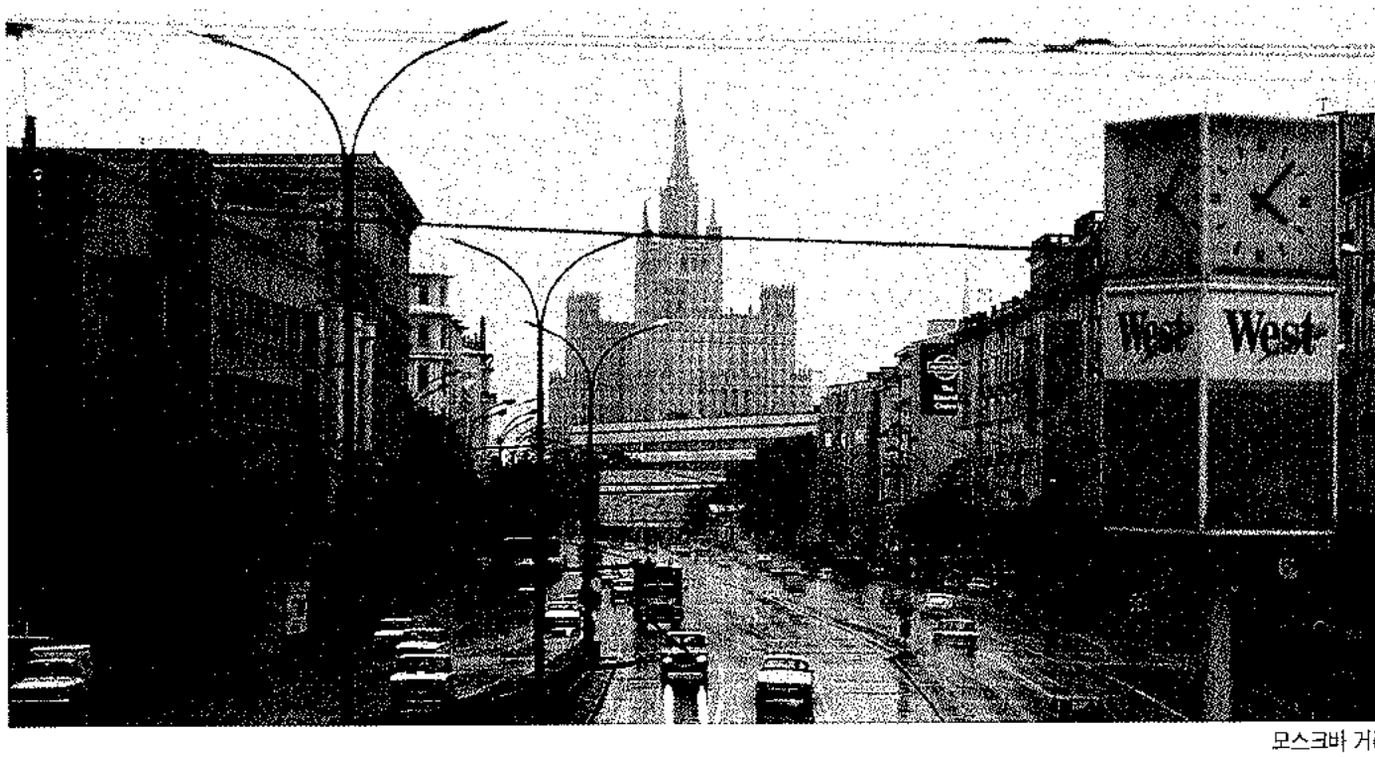
붉은 광장

모스크바 전경

한나절을 소비한 뒤 넘어간 러시아는 여행의 목적지와는 관계없는 곳이었으나 비프리도서관이 있는 비보르그 지역이 지금은 러시아의 차지가 되어 있으므로 내친김에 옛 레닌그라드, 지금의 페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소비에트연방의 체제가 붕괴되어 다시 러시아로 되돌려졌을 때 많은 건축인들이 그곳을 다녀왔지만 나의 경우 별다른 건축적 관심을 갖지 못하였기에 가 볼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번의 여행은 첫걸음이었다. 러시아의 건축에 관하여는 교포건축가 니꼴라이 김의 강연을 통하여 얻은 상식과 해체주의의 규범으로서 러시아 구성주의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속에서 일을 잃게 된 옛 러시아의 건축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정도의 지식이 내가 갖춘 전부이었다. 관심을 둔다면 정치적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건축과 어떤 관련을 갖게 되었는가 일것이나 역사와 사상에 통달하여 있지 않은 나에게는 어려운 과제였으므로 일반적인 관광객의 입장으로 돌아보기로 작정하였다. 페쩨르부르그의 하루와 모스크바에서의 하루, 이틀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렸다. 무겁게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내리는 비는 더도 덜도 아니게 부슬부슬 뿌려지고 있어서 우산을 쓰기도 그렇지않기도 한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17세기 표트르(Peter)대제가 만들어낸 페쩨르부르그는 바로크의 도시로 보였다.

유럽화를 의도하여 초대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건축가들이 심어놓은 바로크와 레닌에 의한 통제의 시기는 이 도시를 박제된 바로크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유럽의 도시 풍경을 결정짓는 고딕양식이 동방기독교양식으로 대체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바로크의 이전도 이후도 없는 거리풍경에서 읽혀지는 것은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역사의 멈춤이었다. 박제된 회색의 도시에서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틈틈이 보이는 러시아정교의 종교건축이었다. 옛 소련의 이미지로 상징화된 양파모양의 지붕과 화려한 타일로 장식된 동방교회양식은 비잔틴과 이슬람과 기독교가 혼합되어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의 복합된 묘한 양식에서 한참 멀리있는 가우디를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동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가 반대되는 방향과 과정으로 뻗어나갔음에도 서로 통할 것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스페인의 가우디가 초기에 손질한 건축에서 이슬람의 양식, 네오 무데할의 기법이 보이는 것과 러시아의 교회양식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문화에서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보여준다. 기력이 다하여 쇄산하여진 도시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의 허구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겨울궁전의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화려한 모자이크를 다양한 색상과 목재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그 동안의 체제로 인하여 잠자고 있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보여줄 그들의 가능성이 무엇일지 궁금하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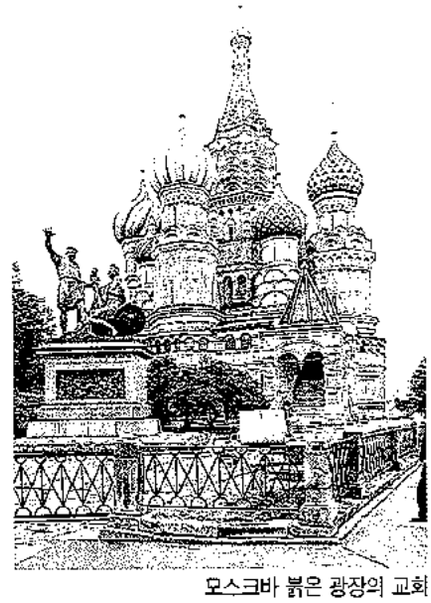
레닌에 대한 평가절하의 반대급부로 그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표트르대제의 상징성은 그의



모스크바 거리

유럽지향적인 의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일 것이다. 러시아제국의 옛 모습이 편린이나마 남아있는 페테르부르그에 비하여 모스크바의 살풍경은 을씨년스러운 날씨와 함께 기괴함마저 느끼게 한다. 전체주의 체제의 절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스크바는 훌륭한 교본이다. 붉은 광장의 위용은 몰려드는 서방의 관광객으로 인하여 이미 디즈니랜드화되어 버렸지만, 모스크바의 압권은 스탈린 바로크라 불리우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들로 만들어진다. 모스크바 대학, 우크라이나호텔, 외무성청사 등으로 쓰이고 있는 거대한 건축, 같은 모양과 규모로 만들어진 여섯개의 덩어리가 도시의 매트릭스를 제어하고 있는 모습은 수퍼컴퓨터에 의하여 통제되는 미래도시를 그린 SF영화의 한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1,700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호텔의 부미건조한 디테일, 프런트에서 계산을 하고 지정된 플로어데스크에서 열쇠를 받아 들어간 방의 우직함 그리고 KGB의 옛자리에 앉아 추파를 던지는 포주의 처량함은 그래도 인간적인 편이었다.

모스크바대학에서 느낀 황당함은 건축과 인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극한의 것을 확인하게 한다. 미로처럼 한없이 이어지는 복도, 그속의 어두움,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교회

모스크바 대학

사람을 짓누루는 공간의 무게 그리고 무표정 등등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건축의 폭력은 말 그대로 인간을 압살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가 건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하 120미터의 지하철에 꾸며진 장식적 분위기는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에 필요한 소도구였음이 분명하다. 추적추적내리는 비를 피하여 지하철 입구에 몰려 앉아있는 거리의 화가들과 장사치들에게서 낭만과 희망이 읽혀지지 않는 것이 방문객의 섣부른 편견때문이길 바라게 되었다. 한국 식당이 들어있는 팔라디안 스타일의 건물이 옛 귀족의 저택이었으며, 지하의 이집트풍으로 꾸며진 식당이 사회주의 귀족들의 사교장이었고, 지금은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변한 과정은 그대로 이곳의 상황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 건방진 연민의 느낌마저 갖게 된다. 이틀간의 경험만으로 모두를 알 수는 없겠지만 건축에서 읽을 수 있는 역사의 흔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

건축사는 시공업을 하자고 시공업체들처럼 요구하지 말자

But, We don't demand for Construction Work

朴淳鍾/건축사사무소 예지
by Park, Soon-Jong

지금 우리 건축사계의 최대 현안문제인 시공업체들도 설계일을 하겠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이라고 하여 요구하고, 종합건설업법의 입법을 통하여 요구하며, UR에 대응하기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시류에 편승하여 요구하고 있다. 설계자가 시공도 하겠다거나 시공자가 설계도 하겠다 하여도 못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분업화와 전문화에 의한 협력으로 모든 문화와 문명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설계와 시공은 분리 시행되며, 일관장치산업인 화학공장 등 프랜트산업으로서 기능만이 요구되는 구조물에서 턴키베이스식의 설계와 시공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아마도 외국의 설계와 시공업체간에 협력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설계자가 시공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설계나 시공업체가 외국에 진출하여도 설계를 하면 시공을 못하고 시공을 하면 설계를 못하게 설계와 시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설계와 시공의 통합은 국제화와 UR에 아무런 도움이 아니될 것이다.

시공업체가 설계업도 한다면 설계자가 시공자를 지도 견제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사라질 것이며, 이득금이 많고 시공이 간편한 건물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즉 건축주는 건축비전문가로서 시공자의 처분에나 매달리는 꼴이 된다.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시공회사의 생리상 건축예술문화와 창조적인 건축물은 사라지고 싸구려 기술주도형의 멋없는 건물만이 대량 생산될 것이다.

그의 적절한 실례로 어떤 대재벌 건설회사의 본사와 똑같은 모조품 건물이 우리 지역에도 2군데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셀 수없이 많은 모조품 건물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화가의 그림과 화공의 그림이 다르듯이 화공의 그림은 모조품이며 생명력과 혼이 없는 그림이다. 결국 건축가는 없어지고 건축제도공만이 남을 것이다.

건축물이란 그 장소에 그만의 개성적인 형태로 그 시대의 문화를 말없이 대변하는 역사의 증언자 이어야지 군대의 막사처럼 똑같은 모조품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재에도 음성적으로 재벌 건설회사들은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직원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며 소위 단종면허 건설회사도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업을 하는데 그 사무소의 도면을 건축사협회 도서검토시 보면 실습생정도의 도면수준으로서 타건축사사무소의 명예를 깎아먹는 도면들이었다.

만약 모든 건설회사가 설계업을 하게 된다면 판촉활동의 방편으로 설계비는 무료이고 공사비만 받는 형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감리도 없어지고 부실시공 위법시공도 강력한 로비력으로 처벌을 벗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수준은 급속히 퇴보할 것이며, 건축제도공 만이 존재하는 중에 유명하였던 건축가들은 음성적으로 설계한 도면을 들고 건설회사의 도장을 받으러 다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공회사들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세제상 금융상 막대한 혜택을 받고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성과는 인정한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는 세제혜택은 고사하고 도서등록에 따른 세원포착으로 시장형성가격 보다 높은 보수기준가격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융자의 문턱은 한없이 높고, 건축주 시공자의 부실 위법 시공의 처벌도 대신 받으며 의붓자식처럼 영세하게 살아왔다. 그러는 중에도 최근 중국의 국제적인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건축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이 크게 반성할 일은 건축기사 시절 그렇게 열심히 건축예술의 열정에 사로잡혀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만들던 정열은 어디가고 자영을 하는 건축사건 쉬쉬하며 타영을 하는 건축사건(대형건설회사 소속, 단종건설회사 소속, 자본주에게 소속, 여러명의 부장에게 소속) 사무책상, 쇼파만 요란하고 제도책상도 없이 여직원 손으로 도장을 남발하여 사회로부터 곱지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치료 하는데, 건축사는 건축주를 몇번 만나 계획설계나 하는지 우리 건축사 스스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여야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작품 설계능력이 곧 업무수주 능력이어야 하는데 안되는 건축허가 잘 받아 허가비 받고, 안되는 준공 잘해주고 준공비 받고, 고스톱치고 골프쳐서 푼돈 잘 잃어주는 부장 여러명 두거나 건설회사 사장님 잘모시는 능력이 업무수주 능력인 풍토를 우리 건축사 스스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할 시간이나 있는지?!

건축물은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시공자의 위법 부실공사의 책임을 모두 설계감리자와 감시부실로 돌리고 처벌위주의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그리고 건축사 스스로의 안이한 생각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제인식 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처벌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위법을 하면 한만큼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건축주, 시공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울지 않는다고 젖을 안주면 아이는 죽고만다. 건축사들이 울지 않는다고 위법행위자도 위법에 의한 이득권자도 아닌데 억지춘향으로 희생양으로 처벌만 계속한다면 아이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 아이는 울줄 모르는 장애자 일지도 모른다. 장애자라도 자식은 자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건축예술문화는 없고 편법과 위법과 부당한 이득만 추구하는 건축물의 주검만 있게 될 것이다.

건축실무의 역사(3)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3)

—해방에서 한국전쟁—

宋 律/공학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Song, Yul

해방이전 한국인으로서 그려낼 수 있는 유토피아는 독립이었다. 그러나 독립이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혹자는 독립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혹자는 아직도 독립이 없음을, 혹자는 일제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서로 주장하고 갈등하였다. 이념의 갈등을 셈으로 치자면 독립에 대한 열정 이상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념갈등은 미묘한 정서를 남긴다. 비이성적인 전쟁의 체험과 남북분단상황,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30년가까이 이념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를 금지된 장난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건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금지될 필요도 없이 건축과 이념은 치열하게 투쟁한 경험이 전무하다. 건축가의 집짓는 일에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철부지 학생들의 설익은 세계관 쯤으로나 여기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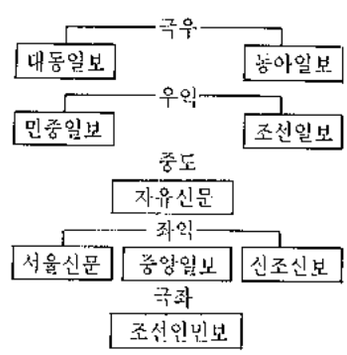
건축의 어떠한 면을 이해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이념과 건축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하다. 이념과 건축의 연관은 서양 근대건축의 특징적인 면 중의 하나이다. 건축가의 건축이 이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건축가의 실무가 감각적인 디자인의 수준을 넘어, 인간이 어떠한 사회공간에서 살아야하는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철학적인 수준으로 고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활동의 최종목표인 유토피아를 실천하는 첨병으로서 건축가의 실무가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동안 건축가들의 이념갈등을 마주대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양의 그것처럼 유토피아를 꿈꾸는 작업들의 궤적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으로 얽힌 불행한 개인들의 인생역정을 슬픈 듯 즐기는 이야기 듣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역사라는 것이 씌어지는 시점의 정황에 따라 달리쓰이는 것이라면, 서양건축역사에서처럼 멋들어진 담론을 마주할 수 없음은 이후의 이념의 갈등을 장난쯤으로 만들어버린 내가 몸담은 보다 가까운 역사 때문일 수도 있다.

이념갈등의 혼돈상태

담론들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이 아니라면 상징적인 자료들을 나열하는 것이 보다 덜 진부한 방법이 될 것이다. 40년대 말 미군이 비밀리에 조사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표 1) 미군정하 서울주요신문의 정치성향[1]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다양한 이념성향을 띠고 있었다. 역시 미군에서 비밀리에 작성된 당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치성향에 대한 보고내용은 좌우 이념에 당시의 분위기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해방이후 6.25전쟁 기간까지 사회 일반에서는 좌우 이념에 대한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비슷하였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건축계의 그러한 분위기를 말해 줄 만한 자료는 흔치 않으므로 오히려 미술계의 정리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분위기를 실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계에 있어서 좌우 이념대립 양상은 보다 뚜렷하였다.

해방이후 남한의 미술계는 우익의 대한미협과 좌익성향의 조선미술동맹이 대립하였다. 전쟁전 좌익척결의 정부방침에 따라 대한미협이 미술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이 함락된 뒤 서울의 미술계를 주도한 것은 정부수립을 전후해서 와해된 사회주의 성향의 미술가 단체인 조선미술동맹이었다. 이 미술 동맹에는 김 면식, 최 재헌, 배 운성, 이 쾌대, 기 운, 이 해성, 정 종여, 이 건영, 이 석호, 박 팔찬, 김 종항, 손 응성, 김 기욱, 박 상옥, 김 홍수 등이었다. 이들은 인민군이 서울에 진주할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 인민군에

1) G-2 Weekly Summery(주한미군정보참모부의 주간정보요약 비밀문서, 46년 3월)

(표 2) 1948년 예술및 학술단체의 정치성향[2]

일련번호	단체명	지지정부	성향	성격
114	조선학술원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문화
136	조선건축기술협회	임시정부를 지지	우익	전문
167	조선미술협회	처음에는 우익, 점차 좌익으로 변절		문화
169	조선문학동맹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문학
170	조선문학청년동맹		좌익	문학
171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좌익	문화
172	조선문화건설 중앙협회	인민공화국지지	좌익	
202	조선토목건축동맹		좌익	토목
203	조선토목기술협회	임시정부를 지지	우익	
281	음악동맹		좌익	음악
282	음악가협회		좌익	음악
328	가극동맹		좌익	
356	국악원		우익	
382	과학자 동맹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문화
383	과학기술연맹		좌익	문화

동조하여 잔류파라 일컬어진다. 이들은 우익계 미술가들의 숙청을 결의하였다. 대표되는 숙청 대상자는 고 의동과 장 발로 이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대한미협의 인물들이었다. 서울이 수복되자 최 재덕, 김 면식, 이 해성, 김 용준, 이 순종, 배 운성, 정 종여, 정 현웅, 이 건영, 이 석호 등은 월북하였다. 이들을 2차 월북자라고 한다. 서울수복후 고 의동 집에서 부역자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피난을 갔던 소위 도강파들이 주도하였다. 이 때부터 도강파, 잔류파의 구분이 생겼다. 부역심사에서 윤 효중, 김 환기, 이 봉상, 박 상옥, 도 상봉 등의 이름을 거론하였으나 1.4후퇴의 와중에 유야무야되었다.[3]

6.25기간의 미술계의 상황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갈등이 전쟁기간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며 비슷한 상황이 건축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증언들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이 시기의 분위기 전달에는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김 태식씨의 이야기[4]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7월 30일 이북으로 기차를 타고 갔다. 오 영섭도 같이 갔다. 여럿이 함께 갔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당시 상공부 국장 친구의 덕으로 나 같은 인재가 의용군에 가서야 되겠느냐고 설득해서 진남포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된것이다. 거기에 와세다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 반동으로 몰리고 흥남으로 원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오 영섭은 거기 남았다. 요직까지 갔을 것이다."

강 명구씨의 이야기[5]

"해방직후의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꺼내준 사람도 있는데 말하기가 곤란하다. …성 낙천씨는 재능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자꾸 경찰서에서 찾아오니까 나와 의논한 후에 이민을 가게 되었다. 성 낙천씨는 오영섭씨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언젠가 형무소(인민군 제복으로 생각됨) 제복을 입고 오영섭씨와 이희태, 김 태식 그런 분들이 설치며 다니기도 하였다. 김 태식씨는 '동무 요즘 학회 왜 안나와' 하곤 하였다. 내가 김 태식씨를 여러번 꺼내 주었다. 김 태식씨는 설계로는 선구자였다."

송 민구씨의 이야기[6]

"…미군정이 실시된 후 좌익활동을 허용하자 정치적으로는 좌우익의 격돌로 조국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하였다.(중략) 명칭도 아주 능동적인 건축기술단이라 이름지어 (중략) 선배들께서는 강한 이미지가 풍기는 명칭을 택하였으리라.(중략) 김 동수 선생은 후에 국방부에 들어가 공병감도 하셨기 때문에 6.25때 참변을 당하신 원인이 되었다.(중략) 이 홍구 군이 사실은 좌익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9.28서울 수복 뒤에야 알았다.(중략) 유 상하 선생은 청년운동을 하였다하여 삼청공원에 끌려가시어 학살을 당하셨다고 한다.(중략)"

"조선건축기술단에서 기술단이라 함은 학술만이 아니라는 뜻으로 좌경적인 요소도 있었다."[7]

장 기인씨의 이야기[8]

"내가 선생할 때 이념적인 학생 5명을 퇴학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결국 강경(우익)파들이 퇴학시켰다. 서울이 함락된 후 나도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의 보복이 두렵기도

2) G-2Weekly Summery(주한미군정보참모부의 주간정보요약 비밀문서) 총 507개의 단체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문화예술 단체만을 발췌한 것임. (1946년 3월5일 현재)

3) '전쟁속의 서울미술계', 6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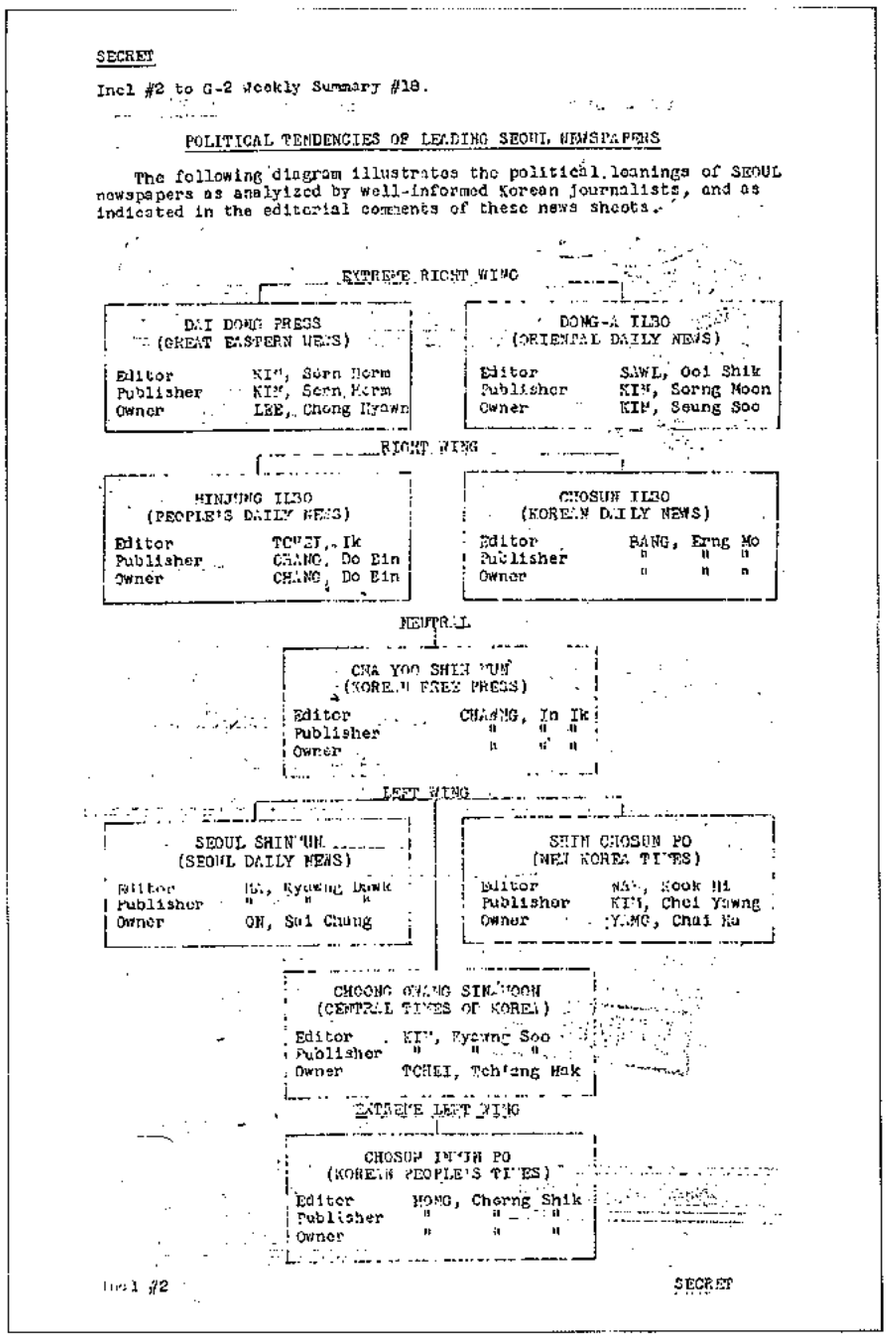
4) 1992년 필자면담.

5) 1992년 필자면담

6) 송민구, '잊을 수 없는 분들', 학회 30년 회고담.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5호 75년 8월)

7) 1992년 필자 면담

8) 1992년 필자 면담



SECRET

Incl #2 to G-2 Weekly Summary #18.

POLITICAL TENDENCIES OF LEADING SEOUL NEWSPAPERS

The following diagram illustrates the political leanings of SEOUL newspapers as analyzed by well-informed Korean journalists, and as indicated in the editorial comments of these news sheets.

EXTREME RIGHT WING

DAI DONG PRESS (GREAT EASTERN NEWS)
Editor KIM, Sorn Norm
Publisher KIM, Sorn Norm
Owner LEE, Chong Hyown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Editor SAWL, Ooi Shik
Publisher KIM, Sorng Moon
Owner KIM, Seung Soo

RIGHT WING

MINJUNG ILBO (PEOPLE'S DAILY NEWS)
Editor TCHEI, Ik
Publisher CHANG, Do Bin
Owner CHANG, Do Bin

CHOSUN ILBO (KOREAN DAILY NEWS)
Editor BANG, Erng Mo
Publisher " " "
Owner " " "

NEUTRAL

CNA YOO SHIN PUM (KOREAN FREE PRESS)
Editor CHANG, In Ik
Publisher " " "
Owner " " "

LEFT WING

SEOUL SHIN'UN (SEOUL DAILY NEWS)
Editor KI, Kyewng Dawk
Publisher " " "
Owner ON, Sai Chung

SHIN CHOSUN PO (NEW KOREA TIMES)
Editor NAM, Kook Hi
Publisher KIM, Chei Yawng
Owner YANG, Chai Ha

CHOONG ANG SIN'UN (CENTRAL TIMES OF KOREA)
Editor KIM, Kyewng Soo
Publisher " " "
Owner TCHEI, Tchang Hak

EXTREME LEFT WING

CHOSUN INMIN PO (KOREAN PEOPLE'S TIMES)
Editor HONG, Cherng Shik
Publisher " " "
Owner " " "

Incl #2 SECRET

해서)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나와서 떠들고 다녔다."

김 희춘씨의 이야기[9]

"대륙공영사는 46년에서 6.25전까지 존속되었고 그 임원 전원이 전쟁 중에 죽었다. 나도 그것(대륙공영사에 근무했던 사실)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1950년) 7월 3일 동대문 내무서에 붙잡혀 갔다. 거기에는 장영선 국회의원과 경찰, 군인, 동회장 등이 붙잡혀 있었다. 자술서를 쓰고 또 쓰라고 해서 썼다. 다음날 이름을 부르며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에 갈라서 서라고 하는데 나만 한 편에 서게(다른 이들은 전부 다른 편에) 되었다. 결국 다른(편에 선) 사람들 모두 죽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어떤 날 미군 지프차를 타고 집앞에 내렸는데 좌익분자였을 동네 깡패들이 달려들어 나를 마구 때렸다. 미군 앞잡이 한다고.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 다음날 미군차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졸병하나가 전날일을 기억하고는 상사에게 전날 사건을 알렸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 길로 수도경찰청 장택상을 찾아가 당신네 형사출신 아무개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나를 린치하는데 주동한) 형사를 잡아들였다. 그 형사가 6.25전쟁이 터지자 (감옥에서)나와서 나를 고발하여 잡혀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살았지만 그 형사는 형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죽게되었다. 내가 대륙공영에 있을 적에 도와주었던 동기생들이 당시 기술단 단장이던 화공과 출신 이준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분이 직접 동대문서에 나와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풀어주면서 너 잘해라,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에 우리끼리 싸운 것이 많다. 건축학회(기술단)가 전쟁 중에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이 홍구가 우리집에 와 있었다. 동원도 시키고 그랬다."(괄호 안은 필자 주)

사라진 사람들

전쟁 후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게 되는 건축가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이후 한국근대건축사에서 잊혀지게 된 인물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오 영섭

오 영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6.25 후에 그의 행적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대담자료를 통하여 그가 6.25전쟁 중에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영섭은 박길룡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941년 일본대학 고공을 졸업하였다. 1937년 박 길룡사무소에 있을 당시 조선풍주택설계현상 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한 경력이 있었다. 조선건축지에 오 공무소의

9) 1992년 필자면담

HUSANIK, G.C of S., p-2, Lang & Doc Sec, 9 March 1950

Consolidated List of Prominent Korean Organizations II (Continued)

130. CHOSUN KEUN KOOK KI SOOL HYUB HUY — KOREAN NATIONAL FOUNDING TECHNICAL ASS'N
Left-Wing - Cultural

131. CHOSUN KERNKOOK KONGSAN HUY — KOREAN RECONSTRUCTION COMMUNIST PARTY
No information available Political

132. CHOSUN KERNKOOK TCH'UNGNYUN HUY —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FOR NATIONAL CONSTRUCTION
(Formerly: KOREAN PUBLIC PEACE UNION; KOREAN NATIONAL FOUNDING YOUNG MEN'S ASS'N
Suppor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133. CHOSUN KERN KOOK YUN CHI TCH'UNG HYUN HUY — KOREAN YOUNG WOMEN'S ASSOCIATION FOR NATIONAL CONSTRUCTION.
Supports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134. CHOSUN KERNKOOK YUNCHOO HUY — ASSOCIATION OF KOREAN MUSICIANS
No information available.

135. CHOSUN KERN LO TCH'UNG HYUN DONG MUNG — KOREAN YOUTH'S INDUSTRIAL UNION
Supports the People's Republic - (Left Wing) - Youth Organization.

136. CHOSUN KERN TCH'OUK KI SOOL HYUB HUY — KOREAN ARCHITECTURAL EXPERT UNION
Supports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Professional

137. CHOSUN KIDUK KYO HUM BOO DAI HUY — SOUTHERN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ITY
Suppor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Religious.

138. CHOSUN KI DOK KYO TCH'UNG HYUN ... FEDERATED Y. M. C. A. OF ALL KOREA
CHUN KOOK YUN HUB HUY.
Suppor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139. CHOSUN KI DOK TCH'UNG HYUN HUY — KOREAN YOUNG MEN'S CHRISTIAN UNION
Suppor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140. CHOSUN KONG UB KI SOOL YUN MUNG — KOREAN INDUSTRIAL TECHNICIAN'S LEAGUE
No information available. Probably Neutral.

141. CHOSUN KONGSAN DANG — KOREAN COMMUNIST PARTY.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 Political
Joined anti-Fascist Commission which supports People's Republic.

142. CHOSUN KONG SAN DANG SEOUL SI UI HUN HUY — SEOUL COMMITTEE OF COMMUNIST PARTY
Joined anti-Fascist Commission which supports People's Republic
(Left-Wing Political

143. CHOSUN KONGSAN TCH'UNG HYUN DONG MUNG — (KOREAN COMMUNIST YOUNG MEN'S ASSOCIATION; KOREAN YOUNG COMMUNIST ALLIANCE) KOREAN COMMUNISTIC YOUTH UNION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 Political
Joined anti-Fascist Commission which supports People's Republic.

144. CHOSUN KOO HYUL DONG MUNG — KOREAN RELIEF UNION.
Probably same as the RELIEF HEADQUARTERS FOR KOREANS' RETURNING FROM ABROAD.
No information available.

145. CHOSUN KOOHYUL DONG MUNG BONBOO — RELIEF HEADQUARTERS FOR KOREAN RETURNING FROM ABROAD
No information available - Probably Left Wing.

146. CHOSUN KOOKKOON CHOONBI DAI —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Disbanded by MG

147. CHOSUN KOUKKOON CHOON BI DAI TCH'UNG SANYUNG BOO —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HEADQUARTERS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Disbanded by MG.

148. CHOSUN KOOKKOON HAKKYO — KOREAN NATIONAL ARMY ACADEMY.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Disbanded by MG Military Orgn.

149. CHOSUN KOOMIN DANG — KOREAN NATIONALIST LEAGUE
Part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 - (Right Wing) Political

150. CHOSUN KOOMIN TCH'UNG NYUN DANG — YOUNG KOREA'S NATIONAL UNION.
merged into New Korean National Party (Right Wing) Political

151. CHOSUN KOOSA HUNGHO HUY — KOREAN ARMY SUPPORTING ASSOCIATION.
Disbanded by MG.

152. CHOSUN KYUNG CHAI KERN SUE YUN MUNG — ASSOCI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ECONOMY
Supports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Economic

153. CHOSUN KYO YOOK CHA DAI HUY CHOON BI HUY — PREPARATORY COMMITTEE OF GREAT KOREAN EDUCATION'S ASSOCIATION.
Slightly Left Wing- Cultural

154. CHOSUN KYOYOOK HYUKSIN DONG MUNG — NEW EDUCATIONAL UNION OF KOREA
No information available.

조선풍주택 현상 도판

'조선건축'지에 그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

1947년 6월 1권 2집 "현대건축과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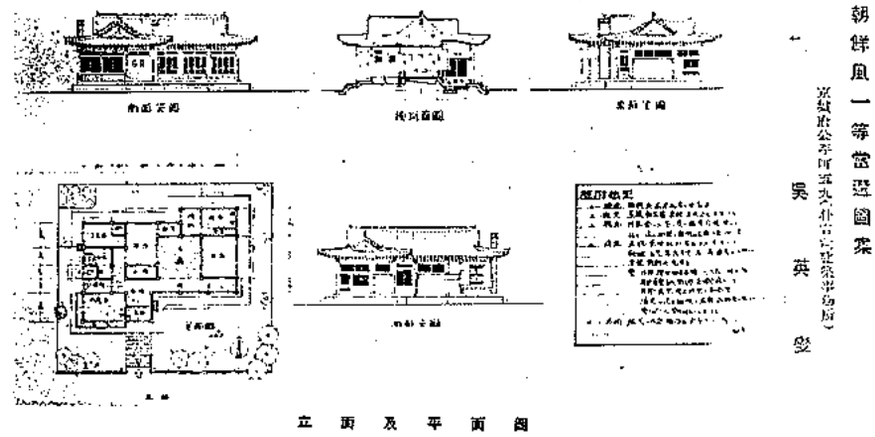
1948년 1월 2권 1집 "조선의 정원사"

성 낙천

성 낙천은 1942년 일본대학 고공을 졸업하였다. 김 한섭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일본대학 유학시절 오 영섭에게서 민족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영향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성 낙천도 오 영섭의 1년 후배인 것을 생각하면 오 영섭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조선건축지에 그가 쓴 "건축경제사"를 통해서 그가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든다. 생산관계를 고찰하여 보면 원시사회에는 다만 공동작업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통일하는 기술적인 생산관계만 존재하였지만 생산제력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유의 발달은 노동력만 소유하는 자와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물질적 제조건 즉 생산수단만 소유하는 자로서 분열하게 되었으며, 그 관계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그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결합이 실현되는 특수한 성질과 방법이 그 시대의 사회구조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광고가 실려있는데, 이 중에 한옥주택 투시도 아래에 오영섭 설계사무소가 명시되어 있다. 41년 귀국하여 오 공무소 내에서 오영섭이 설계업무만을 전담하였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있다. 오 영섭은 '조선건축'지 1948년 2권 1집에 소개된 서울만물전 현상설계에서 3등 2석으로 당선하였으며, 동 잡지에 그가 설계한 동도극장 설계 개요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때문이다. 즉 이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구조의 경제시대를 결정함이니 역사발달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정치적 권력자의 榮枯盛衰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생산제력의 발전형식을 고찰하여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경제구조 생산관계를 토대로 하여 전 사회제도, 사회사상,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 문화, 예술 등의 성격을 결정하며 또 점차 혹은 돌발적인 변화가 그것들의 발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각 시대의 특징이 장구한 시기에 걸쳐서 한 곳에 결코 잠가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며 그 역사의 각 시대는 내면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0]

1948년 1월 조선건축지에 실린 서울만물전 현상설계에서 당선한 그의 작품이 있다. 이 회태와 함께 신흥건축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다. 성 낙천은 월북하지는 않았지만 6.25 이후 극단적인 반공이념의 분위기로 계속 추궁을 받게 되자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민을 가기전에는 서울대학교 수원농대 기숙사 공사현장과 유네스코 회관 실시설계 팀에서 잠시 활동하였다. 이민 후에는 건축을 포기하고 한방계통에 종사하게 된다.

이 홍구

이 홍구는 1941년 경성고공을 졸업하였고 해방 이후 조선건축기술단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조선건축기술단의 많은 일을 맡아 했던 사람이있다. 그는 정식으로 조선건축기술단의 직원으로 일했다. 역시 조선건축지에 그가 쓴 글을 통해서 그를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는 6.25전쟁 중에 월북하였다.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정치적으로 좌익정당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는 1949년부터 시작하여 6.25를 기점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건축가들 중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는 건축가들의 활동이 사라지게 된다. 많은 숫자의 건축가들이 월북하고 또한 월남하여 건축계가 재편되기에 이른다. 월북건축가들은 다음과 같다.[11]

성 명	소 속
김면석	좌도정부 건축서
유홍상	미군부대 부평 KBC근무, 서울공업중학교
변기홍	서울대건축과 재학
황의근	서울대 건축과 교수
염광현	서울대 건축과 교수
강상원	서울대 건축과 교수
오영섭	오공무소
전광옥	조선건축기술단
이홍구	조선건축기술단
김영진, 유건식, 윤정섭, 최재승, 홍경의, 김정렬, 김현식, 안일수	

월남한 건축가들도 상당수 있다. 월남 전 이북에서 활동을 하다가 월남한 건축가로 대표적인 인물은 김 중업과 정 인국이다.

김 중업의 이야기[12]

'해방후 소위 공청(共靑)이라고 공산청년동맹 대장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요꼬하마 독립운동 사건의 연줄이 돼서죠. 그 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왜놈들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10) 성낙천, "건축경제사의 일고찰"(조선건축 1권 2집-2권 1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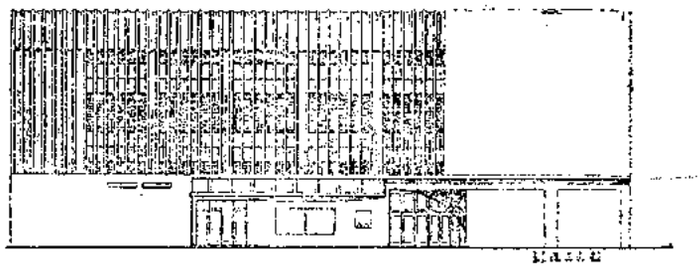
11) 안창모, "한국건축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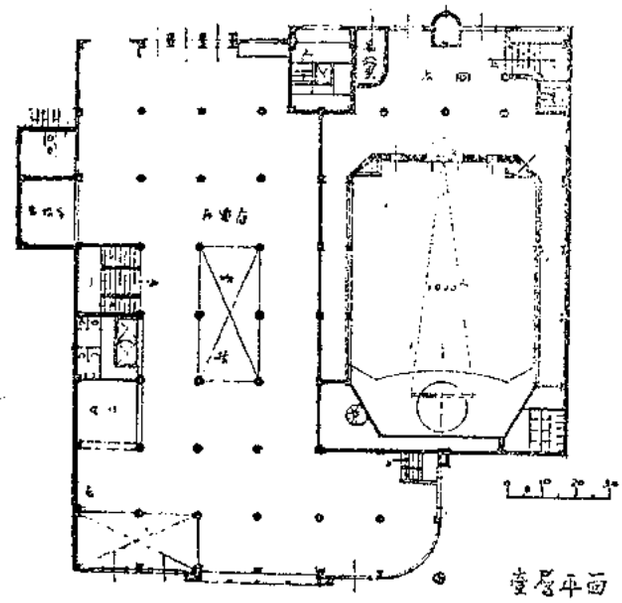
12) 김정동 대담,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상과 전망」, 꾸밈 1981 5~6 61쪽의 김중업 회고.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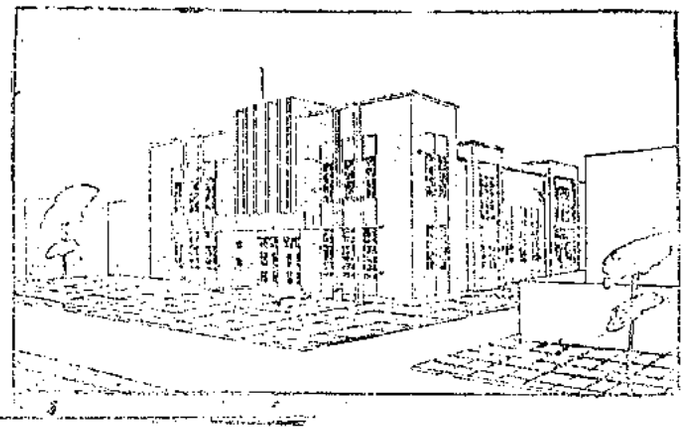
第3等(1席)當選作品

當選者 成 洛 天
(朝鮮建築技術協會評議員
新興建築事務所 經營)
李 炳 泰
(新興建築事務所 經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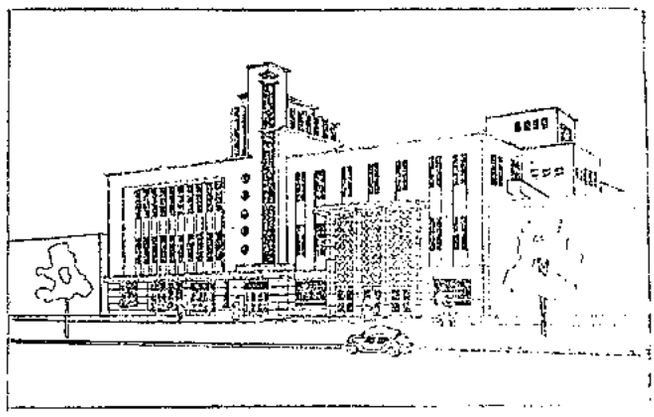
臺層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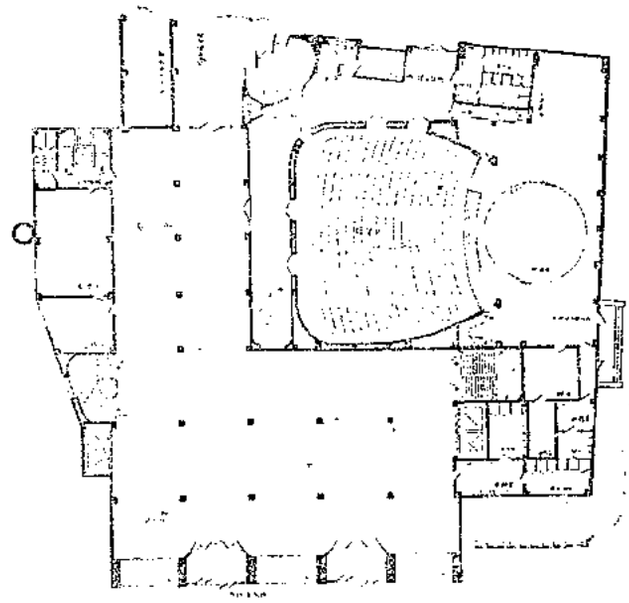


—(圖 4)—

第3等(2席)當選作品

當選者 吳 英 燮
(朝鮮建築技術協會評議員
吳英燮建築事務所 經營)





'건축동맹'을 만들어요. 거기서 연구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요. 위원장은 로보트지요. 조선 공산당 차량지원을 받아 소위 이북 5도에 있는 건축자재를 다 모으고 왜놈들이 쓰던 5층 빌딩인 평양의 '금천대 회관'을 접수하지요. '건축동맹 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5도의 건축동맹원들을 재훈련시키는 활동을 하지요. 그 때 김 일성이 나타나서 실망을 하고 난 사표를 제출해 버려요.(중략)'

김 두섭씨의 이야기[13]

"김일성종합대학은 문리대만 있었다. 건축과는 대동공업전문에서 평양공업대학으로 그리고 김책공업대학으로 변해갔다. 김 참점(?), 길 경일(?), 박 형삼, 정 경운, 나 상기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해방 후 이북에서 건축이 먼저 발전했다. 당시 공사로 김일성 종합대학과 노동신문사, 평양역사 등이 있었다. 또한 평천리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5층 정도로 27동이 있었다. 이북에서는 학교에 방학이 없었다. 예를 들어 1년 중 8개월은 교육받고 4개월은 현장의 기사로 일했다. 월급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천리 아파트현장에 내가 근무했다. 기사장(현장총책)은 교수이던 정 인국씨였다…… 김 봉우씨가 건축가를 가르쳤다. 해방후 이북은 무임금이었다. 그래서 남한보다 빠를 수 밖에 없었다. 이북에는 설계사무소가 없었고 각 기관에 설계조직이 있었다."

조선건축기술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해방직후 조직된 조선건축기술단이 조선건축기술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전쟁 후에는 대한 건축학회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조선건축기술협회가 존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건축학회 또한 1954년 창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0년에 창립되었으며, 그 존속이 조선건축기술협회와 병행되었다. 조선건축기술단은 1947년 4월 23일 3회 정기총회에서 조선건축기술협회로 명칭을 바꾼 뒤 1949년 12월 김 윤기, 김 순하, 유 상하 등 80여 명이 조선건축기술협회의 발전적 해소와 대한건축학회로 할 것을 검토하였다.[14] 대한건축학회는 1950년 1월 21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2월 25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 결성식을 거행하였다.[15]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해체와 대한건축학회의 창립은 이 시기 이념갈등을 대표하는 일이다. 1945년 9월 해방 직후 조직되어 무려 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남한의 대표적인 건축단체로 출발한 조선건축기술단 내부에는 이념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표면화 되었다. 1946년 12월 14일 2차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과 명칭변경이 제의되어 이념성향에 따라 '조선건축학회', '조선건축회', '조선건축동맹' 등이 거론되었지만 각 안이 부결되고 종래의 명칭이 고수되었다. 동맹은 매우 좌경한 인상의 명칭이었다. 1947년 4월 23일 3차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기술단'에서 보다 온건한 '협회'로 변경하였으며 1948년 3월 27일 4차 정기총회에서는 기구를 사회주의권의 제도와 흡사한 중앙위원회 제도로 변경하였다. 조선건축기술협회가 앞서 살펴본 미군정 보고서의 내용처럼 좌익성향의 단체라고는 볼 만한 활동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부에 이념갈등이 있었고, 그 명칭변경과 회칙개정 그리고 이어지는 협회의 해산 이면에는 이념갈등이 가장 큰 요소였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1949년 12월 협회가 해산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일대 탄압이 강해지던 시기였다. 1949년 5월 20일은 국회프락치 사건이 있었고, 이후 좌익세력에 대한 일대의 탄압이 가해진다. 같은 해 6월 29일 김구선생이 암살되고, 9월 27일에는 남로당의 거물급인 김 태준, 이 용운 등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다. 또한 10월 19일에는 남로당 및 전민전 산하 133개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취소가 결정된다. 더욱이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해산이 그 이념적 성향 때문이었다는 심증을 굳게 하는 것은 1950년 창립된 대한건축학회의 결성과 관련된 보도내용이다.

"요전 2월 25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 결성대회를 보게 되었다. 이 학회는 말 할 것도 없이 미국의 AIA 영국의 BRIA(원문대로)와 같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아카데믹하게 나가는 유일한 연구단체이다. 이 학회의 사업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계몽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축 각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한 성과 및 작품을 소개하는 강연회, 전람회를 개최하고 또한 건축에 관한 잡지 기타 도서를 간행한다하며 우리나라 건축사태 제반 난문제를 깊이 들어가 해결하는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 한다…"[16]

학회 40년사에 정리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축학회 54년 3월 30일 회칙은 종전의 사업종목 규정이 목표지향적이며 현실참여의 기운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건축학회의 회칙은 사업내용의 형식을 위주로 한 보수적인 규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건축기술자의 등록 배치 및 지도', '건축교육의 진흥 및 노무자의 기술향상', '건축 각 부문에 연락협력

13) 필자와의 면담. 김 두섭씨는 평양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월남한 건축가이다.

14) '학회 40년사', 85쪽

15) 서울대학교건축학과 건우회지 '건우', 1950년 3월 창간호.

16) 건우회지, 앞의 인용

단 체 등 록 증

1. 명 칭 조선건축기술협회
2.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수표동 36 번지
전화 ② 3,734 , 1835
3. 대표자씨명 김 세 연
(년영 53 세)
4. 대표자주소 서울시 종노구 관훈동 198 번지 의 3호
5. 위원명부
위원장 김 세 연
부위원장 손 형 순 김 순 하
조직 책 성 낙 천
선전 책 김 재 철
사업 책 유 상 하
지도원 김 희 춘 이 홍 구 이 희 태 유건 용
모 영 섭 노 귀 영 성 기 훈 김 면 식
이 원 택 이 종 원 조 병 섭 (11명)

및 건축과 사회 각 부문과의 연락협력', '건축국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실시에 협력', '건축에 관한 사회인식의 계몽과 보급' 등의 표현 일체가 없어지고 다음과 같이 사업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에 관한 1. 조사 및 연구지도, 2. 도서잡지의 간행, 3. 강연회, 전시회의 개최, 4. 계획설계, 감독의 위탁, 5. 기타 본 회에 필요한 사항."[17]

6.25가 발발하고 서울이 함락된 뒤 서울에 조직된 임시인민위원회에 조선건축기술협회가 등록된 자료가 있다.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등록할 것을 고시하였는데 여기에 조선건축기술협회가 등록되었다. 어떠한 사정으로 조선건축기술협회가 해산되고 대한건축학회가 발족되었지만 임시인민위원회에는 해산된 조선건축기술협회가 다시 부활하여 등록된 것이다. 이는 당시의 분위기를 암시해 주는 자료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건축가의 이념갈등이 그 실천적 깊이를 더할 거를 없이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성치적인 이념 대립 상황은 건축가들의 이념갈등을 앗아갔다. 해방에서 전쟁사이의 이념갈등은 능력있는 건축가들을 사라지게 했고 또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게 건축가들의 활동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건축과 이념은 금지된 장난이 되었다.

17) 이문보, 이 리형, '제5장 정관기구', "학회 40년사", 414-415쪽.

한국의 전통건축(3)

Houses of Kang-neung Province (3)

— 강릉 南鎭容가옥 —

張順鏞/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1) 배치

강릉시 담산동 313번지에 위치한 본 가옥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60호로 지정되어 있고, 건물의 역사는 200년이 된다고 전하고 있으나 전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건물이 일시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향으로 자리잡은 건물의 뒤로는 낮은 구릉의 숲이 우거지고 앞쪽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전개되어 있는 모습에서 부지의 상황에 따라 좌향이 결정되는 특색을 알 수 있고, 전반적인 배치상황은 이미 소개한 가옥과 유사한 형국을 보이고 있어 강릉지방 가옥의 배치적인 특성을 여기서도 인지 할 수 있다.

진입로 쪽에는 한 칸의 소슬대문과 그 좌우로 접속된 행각이 북편으로 두 칸과 남편으로 3칸이 연속되어 문간채를 이루고 있다. 이 문간채 좌우로 다시 막돌담장이 설치되어 전면부의 대지 경계를 형성하고 도로에서 계단 6단 정도를 올라 대문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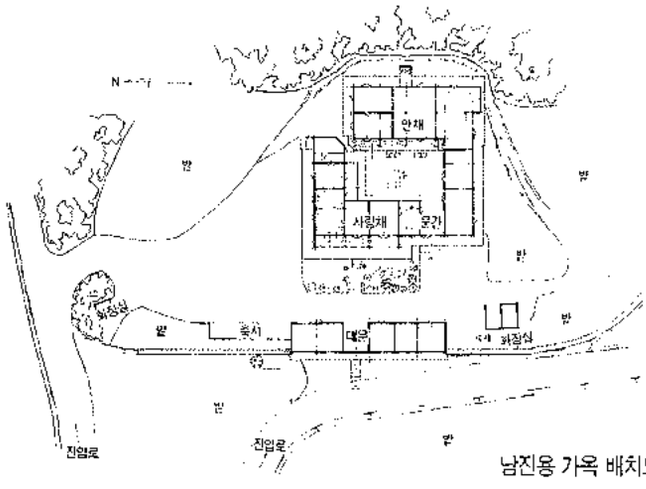
전체적인 대지의 모양은 사다리꼴로 전면쪽이 넓게 되어 있는 것도 지역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본채의 좌우에는 텃밭이 형성되어 있고 마당의 북편에도 진입로가 있어 접근로가 두면에 있는 것은 이 집만의 특성으로 북편의 마당이 앞마당 역할을 하게 되있고 이에 따라 뒤꼍이 없어진 상태로 되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 중앙부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되어있고 대문과 사랑채와의 거리가 비교적 촉박한 상황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사랑채 전면에 화단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문간이 사랑채 앞에 배치되더라도 약간 축을 다르게 잡는 방법으로 배치하는 일반적인 기법과는 달리 동일축이 선택된 점에서 문간채가 사랑채보다는 후대에 건립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채의 배치는 안채가 겹집 팔작지붕으로 구성되고 전면 우측에 고간채가 뻗어나와 "ㄱ"자를 이루고 사랑채는 북서측에 배치되어 팔작지붕으로 "ㄱ"자를 이루고 고간채와는 대문간으로 연속되어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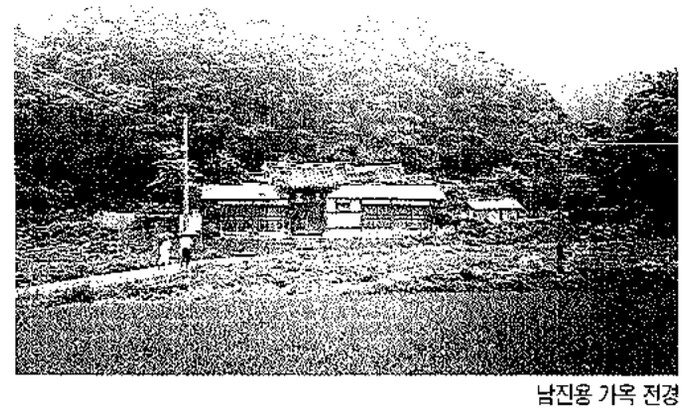
2) 영조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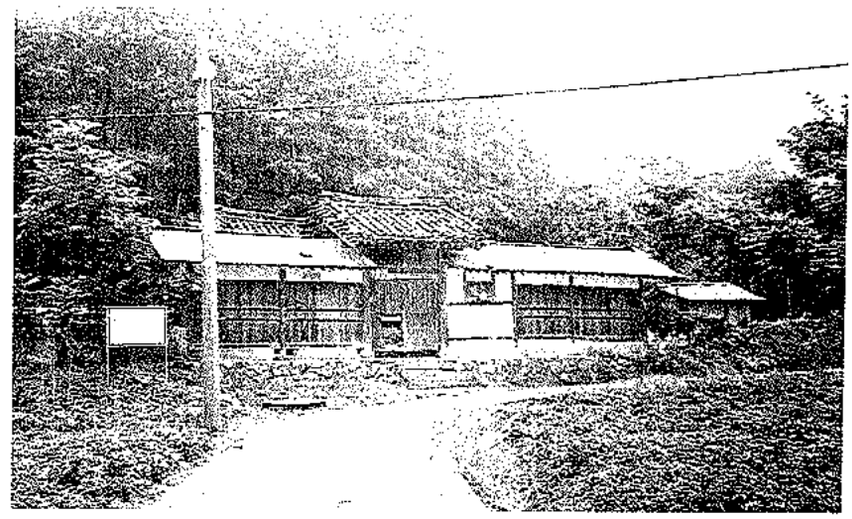
건물을 세울 당시에 사용된 척도를 營造尺이라 하며 이 척도는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된다.

오늘날에도 도량형의 척도관리가



남진용 가옥 배치도


남진용 가옥 전경



문간채

중요시되어 국가적으로 공인된 척도를 사용하게 되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공인된 척도가 있어 이의 관리를 국가에서 관장하였다. 이점은 물자의 거래와 각종 세금의 부과에서 기준척도에 의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문란해지고 조세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척의 시행에는 과거의 기술수준을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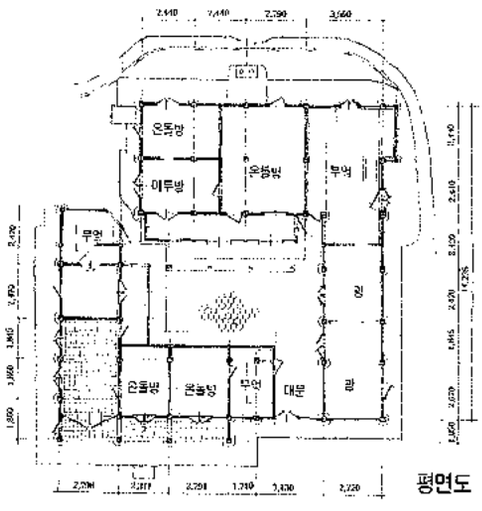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사용된 척도를 남아있는 건축물에서 검토한 바로는 1영조척이 300~315㎜의 범위에 있고 그 범위를 좀더 축소하면 305~312㎜정도가 된다. 여기에서 영조척을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본 가옥에서 척도가 다른 영조척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고, 척도가 다르다는 것은 건립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채는 주칸이 2,440㎜가 표준이 되어 있어 이것을 8자로 보면 안채의 영조척은 310㎜가 된다. 결국 안채에서도 영조척에 두가지를 나타나고 있으면 이점은 중간에 주칸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리가 되는 것이다. 안채 앞의 고간채는 영조척이 302~303㎜의 범위로 계산되고 있어 일정기에 사용된 曲尺인 303㎜가 사용된 것으로 추리된다.

사랑채에서는 영조척이 310㎜내외로 계산되어 정면의 주칸은 영조척으로 마루방이 9자, 온돌방이 7.5자와 9자로 구성되었다. 사랑채의 북측면에서는 시편에서 부터 차례로 6자 세칸에, 온돌방과 부엌이 각각 8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랑채의 동측 부엌간은 기단의 구성과 기둥의 처리 등으로 보아 나중에 증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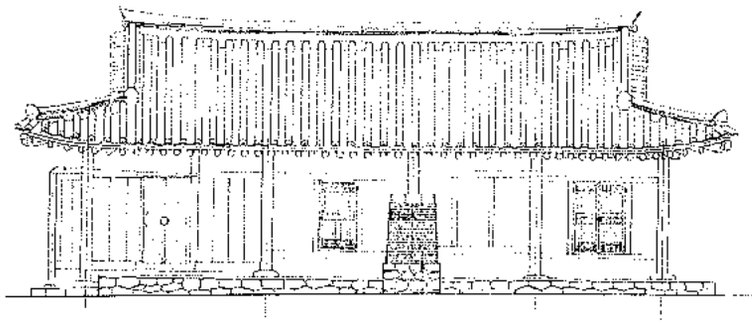
사랑채와 고간채 사이의 거리는 4.34m 이므로 310㎜ 영조척으로 14자나 되나 기둥의 배치는 303㎜ 영조척으로 4자와 10.3자의 간격을 보이고 있어 사랑채를 건립할 때에 대문간의 주칸까지 고려하였으나 대문간 건립시에는 303㎜ 영조척으로 세워지게 된 것으로 추리된다. 따라서 본 가옥에서는 영조척이 305㎜, 310㎜, 303㎜라는 세가지가 확연히 나타나는 바이고 이것은 적어도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건립은 안채로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구성으로 305㎜ 영조척이 사용되었고, 사랑채는 그 다음시기에 310㎜ 영조척이 사용되며 이때에 안채의 남측칸의 구조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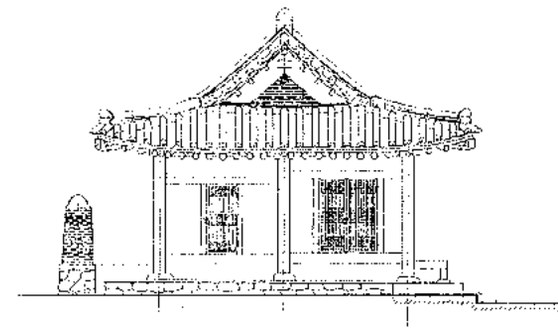


평면도

안채 정면도



안채 배면도



안채 좌측면도

안채와 사랑채 북측면

고간채 남측면 : 오른편으로 안채지붕이 연접된다.

중정에서 본 안채 : 퇴마루에 유리창을 추가하여 현대적 생활공간으로 변형되어 외부 모습과는 이질적으로 보인다.

안채 배면

추측컨데 초기에는 안채 6칸 내에 부엌이 들어있던 것을 사랑채를 지으면서 남측으로 부엌간을 증설하였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아야 안채에 두가지 영조척이 존재하는 이유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채가 증축될 때에 온돌방의 주칸은 9자로, 부엌간은 11.5자로 계획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지어진 후에 다시 고간채가 증축되며 사용된 영조척은 303㎜이고, 이때에 바깥의 문간채도 이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척도가 사용된 시기로 보아서는 일제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같은 분석은 영조척 개념과 건축적인 상황에서 유추된 것이므로 현실과 완전히 부합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건축과 증축과 건물의 변형등에서 수많은 변수가 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건물의 내력에 대해 소상히 살펴보지 못한 관계로 영조척 위주로 분석해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건축적인 특징

안채의 평면구성이 겹집인 것은 이 지방의 특색인 것이나 현재는 안채의 정면 3칸을 두칸으로 나누어 온돌방의 구획이 기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은 후대에 실내를 넓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변경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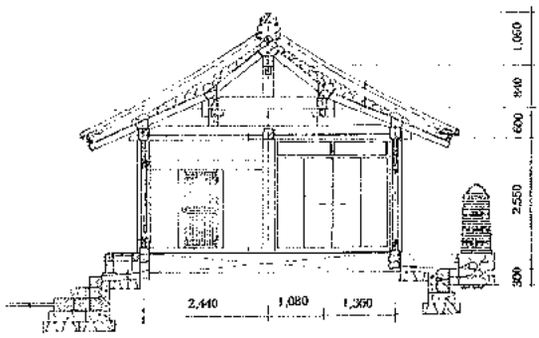
안채 6칸에 대청칸이 없고 전면에 퇴마루를 별설한 것도 이 지역의 평면에서 보이는 구성법이다. 다만 현재 이 퇴마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는 근래에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안채는 5량구조에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나 처마도리는 단면을 팔각형으로 만들어 굴도리를 사용한 효과를 내고 있다. 안채의 중앙부 기둥열에는 고미보를 걸어 놓아 구조적으로는 고미반자를 구성하도록 되었으나 현재는 변형되어 합판으로 반자를 대고 도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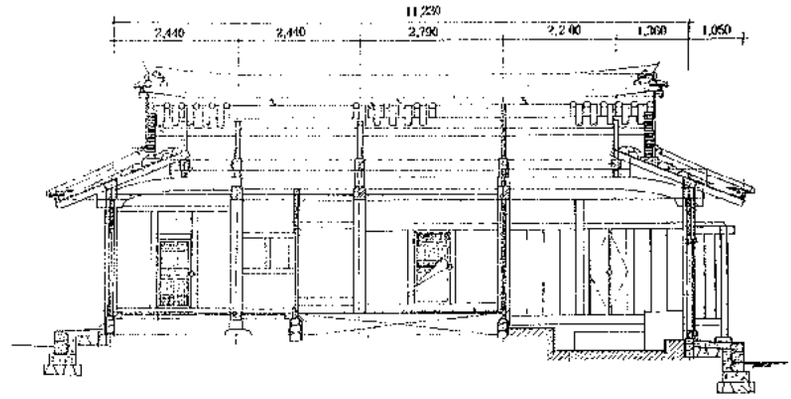
창호의 종류는 전형적인 세살창이 사용되었고 고간과 부엌에는 판문이 있으며 사랑채에는 우리판문이 사용되었다. 특히 고간에 사용된 판문중에는 통판으로 만들어 나무결이 어른거리는 것도 있고, 판문의 양단부를 좀더 두꺼운 나무를 대어 마모와 손상이 되기 쉬운 부분을 보강하는 고식의 기법을 보이는 것도 있다.

사랑채의 대청마루에서 전면쪽에는 세살청판분합문 4짝이 설치되어 있고 북측면에는 우리판문이 있으며 그 상부의 한 단에는 교살이 구성되었고 새발장식과 국화쇠 등의 장식철물로 치장하였다. 사랑채 건립당시부터 제작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장소라는 점에서 고급으로 치장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분합문과 우리판문의 상부에는 인방위로 머름 짜듯이 소동지를 세우고 청판을 끼웠다. 이 부분은 좀더 격식이 있게되면 고창이 설치될 자리이기도 한 것으로 이 지방의 건축에서 보이는 격식의



안채 종단면도



안채 횡단면도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청판의 외부쪽에만 장식문양을 음각으로 새기고, 그 형태는 원형 내부에 불교를 상징하는 萬字(卍)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독일의 나치당 상징인 독수리 문양과 같게 되었다. 어떤 연유로 이런 문양이 새겨지게 되었는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각하는 목공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나름대로 추측해 보니 목공의 실수라는 쪽으로 판단이 간다. 실수의 과정을 상상으로 구성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卍자는 빙글 빙글 돌려도 똑같은 모습이다. 청판에 새길 문양을 원척으로 그린다. 창호지에 이 원판대로 복사하여 청판에 뒤집어 붙인다. 청호지의 표면을 물축여 얇게 벗겨낸다. 뒤에 그려진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도장을 새기는 과정과 마찬가지이다. 도장일 경우는 바로 쓴 것을 뒤집어 붙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지나 도장을 찍으면 바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도장이 아니므로 회전시켜도 같은 모양이라는 점을 착오하여 뒤집어도 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고 간과하기 쉬웠을 것이다. 원판대로 복사하여 뒤집어 붙였으나 모양대로 새김질 하면 착오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이십여매를 기계적으로 새김질하여 설치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사정이 그러하였다면 그다음 단계도 궁금하다. 잘못된 것은 언제 알게 되었을까? 설치하기 전일까? 설치 후일까? 이러한 문양은 대개 건축주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설치 전에 건축주가 알았다면 재조각을 요청하였을 것이나, 그대로 있다는 것은 설치 후에 알게 되었으리라. 목수와 건축주가 주고받은 대화가 어떠하였을까? 상상하여 본다면 목수왈 "대청에 앉아서 불심으로 내다보면 바르게 보입니다."라는 답변에 주인은 "허허"웃음으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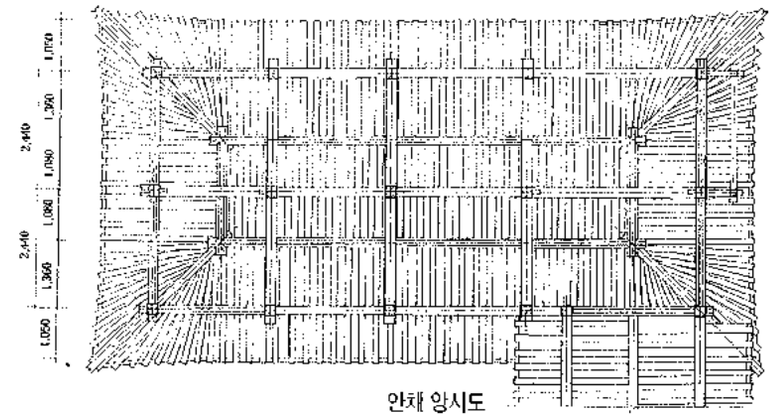
사랑채에서 추녀부분의 서까래는 엇선자 기법이 사용되었다. 엇선자라는 것은 약간 비뚤어진 선자 또는 약간 모자란다는 뜻으로 얼선자라는 의미가 명사로 정착되어진 것이다. 제대로 된 선자는 뒤뿌리가 중도리 위로 초점이 형성되어 한곳으로 집중되나 엇선자는 초점이 흐려진다. 선자기법은 건축목수일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엇선자는 구성법이 쉬운 편이나 구조적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정식의 선자연에서는 서까래가 추녀에 가까운 것일 수록 크게 휜 부재를 사용해야 하며 서까래의 길이도 길어야 한다. 그러나 엇선자에서는 선자가 곧고 길이도 비슷하며 처마의 높이를 조절하기에도 뒤뿌리의 높이를 약간 조정하면 되므로 재료사용과 들어가는 품에서 매우 경제적인 기법이므로 웬만한 주택에서는 엇선자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사랑채는 홑처마이면서도 추녀에는 겹처마에 쓰이는 사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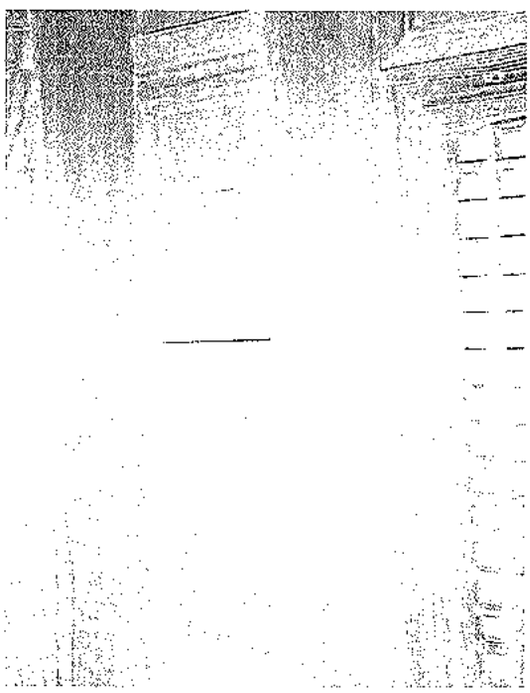
고간채 판문 : 판문의 양단부를 두터운 목재로 보강하였고 상하의 운둔테를 자귀질로 다듬은 흔적이 여실하다.

소슬대문 동측면



안채 앙시도

사랑채 북측면의 우리판문



사랑채 창호 상부의 머름청판 장식

추가되어 있다. 엇선자가 직선재이면서 추녀부의 처마를 들어올려 구성하게 됨에 따라 추녀도 이에 맞추어 높이를 조절해야 하지만 추녀만으로 곡을 맞추려면 매우 곡이 큰 추녀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추녀위에 사래를 얹어 곡이 적은 추녀재를 사용하기 위한 편법이 사용된 것이고 조선조 중기 건물에서도 간혹 보이는 기법이기도 한다.

벽체의 구성에서는 판벽과 토벽이 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시멘트벽과 토벽과 회벽이 뒤섞여 있으나 원상은 진흙으로 곱게 바른 토벽이었음이 확실하다. 마당의 황토흙과 벽체의 황토색에 목재의 회갈색과 지붕의 토기와가 이루어내는 은은한 색감이야말로 한국적인 주택에서 맛볼수 있는 독특한 정감일 것이다.

4) 맺는말

강릉지역에 있는 몇가지 주택을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이 지역의 주택이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표본적인 주택으로서의 기본적 구성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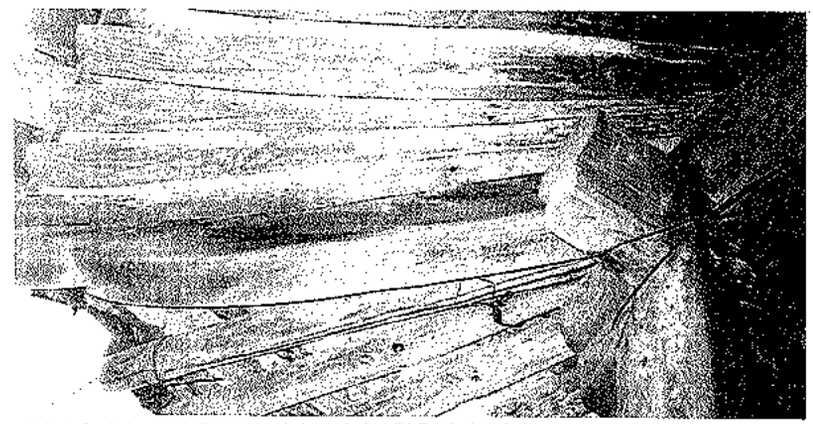
① 뒷산을 배경으로 앞으로 경작지가 전개되는 곳에 주택이 자리잡고 남향을 고집하기 보다는 대지의 형세에 따라 좌향을 잡는다. 중부지역이면서도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것이 그러한 성향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대지는 사다리꼴 또는 반달형으로 정지된다.

② 안채는 평면구성이 겹집형으로 오래전 부터 있어온 주거형식이 고집스레 남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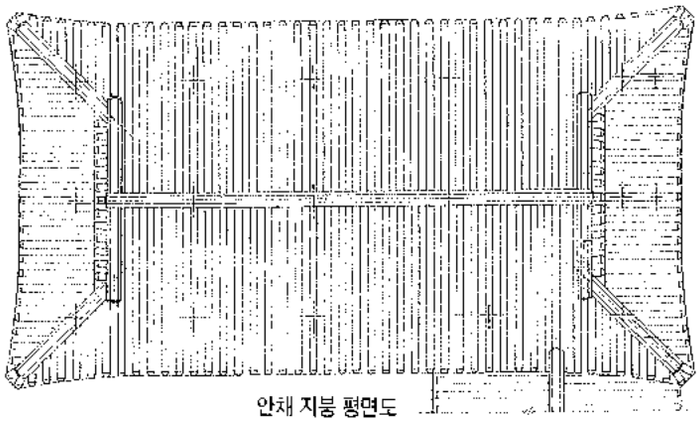
③ 배치형태는 톤 "ㅁ"자 형태로 이루어 진다. 특히 사랑채 후면과 안채와의 부분이 트여지는 경우가 많다.

④ 건축 경제상 건물이 여러단계를 거쳐 증축되나 마지막 단계의 증축을 고려하여 중간의 증축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마지막 단계의 구성이 비슷한 형태로 건축적인 모범이 확립될 것으로 해석된다.

⑤ 사랑채의 위치는 "ㅁ"자형의 전면부에 두되 좌측에 배치할



사랑채 추녀부 : 서까래의 간격에서 엇선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안채 지붕 평면도

것인지 우측에 놓을 것인지는 대지의 여건에서 마당과의 동선 연결에 따라 선택되며 지붕은 대개 팔작지붕으로 구성한다.

⑥사랑채의 주인의 품격을 표현하여 구조적인 격식을 안채보다는 높게 구성하며 실외는 편액과 주련으로 실내는 서화로 치장하며, 정면은 삼칸이 표준적이고 한 편에 마루방을 구성하는 예가 많고 퇴마루 칸이 없으면 별도의 퇴마루를 설치한다.

⑦사랑채 옆으로 정면쪽에 문간을 두어 중정으로 드나들게 되었고 문간 곁에 외양간이 설치된다.

⑧사랑채와 안채의 부엌은 배치상 가장 멀게 대각선상에 각각 위치한다.

⑨안채는 겹집의 6칸이 기본이고 여기에 부엌이 추가되고, 사랑채는 전면 3칸이 기본으로 칸수 설정에서 음양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⑩문간채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는 소슬대문을 두고 좌우로 고간채를 2~3칸씩 연속시키며 문간의 위치는 사랑채 중앙부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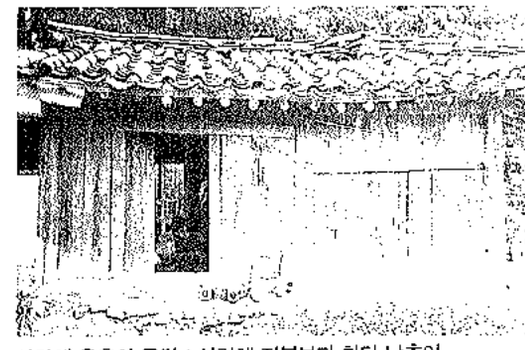
⑪문간채와 마당의 높이는 진입로 보다 높게하여 계단을 통하여 대문에 들어서게 된다. 이점은 폭우와 폭설시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전면의 경작지를 쉽게 조망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⑫가족의 구성에 따라서 마당을 분할하는 사잇담을 두는 것이 원칙적이나 현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방적으로 된 곳이 많다.

⑬기단의 높이는 안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사랑채와 익채의 순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대지의 경사진 여건이 일차적 이유이고 부차적으로 안채에서 내다보는 시각에 여유를 주기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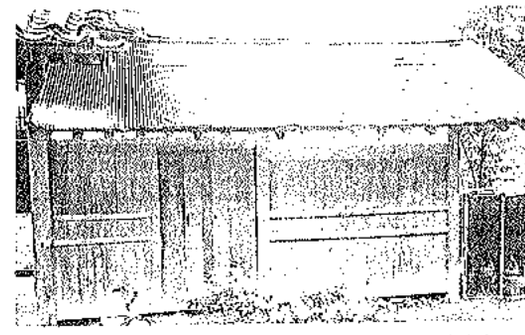
주거건축의 특징으로는 시대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고 살림살이의 규모도 변천하는 관계로 증축과 개축이 단속적으로는 이어지는 변화가 있는 반면에 주거행태의 기본적 활동인 의식주라는 근본은 바뀌지 않는 불변성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모습에서 옛모습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어느부분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다른 부분은 쉽게 변화되는 속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거건축의 모습에서도 일별하여서는 다 같은 모습으로 보이면서도 조금 관심을 두어 살피면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 있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러한 이중적인 속성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주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의식구조 까지도 파악되어야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하여야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인용한 자료들이 모두 보수공사 설계를 수행하면서 작성된 것이어서 유형적인 건물위주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무형적 사고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글중의 일부내용은 필자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 분야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사랑채 우측의 문간 : 사랑채 지붕보다 한단 낮추어 접속시키고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내측에서 본 대문 : 전체적 윤곽은 재래식이나 문짝의 구성은 개량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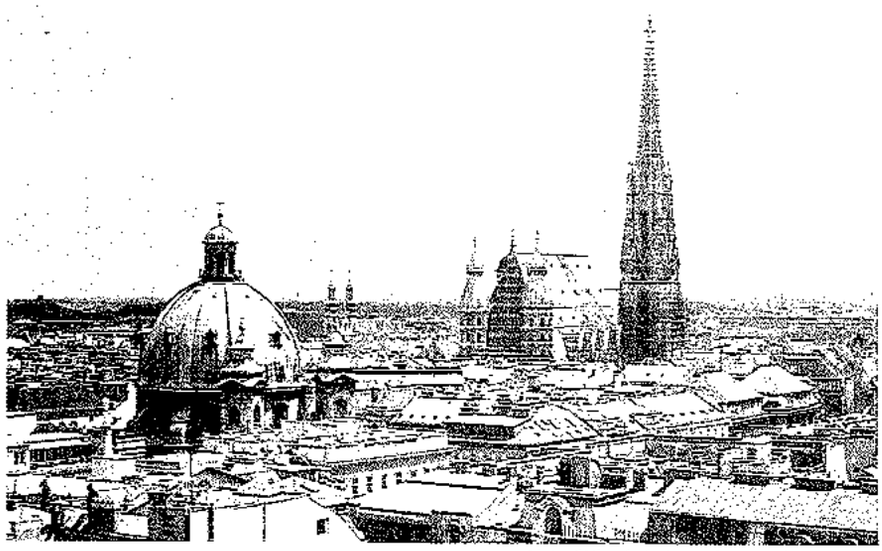
문간채 창고 : 지붕은 기와대신에 골함석으로 대치되었다.

고딕 성당 건축(6)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

—오스트리아 스테판성당—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성스테판 성당이 보이는 비엔나시 전경

1. 개요

6세기 이상 황제가 거주했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시는 합스부르그 왕가의 특징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천에 의해 1955년부터 중립을 지키고 있어 모든 나라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1967년부터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소재지가 되었으며, 1979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산업개발기구가 창설되기도 하였다. 뉴욕과 제네바에 이어서 UN의 세번째 중심지이기 때문에 국제적 특성이 있는 국제회의와 회담이 자주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는 도시이다. 이와같은 비엔나(Vienne)시는 오스트리아 제일의 대성당인 성 스테판 성당을 갖고 있으며, 대성당은 비엔나(Vienne)시의 상징이다. 대성당이 신축되기까지의 오스트리아의 건축활동은 독일의 북부와 동부지방과 더불어 14세기부터 활발해졌으며, 교회건물은 삼랑등고(三廊等高)의 형식이 널리 쓰였고 이 성당도 이와같은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대성당의 여러가지 중에서 비엔나 사람들이 스테펠(Steffel)이라고 부르는 대성당의 우아하고도 당당한 탑은 비엔나 시 모습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엔나 시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설속에도 등장하는 이 대성당의 건축은 비엔나 사람들의 자랑이며 그들의 정신을 상징한다. 성스테판 광장을 거쳐 서로 통하던 길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었으나 시내 중심부분을 보행자만의 거리로 바꾼 것은 그 이후부터 이다.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잘된 이 결정은 오염으로 이미 많이 손상된 대성당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조치였다 할 수 있다. 터어키인들의 두 번의 공략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대성당은 비엔나 시민들과 비엔나 시에는 자유 그 자체가 되었다. 대성당과 성 스테판 광장의 현재의 모습은 일세기에 걸쳐 행했던 개발의 결과로써 자주 고치고 재건축을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2. 성 스테판성당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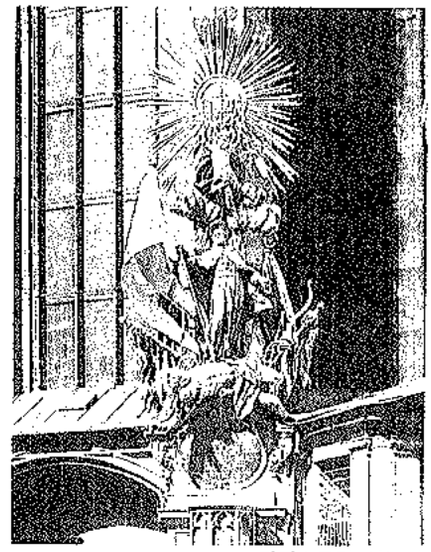
1722년부터 대주교의 본거지였고 오늘날 아직도 비엔나시의 중심인 성 스테판 성당은 오스트리아의 첫번째 공작이었던 하인리히 야조마르고트(Heinrich Jasomirgott)가 파쏘(Passau)교구의 본당으로 1137년에 설립하였으며, 규모면에서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성당들을 능가하는 대성당을 짓기로 계획하였으나 성안에는 신축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비엔나 시의 동쪽인 성 밖에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1147년 파쏘(Passau)의 주교가 그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던 성 스테판 대성당을 봉헌했다. 이 대성당은 세부분의 중앙석과 좌우 익랑이 있는 바실리크식 성당이었다. 1258년 대성당은 화재로 파손되었으나 비교적 빨리 복구가 되었으며, 대정문이 있는 현재의 정면과 뾰족한 모자를 쓴 것처럼 신기하게 장식을 한 이교도들의 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263년 성 스테판 대성당의 봉헌을 새로이 했다. 서쪽에 있는 내진과 중앙회중석사이의 높은 주랑, 이교도들의 탑과 대형 정문은 오늘날까지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옛날 대성당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276년 비엔나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1304년 성 스테판 대성당을 고딕양식으로 재건하기로 하고 성당의 동쪽에 중앙회중석이 셋이 있는 내진을 건축했다. 1340년 합스부르크(Habsbourg)의 알베르트(Albert)2세 시대에 내진을 완성하고 봉헌했으며, 이것을 알베르트 내진이라고 일컬었다. 그 이후 몇 해동안 수도원이면서 대성당인 성 스테판 성당을 세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1359년 로돌프(Rodolphe)2세가 고딕양식의 대성당으로 꾸미기 위해 새 건축물의 초석(머릿돌)을 놓았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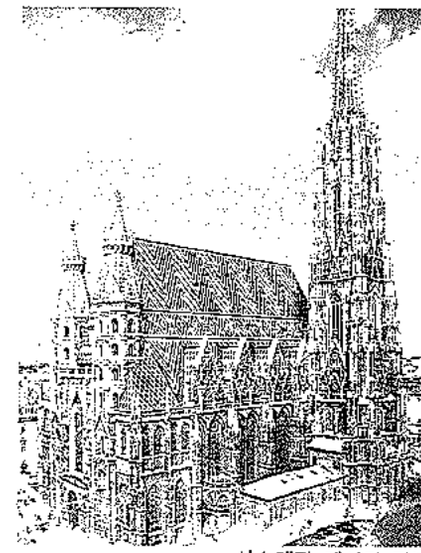
로마네스크식의 긴 중앙회중석을 확장하고 서쪽에 있는 정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중의 작은 제단을 건축하였으며 남쪽과 북쪽에 정문을 만들었다. 측면의 아름다운 정면들은 그의 동생 알베르트(Albert) 3세때 완성이 되었으며 내진은 1430년에야 완성을 보았다. 1433년 대성당의 건축가 장 드 프라샤티츠(Jean de Prachatitz)에 의해 남쪽탑이 완성되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고 화려하게 다듬어 비엔나 시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된 탑 스테펠(Steffel : 스테판의 단축형)의 마지막 마무리를 1439년에 했다. 중앙 회중석을 궁륭형으로 만들었던 건축가 한스 푸츠폼(Hans Puchspaum)이 북쪽탑의 토목공사를 한 1450년에 빙하시대의 맘모스의 뼈를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이 뼈는 대성당 속에 오랫동안 전시되었다. 이 탑속에 터어키의 청동대포를 녹여 제작한 큰 종인 푸메린(Pummerin)을 매어달았다. 1459년 대성당의 건축가 Jean Puchsbaum에 의해 중앙회중석이 완성되었다. 1467년 북쪽탑을 건설했으며, 1469년 황제 프레데릭 3세의 칭으로 교황은 비엔나를 주교좌 시로 설정하고, 스테판 대성당은 주교가 거주하는 교구가 되었다.

1490년 헝가리의 왕 마치아스 코르빈(Mattias Corvin)은 지붕을 건설하도록 하고 헝가리 고유의 색으로 지붕을 칠하도록 했다. 지붕 골조를 만드는데는 낙엽송 말동 3000개가 필요했다. 거대한 다색 지붕, 화려하게 장식한 탑들과 다양한 표현의 건축적 형태 등은 대성당의 아주 특이한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1513년 안톤 필그람(Anton Pilgram)이 파이프 오르간 기둥의 아랫부분을 제작했다. 1556~1578년


카피스트란 설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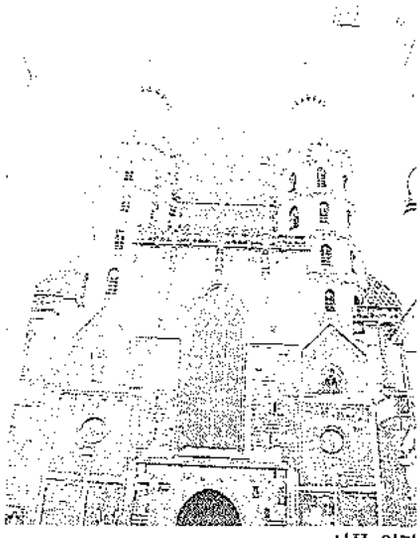
카스파(Kaspar)형제와 장 사포이(Jean Saphoy)가 둥근 천정이 있는 북쪽탑을 완성했다. 이 둥근 천정은 사포이 천정(Coupole Saphoy)이라고 불리운다. 1640~1647년 장(Jean)과 토비아스 포크(Tobias Pock)형제가 바로크 양식의 주제단을 건립했다. 1529년 터어키의 첫번째 공략에 이어 1683년 터어키의 두번째 공략이 있었다. 1720년~1735년 지하묘지가 장례식 장소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 사용하는 것을 중지했다. 1809년 프랑스와의 전쟁 동안(1839~1842) 대성당은 파손되었다. 대성당의 둥근 천정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이것을 제거해야만 했고 철골조로 둘러싸게 되었다. 1860~1864년에는 1842년에 했던 공사가 내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둥근 천정을 제거해야만 했다. 1945년 독일군들에 의해 먼저 대성당 주변의 가옥들이 파괴되었으며, 불이 붙은 대성당은 지붕의 골조가 타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건축물의 약 45%가 파괴되고 수많은 예술품이 파손되었다. 나무로 된 탑들은 불에 타버렸고 이로 인해 대형 종들이 추락하게 되었다.


성스테판 대성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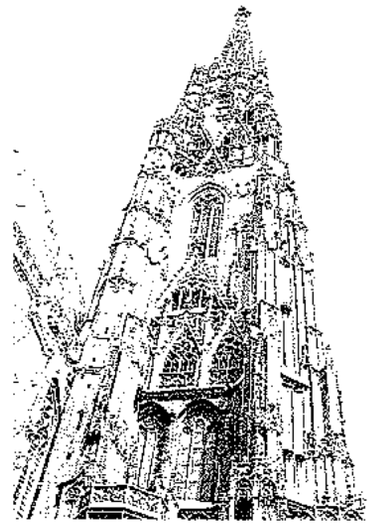
1945~1952년에는 대성당을 다시 원상태로 고쳤다. 1954년 성 스테판 탑의 복구공사를 시작했다. 1957년 사포이 천정을 완전히 새로 교체해야만 했으며, 푸메린(Pummerin)이라 불리우는 제일 큰 종의 봉헌식이 있었다.

3. 외부

성 스테판 대성당은 방문객이 있는 위치에 따라 모습 또한 항상 다르다. 가장 알려진 외관은 "스톡 임 아이젠"(Stock im Eisen)이라 불리운다. 제일 높은 탑, 스테펠(Steffel)이 우뚝 솟아 있고 착색된 기와 지붕이 빛나고 있다. 동시에 성당의 대정문과 이교도의 탑들과 함께 보이는 서쪽면의 모습이다. 만일 로텐투름스트라쎄(Rotenturmstrasse : 도로이름)쪽에서 대성당으로 다가가면 남쪽탑의 첨정밖에 보지 못한다. 반대로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는 북쪽탑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슐러스트라쎄(Schulerstrasse)쪽에서 간다면 첫눈에 북쪽탑이 보이고 외부에



서쪽 외관



성스테판 탑

치통을 앓고 있는 하느님

있는 "카피스트란(Capistran)의 설교단"과 함께 알베르트(Albert)내진도 구별할 수 있다. 성스테판 광장에서 내진쪽으로 한바퀴 돌다보면 관광객의 시선을 끄는 거대한 성 스테판 탑이 있는 남쪽면으로 다시 오게 된다. 여러번의 재건축에서 기인한 여러가지 다른 양식에도 불구하고 대성당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건축물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의무를 실행했던 건축가들의 재능과 공로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대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딕양식 대성당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3-1. 성 스테판 탑(남쪽탑)

137m 높이의 성 스테판 탑은 확실히 오스트리아에 있는 고딕양식 건축의 주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중앙회중석 옆에 탑을 건축한 것은 매우 독특하며 다른 고딕양식의 탑들과는 다르다. 이 탑은 층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방문객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창립자 로돌프(Rodolphe)공작은 높은 탑의 창시자였다. 탑은 나라안에서 눈에 띄어야 하고 성스러운 장소로서 또한 군주들의 묘지임을 알려야만 했다. 조화로운 느낌을 주는 외부 모습은 탑의 건축이 설계도의 수차례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카엘 크나브(Michael Knab 1370년에서 1395년까지의 기사로 야금공사의 책임자)는 건축의 방향을 책임졌었다. 그는 고딕양식의 가장 알려진 대가다. 종루를 세운 것은 건축 설계도를 완전히 변경한 것이다. 높은 종루를 자세히 보면 정사각형에서 팔각형으로 설계도를 변경한 것도 알 수 있다. 장 드 프라샤티츠(Jean de prachatitz)가 탑을 완성했다.

3-2. 독수리 탑(북쪽탑)

1467년 남쪽탑과 유사하며 같은 높이의 이 북쪽탑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511년 공사를 중단했다. 그 당시 탑은 긴 중앙회중석 벽의 높이와 같았다. 공사중단의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다. 종교개혁 당시의 혼란일 수도 있고 좀더 확실하게는 예술적인 비난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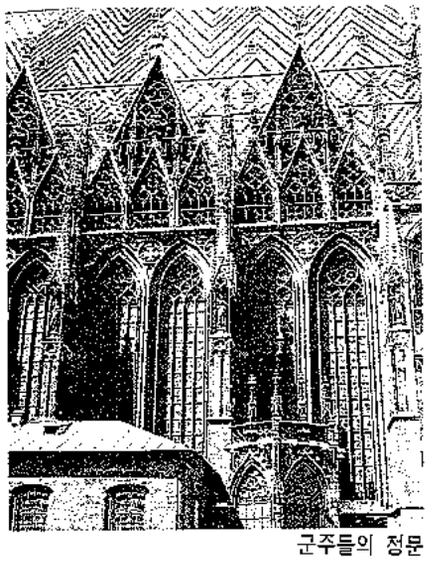
장 푸츠바움(Jean Puchsbaum)의 이야기는 민간에 유포되어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 장 푸츠바움은 처음에는 대성당의 건축가였던 장 드 프라샤티츠 밑에서 일을 했다. 어느날 사랑했던 프라샤티츠의 딸 마리아(Maria)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성당의 건축가는 찬성을 했지만 단 한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푸츠바움이 북쪽탑을 일년 안에 완성하는 것이었다. 푸츠바움은 즉시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를 하는 도중 그는 약속한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공사장에 악마가 나타나 탑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느님이나 성모마리아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푸츠바움을 도와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그는 그것을 쾌히 받아들였다. 공사는 아주 빨리 진척되어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전에 끝나게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 푸츠바움이 비계위에서 작품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대성당의 광장에서 그가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았다고 느낀 순간 주저하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리아, 마리아"하고 불렀다. 이 때 악마가 그의 등뒤에서 나타나 비계위에서 밀었다. 그 다음날 장인들과 노동자들은 장 푸츠바움의 시체를 발견하고 즉시로 북쪽탑의 완성을 거부하였다.

3-3.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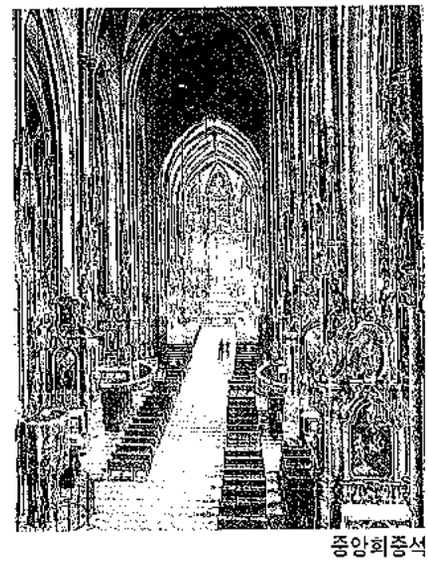
성 스테판 탑 뿐만 아니라 지붕도 비엔나의 모습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다. 1945년 대성당의 화재시에 파손되었던 고딕양식의 서까래틀은 수많은 낙엽송의 밑둥으로 되어 있고 나무 밑둥을 하나위에 다른 하나를 얹는 방법으로 5층으로 만들었다. Z자형으로 장식된 빛나는 지붕은 고딕양식의 걸작품이다.

3-4. 서쪽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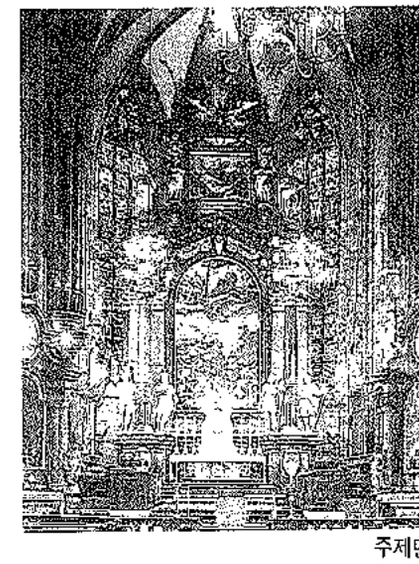
대성당의 가장 오래된 부분들은 서쪽면에 있다. 서쪽 벽은 두 탑(이교도들의 탑)의 수평면이 정사각형에서 팔각형으로 바뀌는 높이까지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대정문과 긴 중앙회중석위에 있는 서쪽 창문은 시선을 끈다. 이교도들의 탑들 일층 왼쪽과 오른쪽에는 고딕양식의 이중으로된 작은 제단이 있다. 중앙회중석의 확장공사때 서쪽면을 새로운 규모로 바꾸면서 이중의 작은 제단들을 건설했다.



군주들의 정문



중앙회중석



주제단

3-5. 정문들

3-5-1. 대정문

서쪽 정문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때 것으로 아주 잘 보존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장식은 13세기 초반때의 것으로 열두제자와 두 복음사가들의 흉상 14점이 있다. 합각벽에는 마지막 심판에서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배내기 하나가 수평적인 나눔을 나타낸다. 위 쪽에는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의 상징들이 있다.

3-5-2. 군주들의 정문

약혼녀의 문으로 불리우는 북쪽의 사제들의 문(Bischofstor)과 남쪽에 있는 가수들의 문(Singertor), 이 두 측면의 정문은 긴 중앙회중석과 연결되어 있다. 두 정문에는 육각형의 돌출부가 있는데 이것은 정문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군주들의 정문"이라는 이름은 그 조각들에서 유래한 것이다. 약혼녀의 문은 여성들을 위한 입구로서, Singertor는 남성들을 위한 입구로 마련이 되었다. 그러므로 문들의 모양이 다르다. 약혼녀의 문위에는 동정마리아의 일생(죽음과 대관식)이 있고, Singertor위에서는 사도들의 일생을 볼 수 있다. 합각벽에서는 바오로 성인의 개종한 내력을 볼 수 있다. 장 푸츠바움이 Singertor의 입구를 건축했고 그레고와르 하우저(Gregoire Hauser)가 약혼녀의 문 입구를 건축했다.

3-5-3. 탑의 정문

대성당 측면의 중심입구는 북쪽탑속에 있는 "똑수리의 탑"과 남쪽의 성 스테판 탑 속에 있는 "Primglockleintor"로 불리워진다. 고딕양식의 세 입구는 깔때기 형태의 현관으로 통하며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 하나를 지나면 성당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두 탑의 일층인 성방형 방들은 중앙회중석의 궁륭과 높이가 같다.

3-6. 카피스트란(Capistran)의 설교단

Capistran성인을 기념하기 위한 "카피스트란의 설교단"이 1738년부터 북쪽 내진의 맨끝에 있다. 15세기에 프란체스코회의 수사였던 카피스트란은 터어키와의 전투에서 도움을 청하고 군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급히 비엔나에 왔다. 떡갈나무로 조각을 했던 설교단은 옛날에는 대성당 가까이 있었다. 1738년 복원공사를 한 후 설교단을 원래의 자리에 놓고 여기에 성인의 상을 덧붙였다. 설교단위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군상은 성인 장 카피스트란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수도회의 옷을 입고 손에는 십자군의 깃발을 들고 터어키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3-7. 외부의 조각

3-7-1. 고통을 지닌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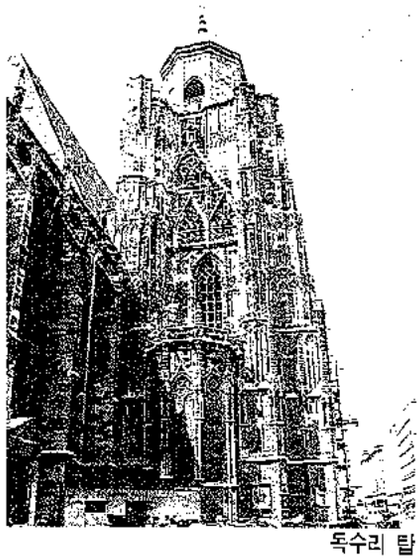
14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 조각은 Singertor옆의 버팀기둥 위에 있다. 실물보다 더 큰 조각으로 피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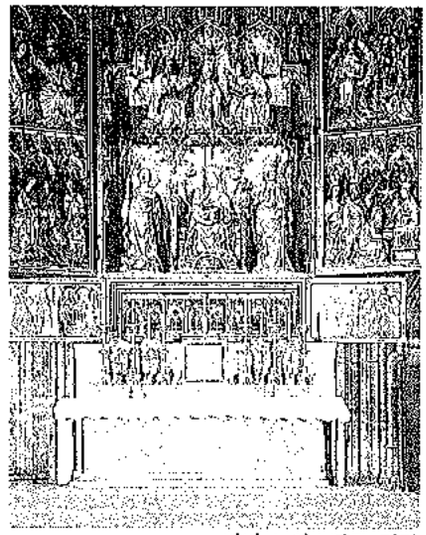
3-7-2. 치통을 앓고 있는 하느님

내진의 외벽위에 가시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 있다. 이것은 복제품이며 1500년에 제작된 원래의 작품은 성당 내부의 북쪽탑 아래에 있는 서쪽 벽위에서 볼 수 있다. "치통을 앓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성체 첨례 행렬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위에 화관을 얹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한줄기 바람이 불어 화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볼과 귀를 덮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세 명의 대학생은 이 모습이 너무 희극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풍자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대학생들은 그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셋 모두 갑작스럽게 지독한 치통을 앓았다.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그 시간에 치과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 함을 알고 있던 그들은 결국 광장으로 되돌아와서 이 조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며 밤을 새웠다. 신기하게도 치통은 없어졌다고 한다.

3-7-3. 하일툼스톨(Heiltumsstuhl) : 신성한 장소

1483년부터 17세기말까지 이 건물은 로텐투름스트라쎄(Rotenturmstrasse) 위쪽에 궁륭형의 문으로 있었다. 체권자들에게 창문으로 대성당의 유물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터어키와의 전쟁을 위해 대성당의 보물들을 처분하여 비용을 대었다. 17세기 초 대성당의 재산 목록을 조사한 후 보물의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독수리 탑


비너 노이스타트 제단

노이스타트 제단의 그림

건물은 중요성을 잃게 되었으며 무용지물로 남아 있었다. 17세기 말 이 건물은 교통에 방해가 되어 허물게 되었다.

4. 내부

내부전체의 느낌은 외부를 보고 갖게 되는 인상과 같으며 항상 방문객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느낌 또한 달라진다.

만일 대정문을 통해 들어간다면 파이프오르간, 중앙회중석과 함께 서쪽에 있는 주랑을 주목하게 될 것이며, 전체 길이가 100m인 알베르트(Albert)내진을 보게 된다. 또 각각 넓이가 10m인 두 측랑도 시선을 끈다. 만일 탑의 정문으로 들어간다면 즉시 대성당의 넓이에 놀라게 된다. 서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중앙회중석과 양측 회중석 높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28m와 22m)

4-1. 주제단

현재의 주제단은 1640년에서 1647년까지 포크(Pock)형제가 제작했다. 야곱 포크(Jakob Pock)는 대리석 조각공사의 책임자였다. 주석판에 그린 "스테판(Stephane)성인의 돌로 쳐 죽임"이라는 이름의 그림과 "성부"의 그림은 토비아스 포크(Tobias Pock)의 작품이다. 주교들의 흉상과 함께 바로크 양식의 성직자석은 마치아스 학클(Matthias Hackl)이 1647년에 제작한 것이다.

4-2. 비너 노이스타트(Winer Neustadt) 제단

4개의 덧문이 달린 이 제단은 1447년에 제작한 것으로 옛날에는 비너 노이스타트에 있는 수녀원에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성당의 여성 성가대석에서 볼 수 있다. 후기 고딕양식의 덧문이 있는 제단뒤의 장식벽 그림은 중요한 작품중의 하나다. 1884년 대성당에서 사 들였다. "산칫날"은 조각으로 장식을 한 상자로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윗 쪽에는 성모마리아의 대관식, 아래쪽은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가 있고 덧문에는 성모마리아의 대관식, 성모의 죽음, 예수 탄생과 하느님의 발현이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금 바탕에 색칠을 한 것으로 72명의 성인을 나타내었다. 덧문을 닫으면 "그리스도의 수난"을 볼 수 있다.

4-3. 요한 네포무크(Johann Nepomuk)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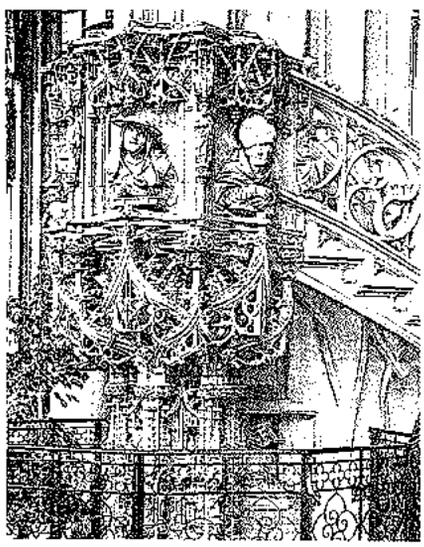
내진의 왼쪽에 있는 제단으로 크렘저 슈미트(Kremser Schmidt)가 제작한 그림과 네포무크 성인의 조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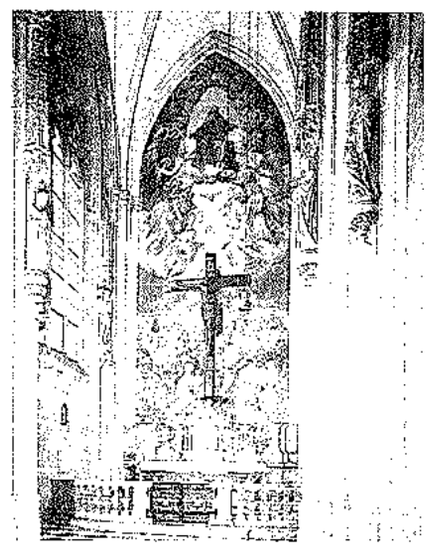
4-4. 칼 보로모이스(Karl Borromaus)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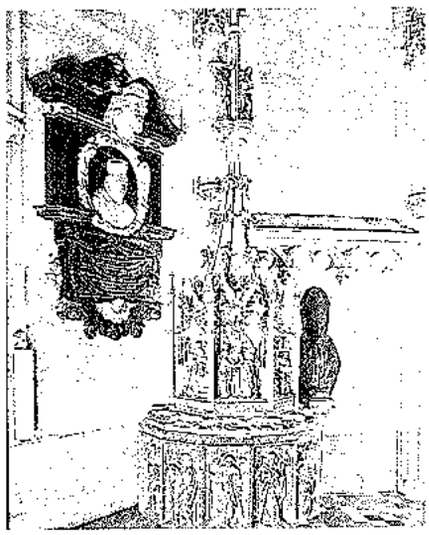
내진의 오른쪽에 있는 제단으로 미켈 로트마이어(Michel Rottmayr)가 제작한 그림이 옛날에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볼프강 쾨프(Wolfgang Kopp)가 제작한 그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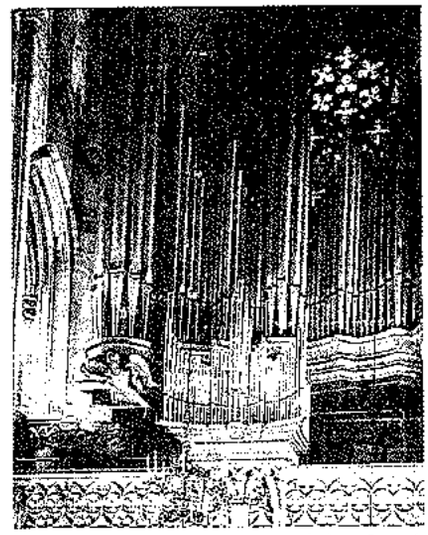
4-5. 설교단

설교단은 중앙회중석 가운데 있는 북쪽 기중위에 있다. 이것은 마치 속인들의 교회와 성직자들의 교회처럼 내진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다. 파이프 오르간 기둥의 아랫부분에 이어 설교단은 안톤 필그람(Anton Pilgram)의 두번째


설교단과 조각


와젠느 제단


까뜨린느 성녀의 작은 제단


파이프 오르간

스테인드글리스

걸작품이다. 설계도에는 여섯면이 있는 작은 기둥들을 위해 기초로 쓰이는 기둥은 여섯면을 가진 큰 기둥 하나가 있으며 이 전체가 설교단으로 되었다. 난간에 있는 조각들은 4명의 신부들로 암브로이즈(Ambroise)성인, 이에로니무스(Hieronymus)성인, 그레고와르(Gregoire)성인 아우구스틴(Augustin) 성인이다. 기둥둘레에 계단이 있고 악마의 표시로 두꺼비와 뱀을 잡아먹는 도마뱀이 있으며 짖고 있는 개로 작품은 마무리져 있다. 계단 밑에는 펜스터구커(Fenstergucker :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뜻)라는 이름을 가진 필그람(Pilgram)조각가의 초상이 있다. 1945년까지 설교단 위쪽에는 15세기에 나무로 조각한 반향판이 있었다. 옛날에 이 반향판은 까뜨린느(Catherine)제단에서 영세반의 꼭대기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4—6. 외젠느 왕자 제단

사보이(Savoy)의 왕자 외젠느(Eugene)의 무덤이 있고 1853년 장 엔더(Jean Ender)가 제작한 제단의 그림이 있다. 바로크 양식으로 꾸민 철문이 제단입구에 있다.

4—7. Eligiuskapelle

후기 고딕양식으로 발렌틴(Valentin)제단이며 14세기의 조각 4점이 있다.

4—8. 까뜨린느(Catherine)성녀의 작은 제단

이 작은 제단은 남쪽탑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고 남쪽탑의 일층에 있다. 17세기부터 세례당으로 쓰였다. 1481년에 제작한 영세반은 대리석 블록으로 되어 있으며, 영세반 아래 부분에는 4명의 복음사가 있고 영세반 외부에는 예수그리스도와 열두 제자들 스테판(Stephane)성인이 있다. 16세기부터 나무를 조각한 영세반덮개는 설교단의 반향판으로 사용되었다.

4—9. 바르바라(Barbara)성녀의 작은 제단

이 제단은 북쪽탑의 일층에 있으며 1983년부터는 묵상실로 사용되고 있다.

4—10. 닫집

4—10—1. 푸츠하임(Puchsheim)닫집

장 푸츠하임이 1437년 제작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닫집이며 측면 회중석의 북서쪽 구석에 있다. 아래에는 성심의 그림이 있다.

4—10—2. 퓌첼(Fuchsel)닫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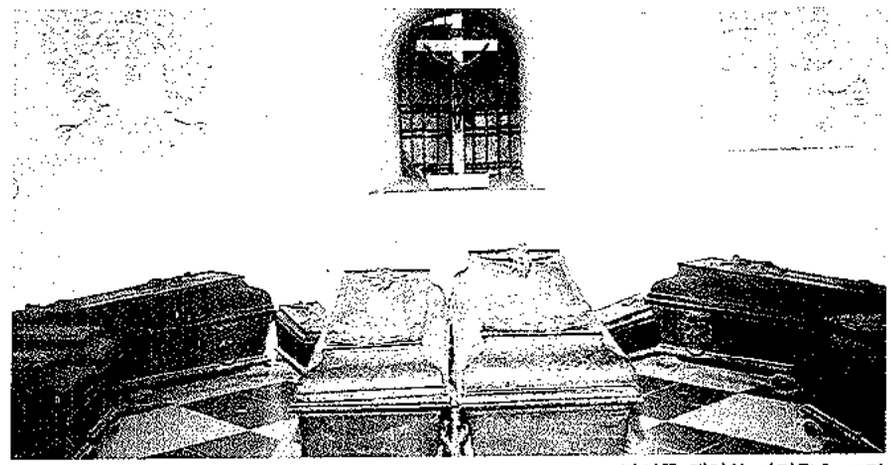
측면 회중석의 남동쪽 구석에 있으며 성가대를 위한 복도가 있고 나선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4—10—3. 남서쪽 닫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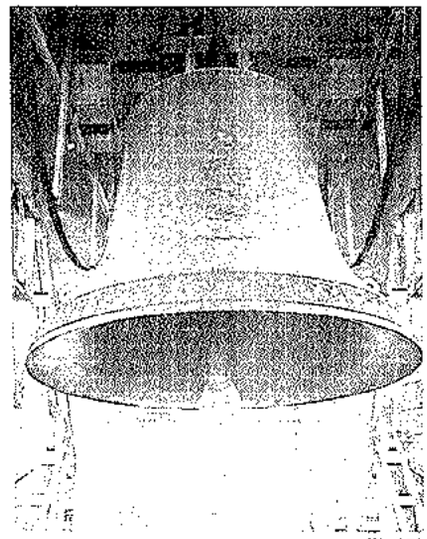
측면 회중석의 남서쪽 구석에 있는 이 닫집 아래에는 마리 퐈츠(Marie Potsch) 제단이 있다. 항가리 북쪽 Pocs마을에서 나온 제단의 그림은 1679년부터 대성당에 있다. 두 개의 단풍나무 판자위에 그려진 그림은 군대의 안내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성모를 표현하고 있다. 1696년 어느 일요일 이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농부는 눈에 눈물이 그득한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 황제가 그 기적에 대해 듣고 비엔나로 그림을 가져오게 하였다. 터어키와의 전쟁에서 희생당한 외젠느(Eugene)왕자로 인해 그러한 기적이 생겼다고 믿었다. 마침내 그림을 대성당으로 옮겨와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4—11. 파이프 오르간

서쪽 주랑위에 있는 대형 파이프


남서쪽 제단의 마리퐈츠 그림

보호망토를 걸친 성모



푸메린

아기예수와 성모마리아의 그림

오르간은 카우프만(Kauffmann)회사가 1960년에 완성했다. 10,000개의 관과 함께 125음전, 4층 건반, 페달 하나로 되어있다.

4—12. 입상들

대부분의 입상은 15세기의 것이며 특별한 기진자(교회에 그림, 유리등을 바치는 기증자를 말함)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4—12-1. 보호 망토를 걸친 성모

내진의 첫 번째 기둥위에 있다. S자 모양의 자세는 14세기 초반 고딕양식의 조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까치발위에 있으며 망토로서 중세기 양식의 옷을 입은 신앙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4—12—2. 하인 같은 성모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고딕양식 작품으로 1320년에 제작되었다. 전설에서 이 작품의 이름을 인용했다. 옛날 비엔나에 부자이며 고상한 공작부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자기집의 작은 제단에 아름다운 성모상을 모셔두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하녀가 절도죄로 고발을 당했다. 공작부인은 성모상 앞에서 성모에게 그녀를 도와 줄 것을 애원했다. 얼마 후 다른 하인의 집에서 보석을 찾아 내었다. 공작부인은 그 성모상을 대성당에 기증했다.

4—13. 지하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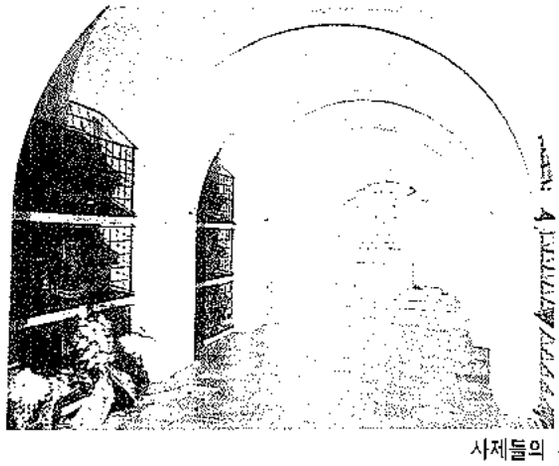
대성당 아래의 지하묘지에는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무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세운 수도원이나 성당에 묻히기를 원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창설자 로돌프(Rodolphe)4세의 무덤이 내진 아래에 있다. 17세기까지는 수 많은 왕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혔다. 17세기 중반 페르디난드(Ferdinand)3세 때에는 "공작의 무덤(1)"속에 넣어둔 유물항아리(2)속에 내장을 보관하고 죽은 사람들의 심장은 아우구스틴(Augustin) 성당에 묻었으며 시체는 카프친회 수도사들의 묘지에 묻었다. 내진과 좌우익랑 아래에 있는 무덤들은 17세기 때의 것이며 19세기 중반경에 복원공사를 했다. 주교의 무덤(3), 지하성당의 무덤(4), 교회참사위원들의 무덤(5), 귀중한 조각들이 있는 보석상인의 무덤(6)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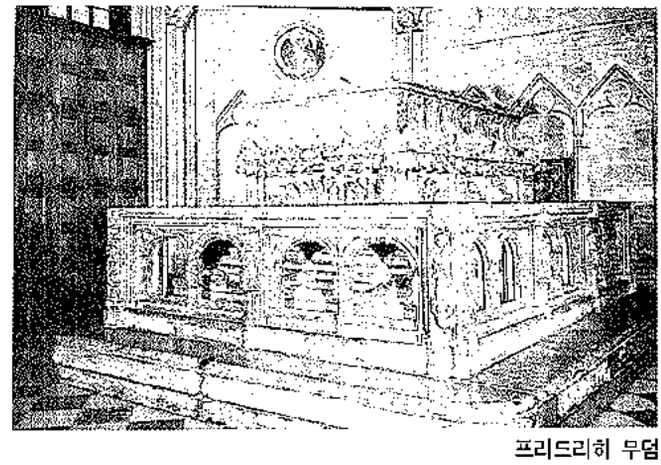
새로운 지하묘지(7)는 대성당의 오른쪽에 있는 성 스테판 광장 아래 있다. 이 묘지들은 Stephansfreithof를 양도한 후 1732년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대성당 가까이 묻히기를 원하는 비엔나 사람들의 바램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4—14. 푸메린(Pummerin)

오래전부터 기념적인 이 종은 이 이름을 갖고 있다. 황제 요셉(Joseph)1세는 1683년에 비엔나 근처에서 포획한 터어키군의 대포 180대로 1711년 첫번째 종을 만들게 했다. 원래 이 종은 성 스테판 탑속에 걸려 있었다. 종소리로 인해 탑이



사제들의 무덤



프리드리히 무덤

안톤 필그람의 초상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인드글라스

신동하기 시작했으므로 1867년 종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1945년 4월 12일 종각의 골조와 대성당의 다른 부분들이 화재를 입고 종은 붕괴되어 깨어졌다. 1945년 아홉 지방이 복원공사에 참여를 했다. 남부 오스트리아가 새로운 종을 기증했다. 이 종은 쌩 플로리안(St-Florian)용광소에서 주조되었다.

가. 종의 크기 : 추와 함께

1) 종의 무게 : 21.383 ton

2) 높이 : 294cm

3) 지름 : 314cm

1952년 4월26일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북쪽탑의 둥근 천정을 강화시킨 후 1957년 다시 북쪽탑에 종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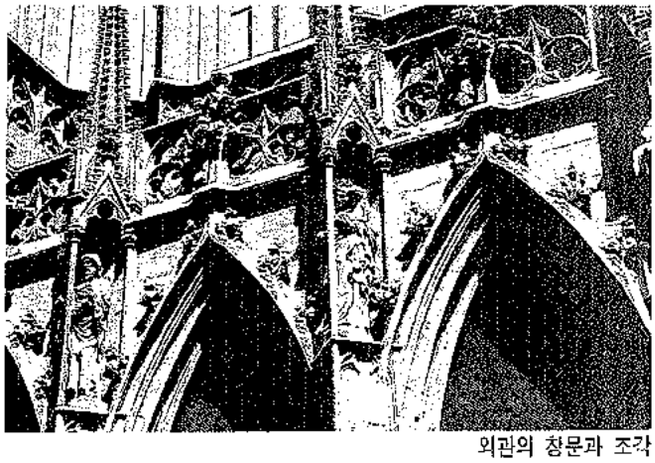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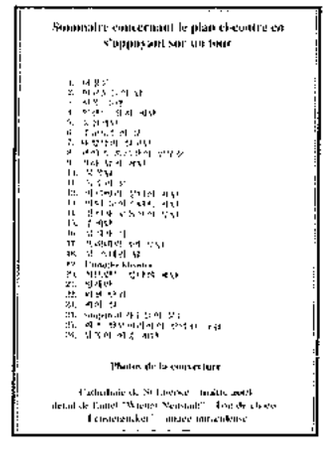
스테판 대성당은 평면에서는 단열 Aisle과 다각 Apse의 나진십자형으로서 Flying Buttress를 생략하였으며 Nave의 지붕이 Aisle의 것보다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붕으로 처리하여 지붕을 한 개의 Span으로 취급하였다는 것과 Clearstorium을 없앤 것은 그 당시까지도 로마네스크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대부분 고딕양식에서 쌍탑을 정면에다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성당에서만은 Transept에다 설계를 하고 또한 쌍탑중에서 북쪽의 탑은 미완성이지만 독일의 종탑과 같이 수직성이 강한 조각장식으로 되어 있고 첨두부는 석조의 투조식인 남쪽의 높은 탑 이외에 현관 좌우쪽에 8각평면의 4단 소탑을 세웠다는 사실은 커다란 특징이다.

이 외에도 거대한 다색지붕, 화려하게 장식한 탑들과 다양한 표현의 건축적 형태 등은 대성당의 아주 특이한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복원공사를 하여 수많은 석누조 첨탑 이외에도 500점의 꽃장식과 4000점의 당초 무늬장식을 다시 만들었으며, 별모양의 방사성의 아치로 된 궁륭, 풍부하게 장식한 기둥들은 새롭게 시선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성당은 종교적인 심오함과 성스러움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를 지탱하고 있는 벽 기둥은 지나치리 만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벽 기둥위에 있는 수많은 조각들, 설교단, 제단들, 기념유물 등은 대성당이 마치 성스러운 박물관 같은 인상을 준다.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로는 후기 고딕양식의 설교단이 있다. 안톤 필그람(Anton Pilgram)이 제작한 것으로 신부들의 흉상이 훌륭하게 조각되어 있고, 까치발 위에 있는 예술가의 자화상은 후세까지 그의 명성을 남길 정도로 깊은 감명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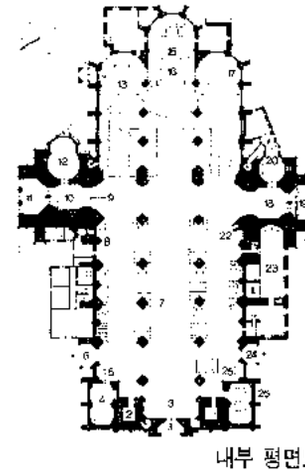
*프랑스어로 쌩떼띠엔느(St-Etienne)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독일어로는 스테판(St-Stephan)이라 일컫는다.

*다음(94. 12월호)에는 프로부살의 토르마(Tomar)성당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외관의 창문과 조각


Sommaire concernant le plan ci-contre en s'appuyant sur un tour

Plates de la couverture


내부 평면도

부산당감지구 아파트

Pusan-Shi Tanggam District Apartment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부산직할시 무주택시민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신한 공동주택 설계안을 공모,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경기는 일반공개 경기로 치뤄져 총 17개 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최우수작으로는 건원건축(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무영건축(안), 가작으로는 신한건축(안)과 신동아건축(안) 그리고 영지·성보·송현건축(안)이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심사내용과 당선작 중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싣는다.

□ 추진일정

—신문공고 : '94. 6. 24(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응모마감 : '94. 8. 19
—심　　사 : '94. 8. 24
—발　　표 : '94. 8. 25
—시　　상 : '94. 8. 29
—기본설계 : '94. 9. 10~10. 19
—실시설계 : '94. 10. 20~'95. 2. 16

□ 택지개발개요

—위　　치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당감동 산15—3번지 일원
—사업면적 : 308,400㎡(93,290평)
—대지면적 : 186,362㎡(56,374평)
—개발지표

구분	대지면적(㎡)	층수	용적률(%)	세대수(호)	비　고
계	186,362	고층	179	4,200	
1BL	56,137	〃	160	1,295	연면적 기준
2BL	45,936	〃	185	1,225	60㎡이하 90%이상
3BL	40,044	〃	170	980	60~85㎡ 10%이하

□ 공모개요

—목　　적 : 부산직할시 무주택시민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신한 공동주택 설계안을 널리 모집코자 함
—방　　식 : 일반 공개 경기
—사 업 명 : 부산당감지구 주택건설사업
—설계(감리제외)예산 : 3,069백만원(제작비 및 상금 포함)

□ 공모대상

—도시기반시설 : 308,400㎡
—주택건설

구분	대지면적(㎡)	계획세대수(호)	주택전용규모(평)	층　수
1블럭	56,137	1,242	12, 18, 25	25층이하
2블럭	45,936	1,108	15, 18, 25	〃
3블럭	40,044	888	15, 18, 25	〃
계	142,117	3,238	12,15,18,25	〃

□ 심사결과

—총 응모작품 : 17작품
—심사절차
- 1　차 : 6작품 탈락
- 2　차 : 6작품 탈락
- 3　차 : 가작 3점 선정
- 4　차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선정

—심사위원(9인)
- 위원장 : 안영배(시립대 교수)
- 위　원 : 이호진(건국대교수), 조성기(부산대교수), 이현호(중앙대교수) 여흥구(한영대교수), 장석웅(아도무건축), 이영희(희림건축), 이재옥(건설부건축계획과장), 김창익(대한주택공사 기술본부장)
- 선정기준
  ○건축 및 단지계획을 전공한 대학교수
  ○건축 및 단지계획 등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지자체 실무책임자 및 주공 임직원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3배수를 추천하여 선정

—입상작
- 최우수작(1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대표자 : 곽홍길)
- 우 수 작(1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 안길원)
- 가 작(3점) : 종합건축사사무소 영지 · 성보 · 송현(대표자 : 박춘근)
  (주)신동아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 문용규)
  (주)신한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 최경일)

—시상내용
- 최우수작(1점) : 상장 및 상패, 제작비 및 상금 (143백만원)
- 우 수 작(1점) : 상장 및 상패, 제작비 및 상금 57백만원
- 가 작(3점) : 상장 및 상패, 제작비 및 상금 각 28백만원

※최우수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용역계약 체결

□ 심사평

안영배

〈최우수작〉

—총 평
- 지형에 따른 변화있는 건물배치와 외부공간의 다양한 변화가 크게 돋보이며,
- 각 주동에서의 개방성과 조망이 극히 양호하면서 남향인 주동이 많다.
- 주동마다 제각기 특색있고 변화있는 율동적인 조형감각이 극히 양호
- 급경사를 이용한 테라스하우스의 배치

—보완사항
- 탑상형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특히 동북측단지)은 좀더 인동간격을 요하며,
- 남측단지에서 테라스하우스 남측의 연못은 경관상으로는 좋으나 관리유지상 문제가 있으므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우수작〉

1. 모든 棟이 塔型으로 되어 있어 개방성과 조망이 극히 양호하다.
2. 외부공간의 다양한 변화가 양호하다
3. 모든 주동이 탑형으로 되어 있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
4. 급한 경사지를 큰 대지 조성없이 주동을 배치한 점이 우수하다.

이동진

〈최우수작〉

—총 평
- 25%이상의 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저층, 고층의 아파트를 적절히 배치하여 조망과 경관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
- 경사지에 테라스하우스와 Deck를 이용한 주차장을 배치하여 건축구조물로 처리함이 우수하다.
- 지상주차보다 지하와 Deck를 이용한 주차 Space로 녹지와 Open Space를 많이 두었다.
- 가급적 남향배치를 많이하여 선호도를 높였다.
- 판상형의 주동이면서 High Rise 부위의 탑상형식의 조형성으로 자연녹지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보완사항
- 3단지의 건물배치가 남향에 가깝게 배치할 것
- 3단지의 인동간격을 넓혀 Privacy, 채광, 통풍, 사용성이 좋게 계획할 것
- 저층부를 조정하여 자연경사를 그대로 둔 부분을 많이 계획할 것
- 보행자의 접근(상부위치나 학교, 기타 동선)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와 편이성을 고려하여 계획바람
- 제3도시 고속도로와의 소음 문제 고려할 것

〈우수작〉

1. 급경사지를 적절히, 최소한 자연훼손을 덜하는 Group형, Tower배치 기법이 우수하다.
2. Pedestrian의 도보 동선이 새로운 계획으로 시도
3. 개별동의 조형적 형태구성이 새로운 아파트의 외관을 제시하였으나,
4. 너무 단조로운 형태 구성이다.

조성기

〈최우수작〉

—총 평
- 지형특성을 잘 살려 고저가 심한 부분에 테라스하우스와 인공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배려가 돋보인다.
- 배산으로서의 지형에 조화되도록 판상형의 주동을 배치하였으나 판상형이라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유기적인 영역성을 확보하여 마치 전통적인 가로를 연상시킨다.

—보완사항
- 지지대에 인공호수를 조성하도록 계획하였는데 단지조성 이후의 유지관리계획이 확고하여야 할 것이다.
- 25층 고층부와 인접된 중층부 옥상은 동선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놀이터를 비롯한 퍼블릭 스페이스의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우수작〉

· 아파트의 주동계획을 탑상형하였으나 向에 대한 고정관념때문에 어려움이 엿보이나 주어진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이는 승강기 타워의 도입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아파트의 판상형 전형성을 씻으려는 계획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이현호

—총 평

〈최우수작〉

· 자연경관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특히 물의 처리가 뛰어나다.
· 건물매스의 변화가 다양하여 전체적인 건물군의 변화와 자연대지 조건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고,
· 1단지, 2단지 사이의 주도로에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와 낮은 테라스형 아파트의 배치가 휴먼스케일에 보다 알맞는 배치이다.
· 판상형을 거의 배제하고 아파트의 높낮이를 적절히 조합한 융통성이 보인다.
· 전체적으로 어려운 대지조건과 환경을 가장 많이 고려한 작품이다.

—보완사항

· 아파트 높낮이의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므로 완화가 필요하다.
· 일부 인동간격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적의 조절요

〈우수작〉

—탑상형이 건물군의 주를 이루고 있어 통일된 균제감을 주고 개방감이 있으며, 탑상형 자체의 입면구성이 창의적인 점이 돋보인다.
—기존대지의 변형을 최소로 하여 공사비의 절감 및 탑상형의 군집화로 기존 대지를 자연 그대로에 가장 가깝게 보존했다.
—보행인에 대한 고려가 돋보인다.
4. 탑상형 중심의 경관이 뒤의 산과의 경관상부조화를 이루고 있음

여홍구

〈최우수작〉

—총 평

· 자연환경의 이용이 타작품보다 우수하였다. 특히 지형의 급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배치를 통해 외부공간을 넓게 사용하였다.
· 자연우수를 모아 물을 단지내로 끌어들여 고층 아파트가 갖는 메마른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이 우수하다.
· 단지 남측에 저층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하였고 또한 중심도로에 상가와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보다 친밀한 단지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였다.
· 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고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지형을 이용하여 계획되어 공사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 특히 단위 주동건물의 형태와 세대간 배열이 Simple-variety를 함께 하고 있다.

—보완사항

· 법규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건물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다양한 점은 시각적인 불편을 준다.
· 도시고속도로변의 소음 Control이 필요하다.

〈우수작〉

· 지형의 활용 등이 우수하였고 공공외부공간의 배치가 매우 훌륭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Tower형으로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단조로운 감이 있고 도로의 형태가 지나치게 굴곡이 많은 것이 단점이었다.

이영희

이번 부산당감지구 주택건설 설계경기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설계용역비와 입선작에 대한 상금 책정면에서 정부가 1994년 2월 1일에 제정 공포한 건축설계경기 지침기준에 접근하려고 노력한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또한 공기관으로서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본 당감지구는 경사도가 30%에 가까운 급경사 구릉지로서 단지 구성이 매우 난해하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발표하지 못했다는 면이 있었지만, 본 Project와 같은 경우는 각 심사위원이 사전에 입지현황에 대한 검토 연구가 수반되었더라면 보다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는다.

또한, 이 경우는 기술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출품작 공히 절개지의 정도, 접근 도로의 경사도 등 단지조성의 Human Scale화에 대한 요소들을 읽을 수가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감각적인 측면만 심사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우수작〉

—총 평

· 주동군의 조형적 형태와 자연 그리고 기존 도시의 위계질서간에 친근한 대화를 유발케하는 작가의 성숙된 시도가 우선 높이 평가된다.

· 판상형 평면이면서 등고선에 순응한 선형의 적절한 변화와 높낮이의 의도적인 조정이 그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 15m도시계획 도로변의 테라스하우스 도입은 고저차가 극심한 절개지를 코뮤니티의 Human Scale로 순화할 수 있는 값진 환경요소로 평가되어야겠으며 자연조건의 기존 수계질서를 적극 도입한 점이 우수하다.

—보완사항
· 2단지 최상단 단지내 도로와 터널입구 도로와의 연결이 지형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며,
· 1단지의 제3도시고속도로와 평행하여 주동이 배치됨에 따른 도시교통 소음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있어야 하며,
· 3단지 하단부에 주동군이 너무 밀집됨으로 인한 폐쇄공간에 대한 해결책 강구가 있어야 하겠다.

〈우수작〉
· 급경사 구릉지를 감안 주동군을 7개의 「그룹핑」으로 인공 대지 개념을 도입 Deck화하고, 수직·입체적으로 교통 및 보행접근을 해결함으로서 자연상태를 가급적 많이 보존할 수 있겠다는 점과 단지내의 극심한 고저차로 인한 보행동선의 난이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 입체적 기법으로 「어프로치」한 점, 탑상형 개별주동의 조형적 형태의 세심한 처리 등은 새로운 시도로서 비중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탑상형 위주로 인한 획일성에 대한 거부와 단위세대가 동서향이 많았다는 것이 흠이 되었다.

장석웅

〈최우수작〉
—총 평
· 난해한 대지를 잘 소화했다.
· 통렴상의 아파트 파사드를 조형적인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변화를 준 것이 우수하다.
· 후면 산의 우수를 집수하여 인공 연못을 만들고 메마른 아파트단지에서의 메마름을 해소함이 돋보인다.

—보완사항
· 법규상 저촉부분 해결을 요하며,
· 도시고속화 도로에서의 소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수작〉
· Sky line과 후면 녹지의 경관을 고려한 Tower식의 아이디어가 매우 돋보이나 형태상의 변화를 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이재욱

〈최우수작〉
—총 평
· 단지내의 동선이 비교적 명료해서 주거단지안에서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한 점이 돋보인다.
· 타워형의 고층아파트와 저층의 테라스하우스가 높낮이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은 기존의 주공아파트 단지 설계 개념의 틀을 뛰어넘는 참신한 착상이다.
· 우수처리를 분명히 하였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조그만 방지를 만든 조경공간도 훌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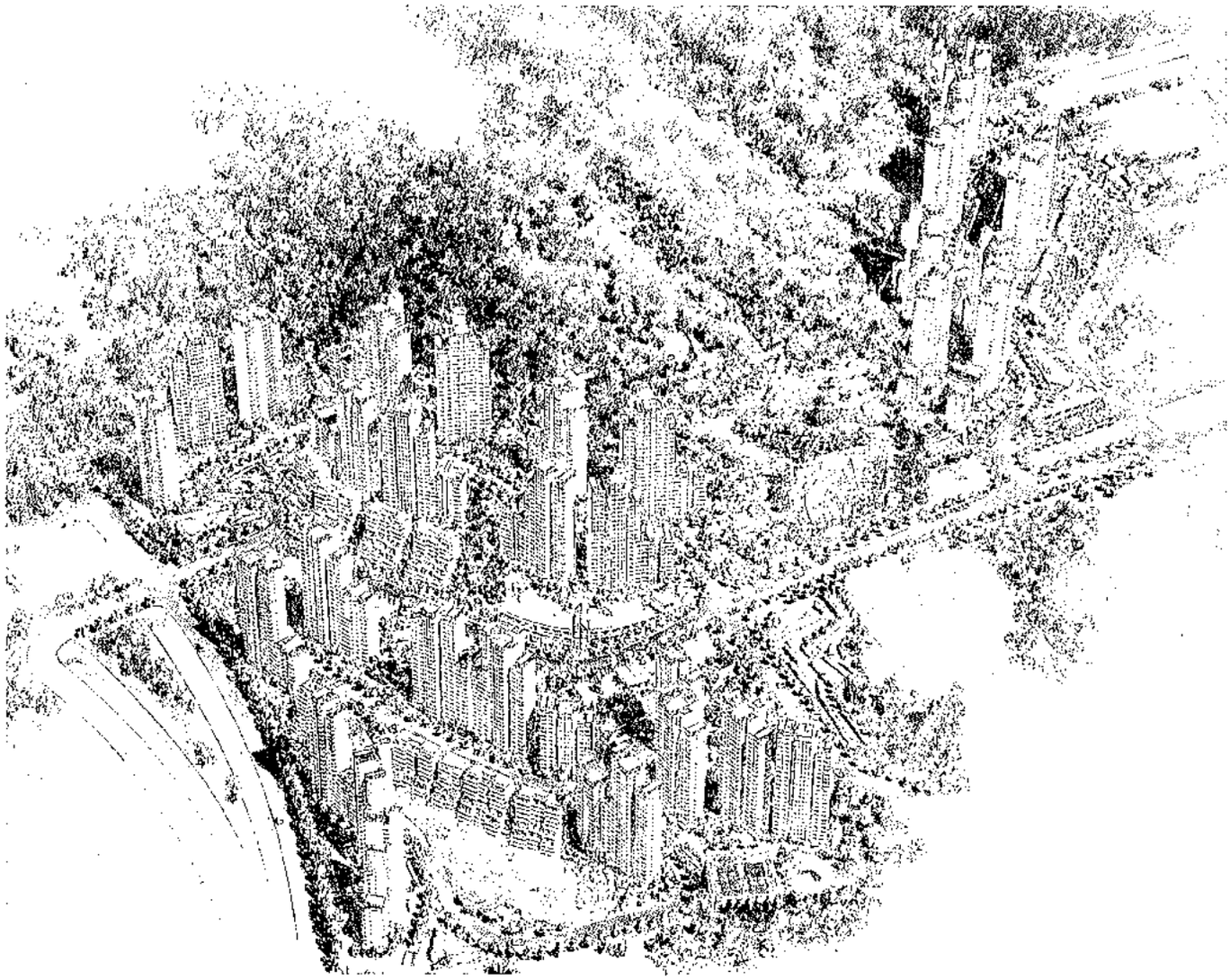
—보완사항
· 인동간격 등의 일부 법적사항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며,
· 자연녹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와 단지내 동간 이격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시설계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고층 아파트에 함벽시킨 저층아파트는 일조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작〉
· 타워형의 배치가 시원스럽게 단지를 구성하여 주공아파트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유수처리계획 등의 아이디어도 참신하였다.
테라스하우스의 배치도 도시경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았으나 인위적인 연결 동선 등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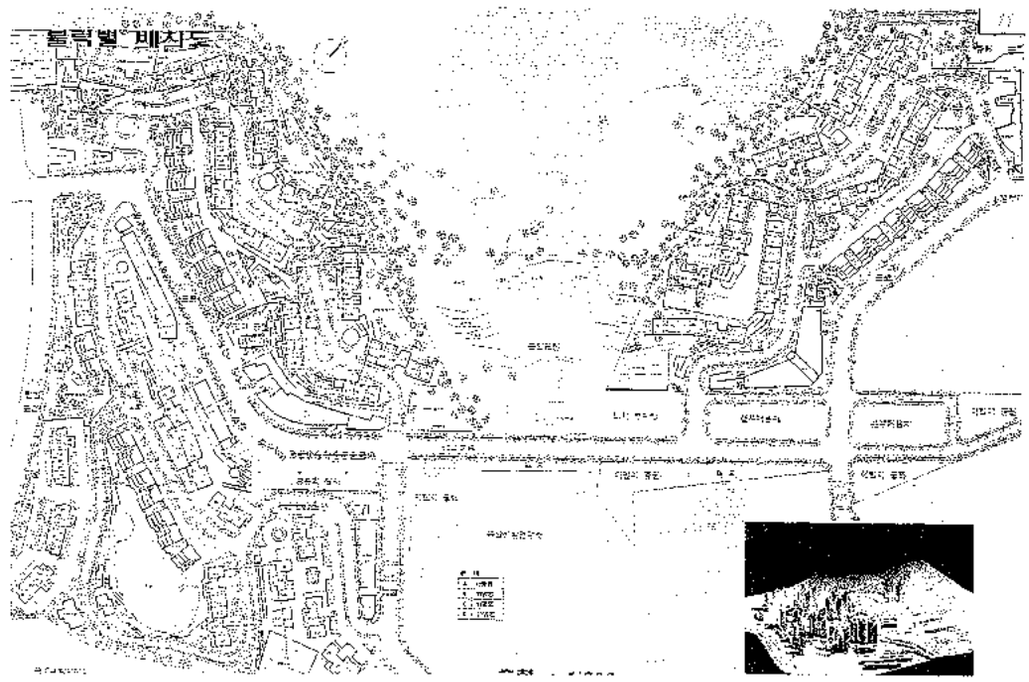
김창익

〈최우수작〉
· 건물배치가 자연스럽다.
· 주동계획이 외관과 입면 층수변화가 우수하다. (Linear와 Tower형의 절충식)
· 저층부 도로변에 타운하우스 도입이 단지계획 기법상 지형을 잘 이용하였다.
· 물을 이용한 연못 등의 설계기법이 좋았다.

〈우수작〉
· 경관과 조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단지계획이 좋았으나 동일 동으로 배치한 것이 단조로운 감이 있다. 외부 보행동선을 지형을 고려, 수직 처리가 적극적인 설계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연지면을 최소한으로 개방토록 설계에 고려한 점이 좋았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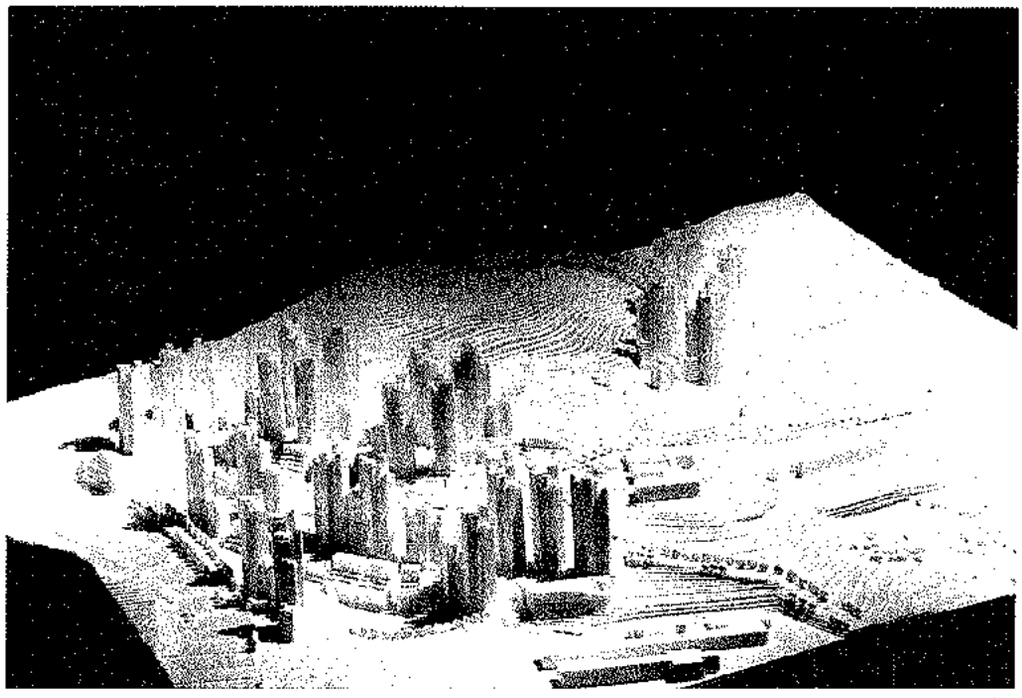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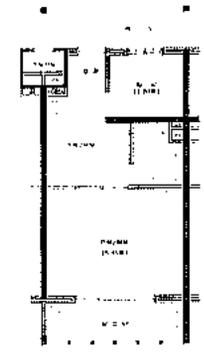
1단지
대지면적 / 56,137㎡
건축면적 / 8,737.88㎡
연면적 / 95,959.78㎡
건폐율 / 15.56%

2단지
대지면적 / 45,936㎡
건축면적 / 9,230,480㎡
연면적 / 108,815.814㎡
건폐율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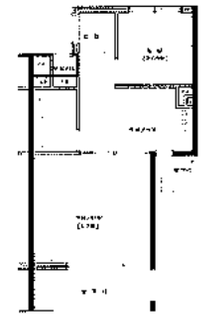
3단지
대지면적 / 40,044㎡
건축면적 / 8,965.277㎡
연면적 / 88,534.169㎡
건폐율 / 22.39%
계획담당 / · 최홍남, 조재철, 천서향
· 민성진, Norman R Hi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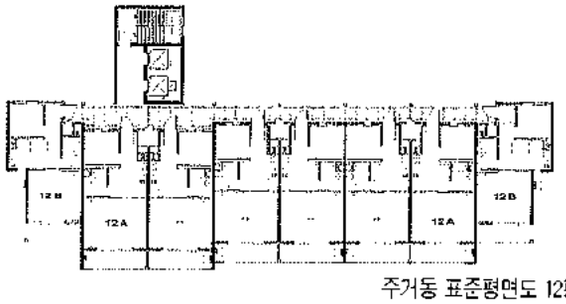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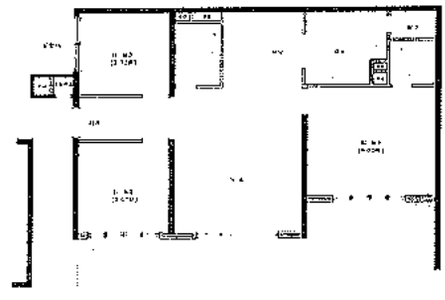
12평형-A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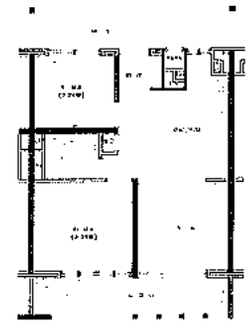
12평형-B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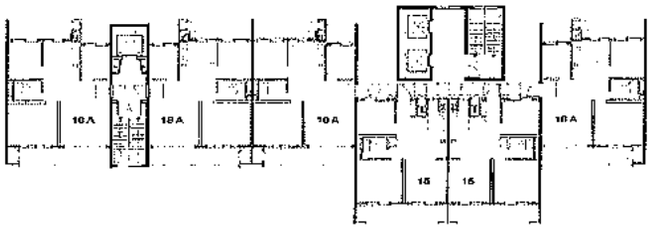
주거동 표준평면도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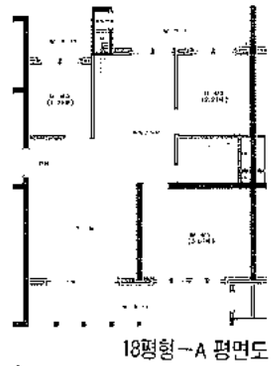
25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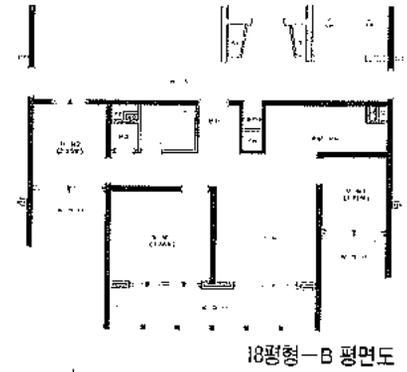
15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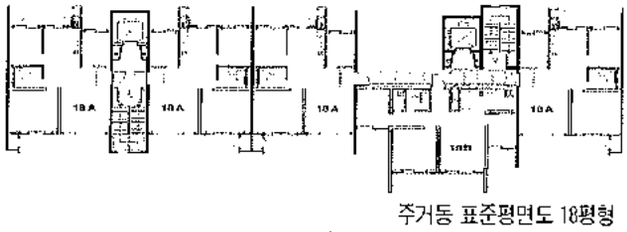
주거동 표준평면도 15+18평형



18평형-A 평면도



18평형-B 평면도



주거동 표준평면도 1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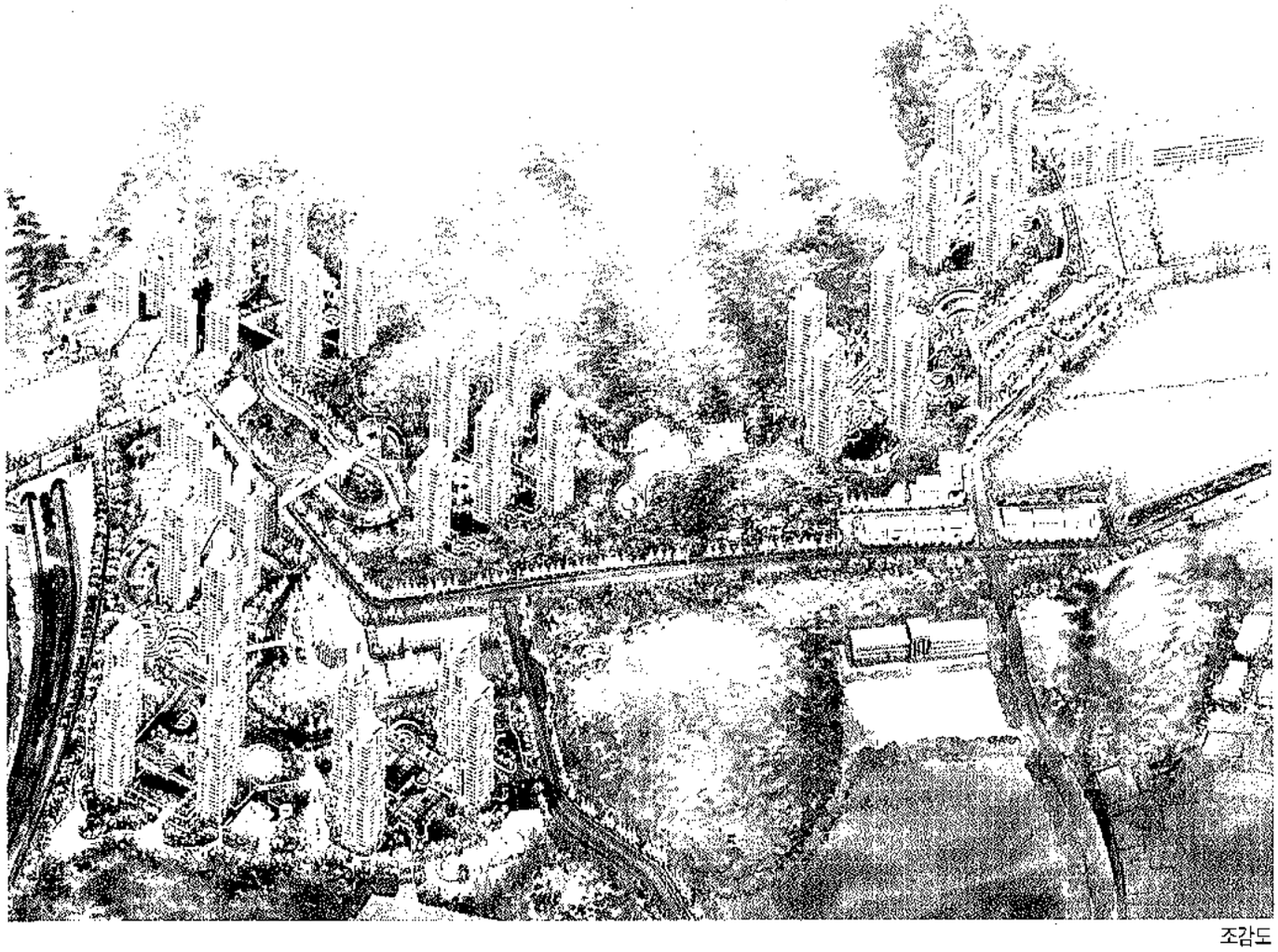
인간과 지구상의 생명체들에 필요한 천연자원(Natural Resource)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며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개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들도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의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악한 환경에서 보다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과 사회적인 필요가 충조되었을 때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나아진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이번 현상설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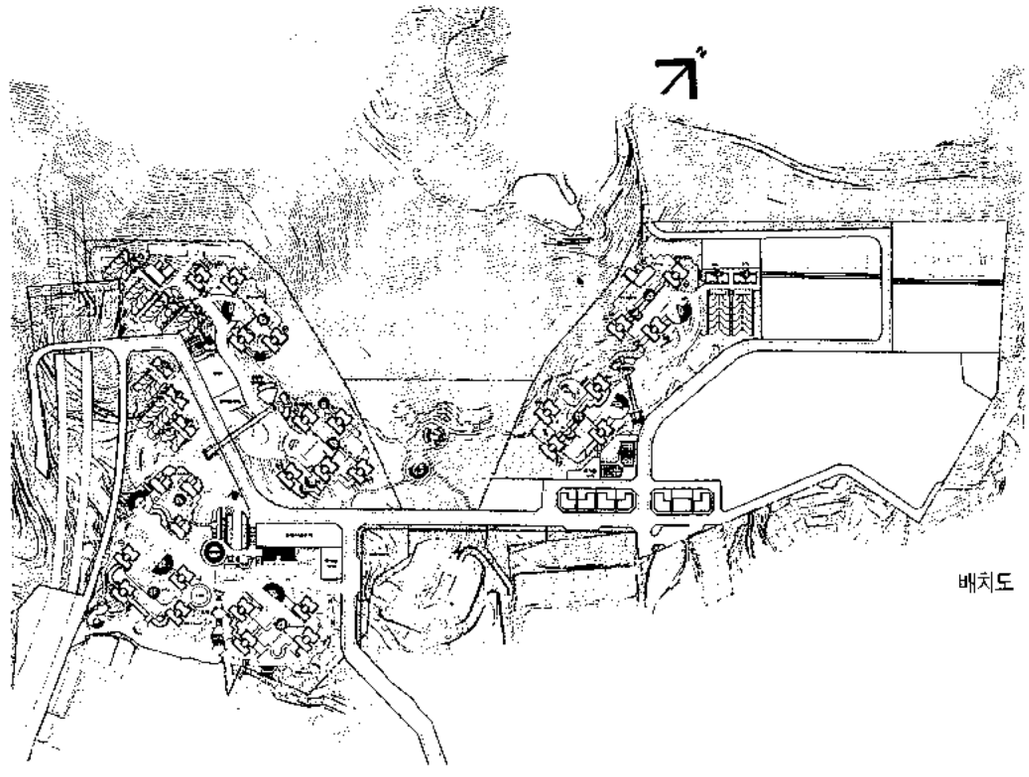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의 위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시 처럼 부산 역시 대규모 집단 거주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은 도시 주변의 야산지대이다. 경사가 심한 지역이지만 높은 땅값과 용적률 때문에 고층(Tower) 타워형의 주거형태가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기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잘 운영되지 않는 대규모 주거 단지 건설이 자연환경에 주는 부담을 쉽게지나쳐 버려서는 안된다.

제 지구로 구획된 142,000 평방미터의 기존의 땅에는 나무들, 개천,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곤충들이 있는 야산이다. 3,200 채의 저소득층 아파트와 상가, 유치원 부대시설 및 운동시설과 작은 호수 등이 포함된 이번 설계안의 큰 목표는 도시와 자연환경과의 결합이다.

이번 계획에서 우리는 자연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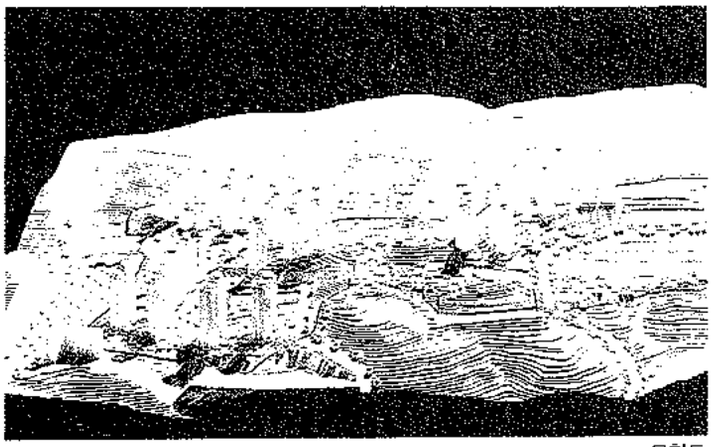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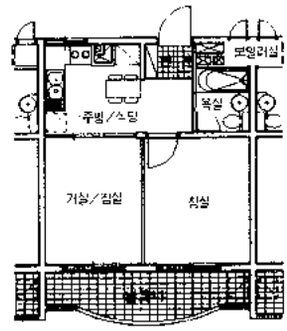
1단지
대지면적 / 56,137㎡
건축면적 / 6,899㎡
연면적 / 93,051㎡
건폐율 / 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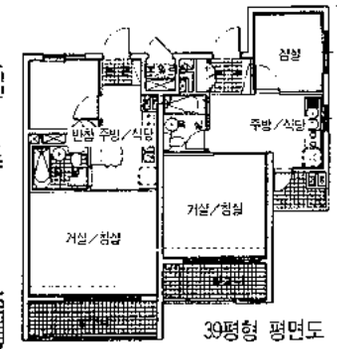
2단지
대지면적 / 45,936㎡
건축면적 / 5,567㎡
연면적 / 86,705㎡
건폐율 / 12.12%

3단지
대지면적 / 40,044㎡
건축면적 / 4,885㎡
연면적 / 69,536㎡
건폐율 /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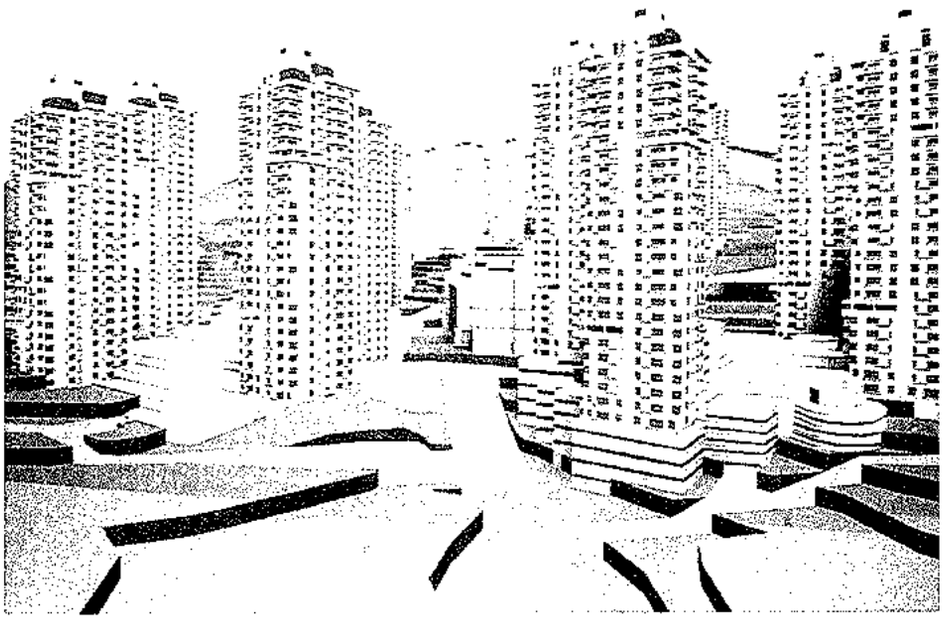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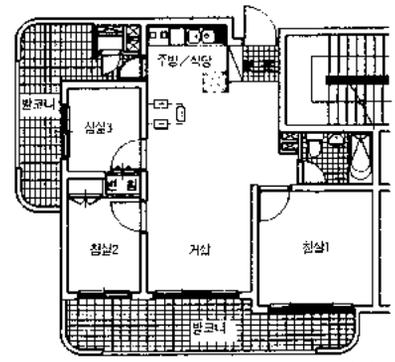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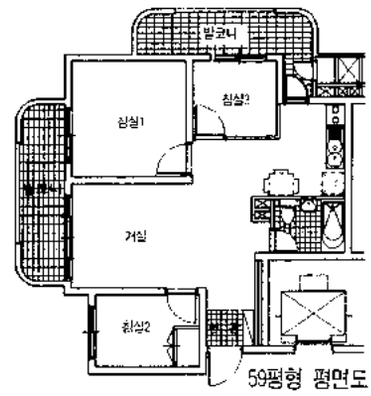
39평형 평면도



CAD시뮬레이션



59평형 평면도



59평형 평면도

양호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 백양산과 선암사를 동측, 북측에 두고 있는 이번 부산당감 현상설계 계획안에서는 무엇보다 대지내외의 환경보존과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듈식 군집배치라는 새로운 단지형태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눈에다 모를 심듯이 대지안에 최대한 기존수목과 지형을 살리면서 군집(Grouping)을 심는 개념으로 풍부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탑상형 아파트 3~5개동의 군집 배치는 자연훼손면적을 최소화하여 토지조성비의 절감 및 토지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경사지형에 유리한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였다. 또한, 덱크(Deck)식의 시설 집약 배치는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물이며, 급경사 극복을 위해 브리지(Bridge)를 통한 보행 수직동선, 차량동선을 도입하여 전망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단지내부 도로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최소화시켰다.

주동계획의 경우, 각 동별의 Identity 부각을 위한 동네개념을 도입하여 주거군(Grouping)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각 주거동을 주거군(Grouping)으로 형성하여 다른 주거군과 구별하였으며, 부지조건에 순응하는 각 주거동의 남향배치로 합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편리성 및 독립성을 극대화시켰다. 각 주거군별로는 이용거리, 안전성 등을 고려한 관리단위를 구분하여 관리동 및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개별상가(복합건물)의 도입과 단지 진입부에 상가 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동일하고 획일적인 외관을 탈피하여 리드미컬(Rythmical)한 입면계획으로 인지성을 강하게 제공하였고, 지형, 일조, 조망, 풍향 등 계획대지 조건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공간계획을 탈피하였다. 그리고 평형배분의 다양화, 층고 및 입면 스케일의 다양화, 그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다양한 발코니 형태, 개성적인 옥상정원계획 등 변화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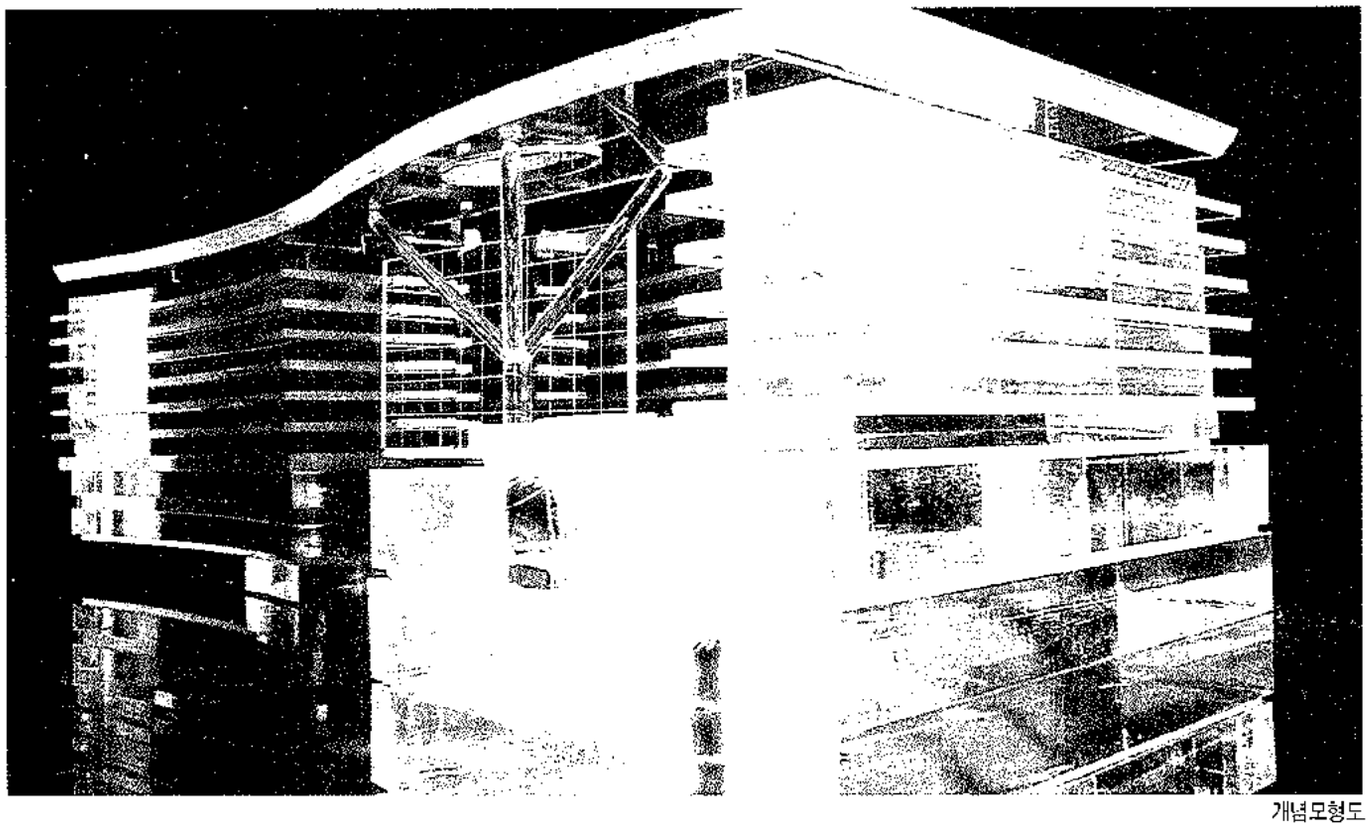
더 나아가, 소형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병합기능형 주거방식의 도입과 일조조망의 확보, 가족주거에 대응하기 위한 메뉴(Mene)형 주거방식, 서비스 공간을 적극 부여한 확장형 주거방식 등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대응하여 평면을 구상하였다.

주차계획에 있어서는, 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형을 고려한 램프(Lamp)의 도입으로 자동차 동선의 처리를 입체화시켰다. 그리고 다단식 주차를 경사지에 순응시키면서 자연환기를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반을 이용함으로서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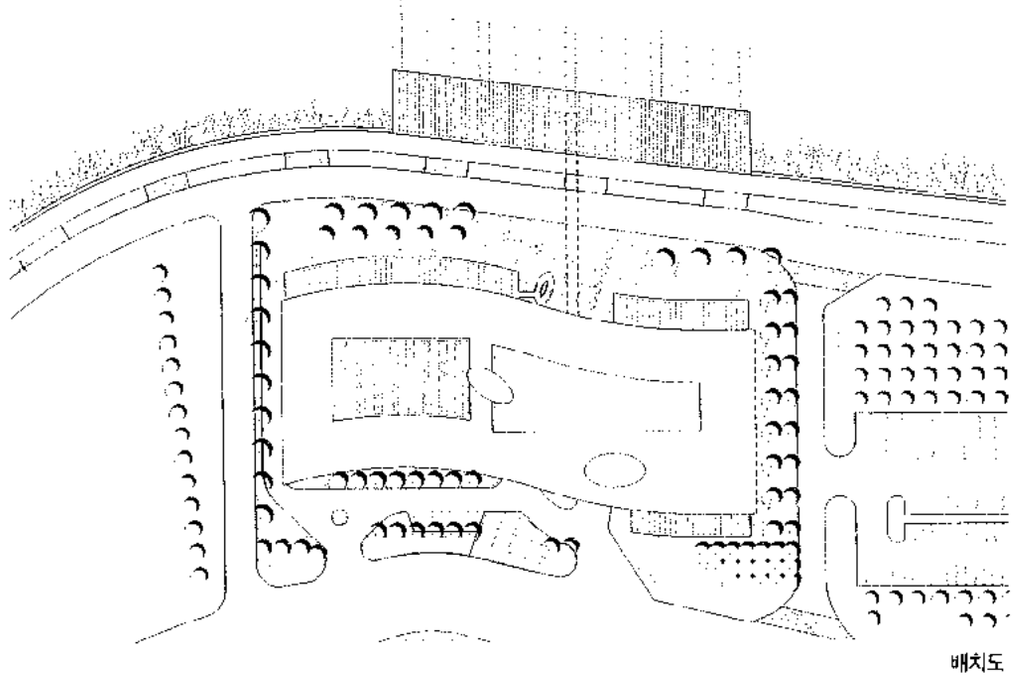
제주호텔

대한교원공제회에서는 기존의 서울, 설악, 경주 교육문화회관과 연계운영하므로써 회원의 복지 수혜를 확충 하고자 제주지역 호텔건립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9월 16일 발표하였다.

총 16개 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간삼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정림건축(안)이, 가작으로는 금성건축(안)과 아도무건축(안)이 각각 선정 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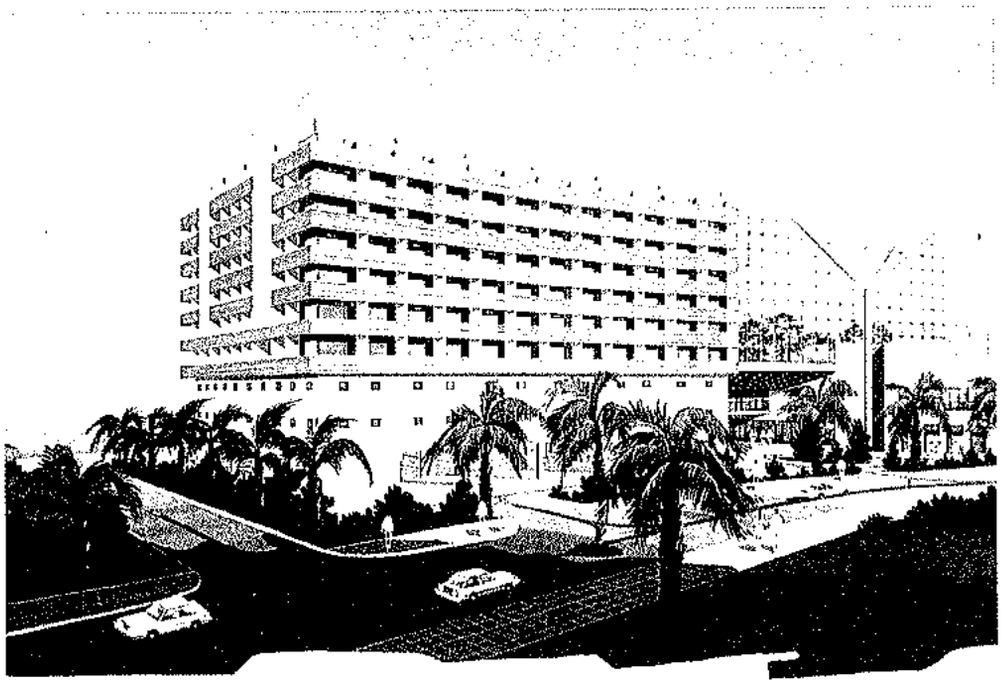


개념모형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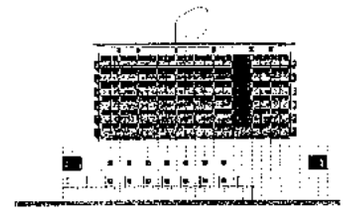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255번지 (탑동 매립 지구내)
대지면적 / 11,524㎡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방화지구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9층
건축면적 / 6,310㎡
연 면 적 / 31,954㎡
건 폐 율 / 54.8%
용 적 률 / 189.67%
구 조 / 철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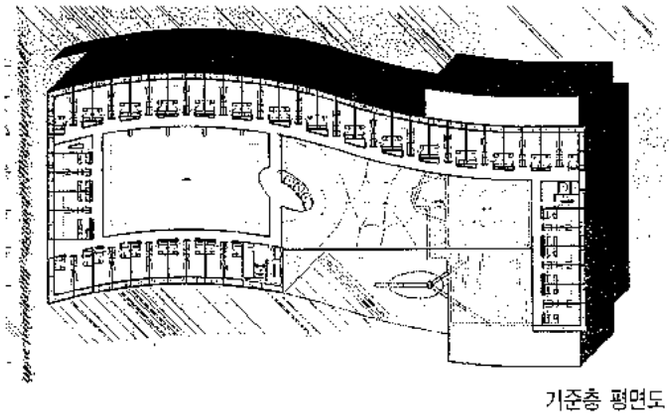
투시도

형태(IMAGE)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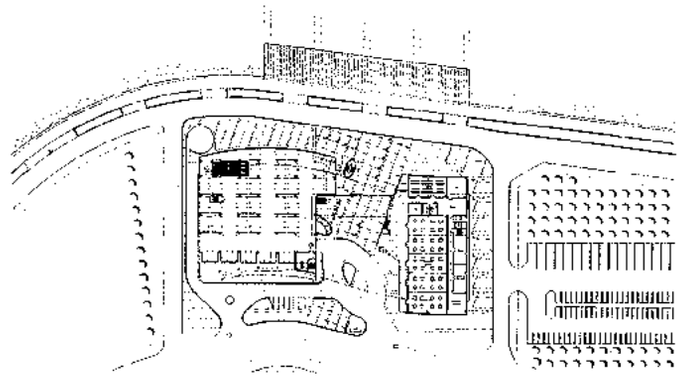
해안의 유연한 흐름과 도심의 기계적 방향성을 Design 모티브로 하여 요소의 절제를 통한 새로운 lamge 창조를 시도하였으며, 제주민가에서 나타나는 결집형태의 공간대비는 Hotel의 진입부에 있어 절단과 변형의 원형으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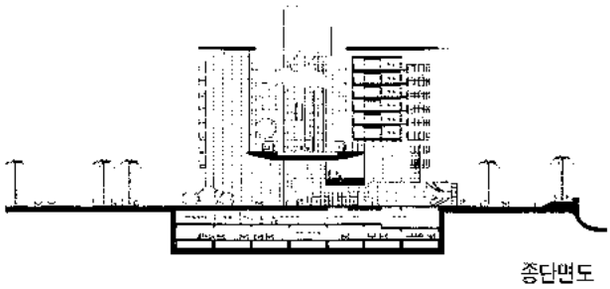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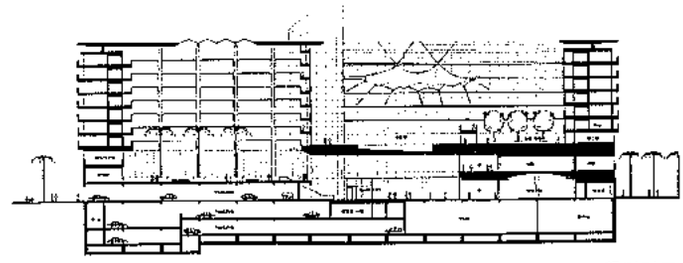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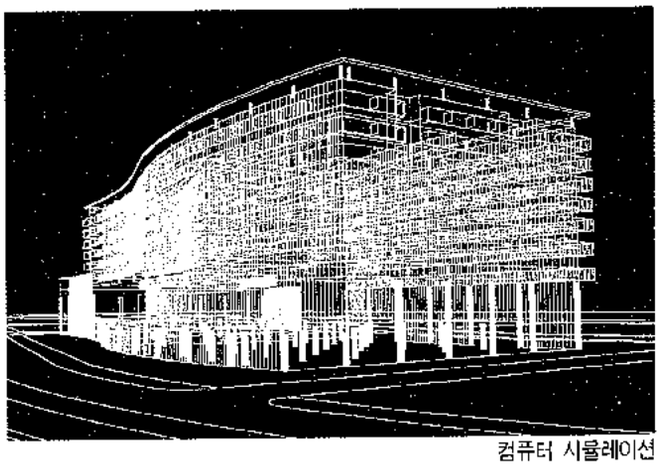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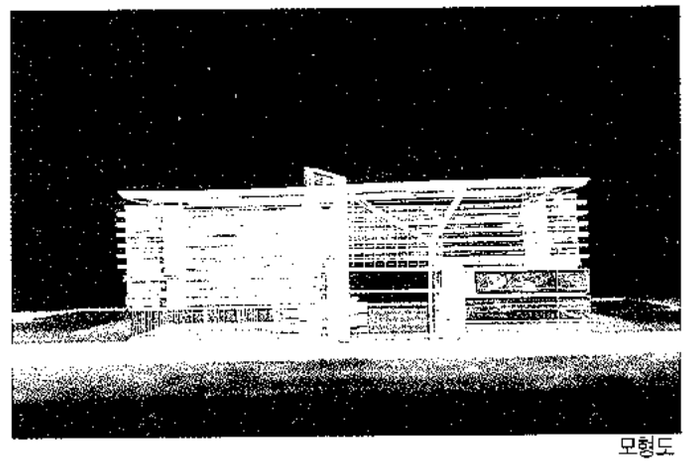
종단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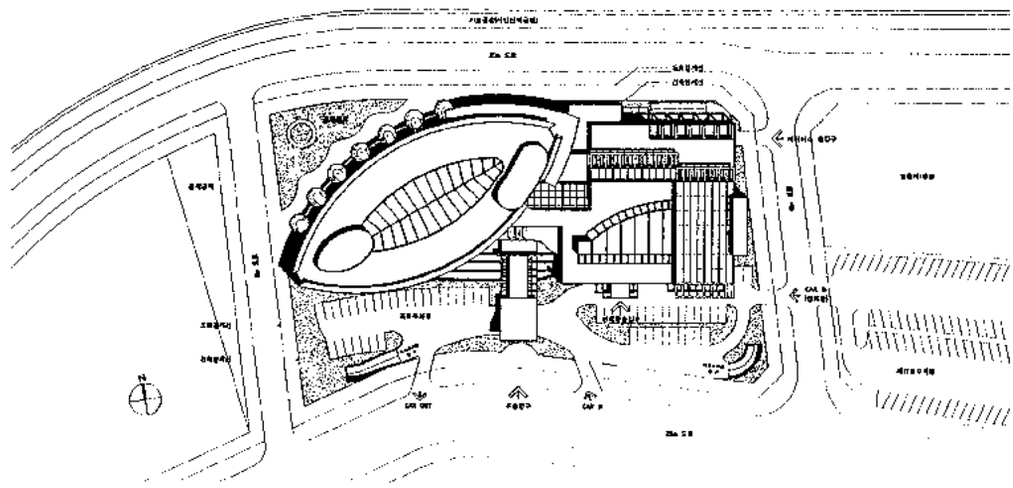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도

조감도



배치도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255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11,524㎡
규　　모 / 지하2층, 지상11층, 300객실
건축면적 / 4,939㎡
연 면 적 / 32,251㎡
건 폐 율 / 42.9%
용 적 률 / 2,04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제주 호텔 프로젝트의 계획부지는 바다에 접해있고 매스컴에서 오랜기간동안 다루어졌던 「탑동매립지」에 1차적 자리매김으로 계획되어지는 호텔이기에 많은 설계자들의 설레임과 의욕을 갖게하기에 충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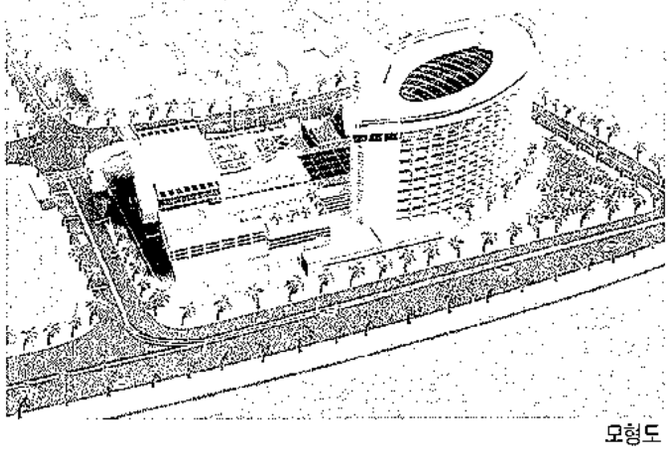
도시 설계기반시설이 완료된 매립지 전체의 도로포장, 가로등, 조경식수 등은 국제적 관광해상공원을 갖는 도시가 들어서기에는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으로 근접한 바다와 자연요소와는 너무도 조화되지 않은 인공구조물이었다.

또한 소바도시를 형성하는 기존건물들의 소실된 도시적 Context는 오히려 독창적이며 신도시에서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한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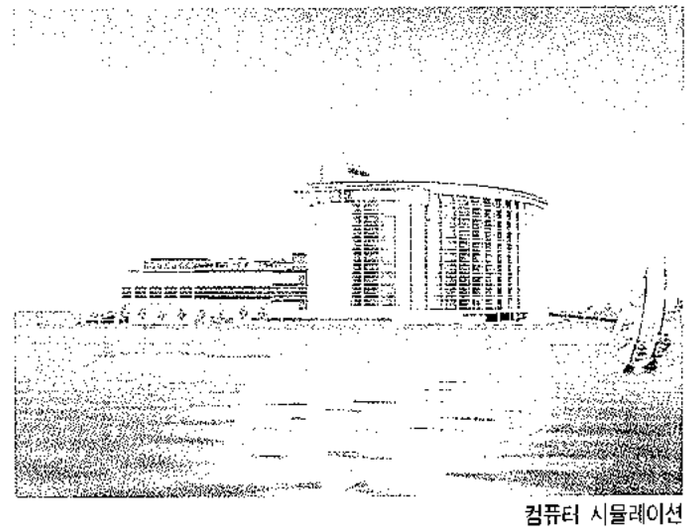
설계지침의 "특 1급의 국제적 리조트호텔"이 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등급심사기준 이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간적 특성을 제안한다.

아뜨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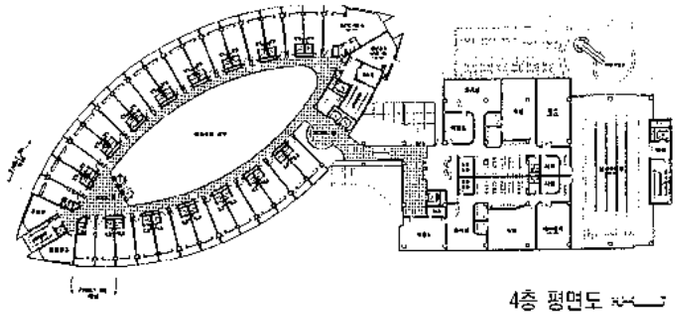
바다쪽 순환도로를 따라 만곡된 타원의 단순한 조형은 기능상 객실 Zone으로 분리되며 바다조망을 극대화하였다. 대규모 천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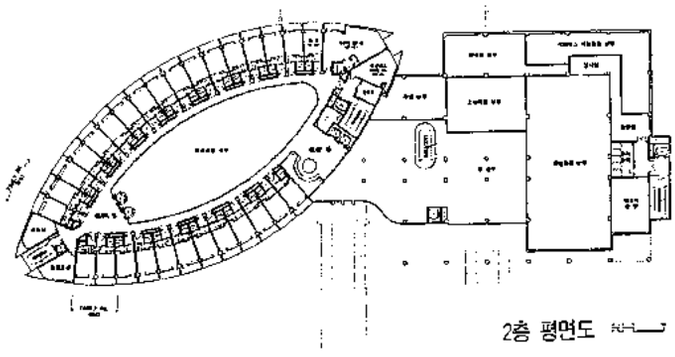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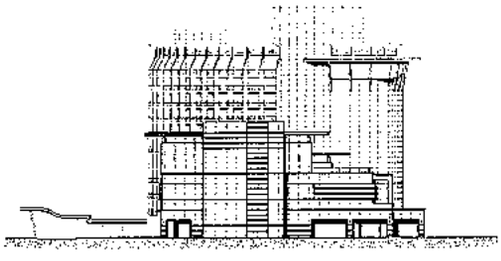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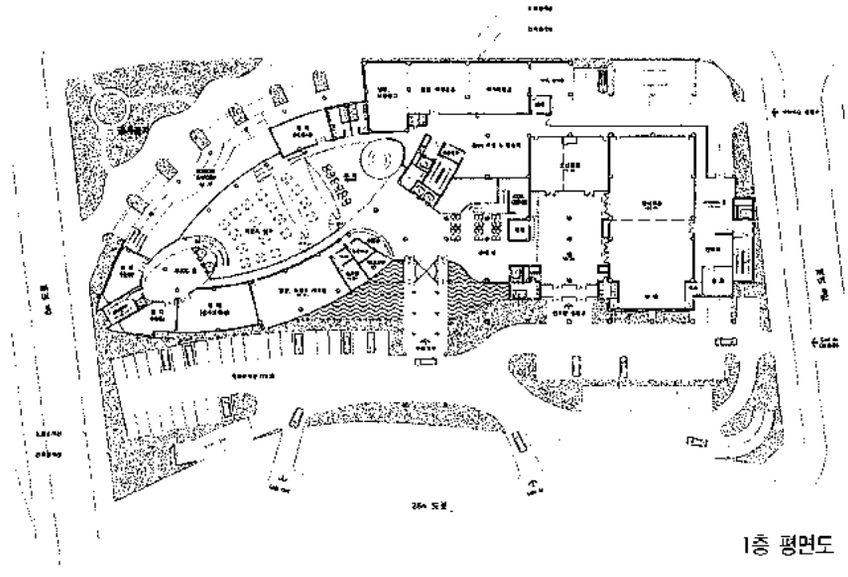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서측입면도



1층 평면도

오픈된 아뜨리움을 타고 1층 라운지와 로비로 내려와 특 1급 손님의 품격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국적 분위기의 야자수를 바라보며 전망용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풍부한 공간감의 라운지는 은은한 커피향과 그랜드피아노의 연주와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줄 것이다.

수공간

호텔로 진입하는 열주공간은 조각분수를 겸한 연못위에 데크로 놓여져 방문객들은 물위로 호텔을 진입하는 경험을 첫인상으로 갖게 된다.

또 선큰공간에 제주의 폭포를 Modify하여 벽천을 두고 전면공개공지를 라운지로 끌어들이며 부족한 외부정원을 공유한다.

옥외테라스

저층부는 기능별로 완벽한 영업 Zone의 성격을 갖게되는데 바다쪽을 Set Back하여 제공되는 옥상부분에 3층 지붕에서는 옥내수영장과 연계된 옥외 Pool과 일광욕을 겸한 휴게데크로, 4층 지붕에서는 숙박객들의 옥외전망용 휴게정원으로 이용된다. 이곳에서 저녁바다바람에 걸드린 칵테일 한잔과 바다위로 한가로이 날으는 갈매기와 낙조를 바라보며 신비의 섬 제주를 더욱 만끽하게 된다. 옥상에 디자인된 파고라형 구조물은 건물벽과 바닥에 깊은 그림자를 제공해주며 외부조형언어로 완결되어 더욱 인상적인 호텔로 기억될 것이다.

1994년 8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 9백4만8천5백9십9㎡보다 35.9%(3백2십4만9천1백1십5㎡)증가한 1천2백2십9만7천7백1십4㎡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8월 누계 7천8백2십만9천7백3십3㎡보다 24.2%(1천8백9십만9천7백6십6㎡)증가한 9천7백1십1만9천4백9십9㎡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7월분 1천1백1만1천1백8십㎡보다 11.7%(1백2십8만6천5백3십4㎡)증가한 1천2백2십9만7천7백1십4㎡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 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250,282	2,366,147	1,115,865	89.2%
	부 산	357,604	606,007	248,403	69.5%
	인 천	438,811	538,380	99,569	22.7%
	대 전	196,050	359,935	163,885	83.6%
	경 기	2,345,119	3,544,359	1,199,240	51.1%
	충 북	414,197	422,960	8,763	2.1%
	충 남	321,401	645,059	323,658	100.7%
	전 남	266,847	285,947	19,100	7.2%
	경 북	682,615	1,261,924	579,309	84.9%
	경 남	657,236	906,184	248,948	37.9%
감소지역	대 구	761,828	593,157	(168,671)	－22.1%
	광 주	251,151	139,798	(111,353)	－44.3%
	강 원	450,917	319,811	(131,106)	－29.1%
	전 북	544,072	290,523	(253,549)	－46.6%
	제 주	110,469	17,523	(92,946)	－84.1%
합 계		9,048,599	12,297,714	3,249,115	35.9%

全國圖書申告概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7월분	8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680,193	874,562	194,369	28.6%
다 세 대 주 택	304,721	373,433	68,712	22.5%
연 립 주 택	126,130	129,662	3,532	2.8%
아 파 트	5,012,324	5,567,390	555,066	11.1%
근린생활시설	1,320,917	1,318,243	(2,674)	－0.2%
종 교 시 설	81,165	82,793	1,628	2.0%
의 료 시 설	18,415	131,060	112,645	611.7%
교육연구시설	394,407	428,995	34,588	8.8%
업 무 시 설	339,798	558,003	218,205	64.2%
숙 박 시 설	147,687	178,636	30,949	21.0%
공 장	1,513,171	1,097,670	(415,501)	－27.5%
기 타	1,072,252	1,557,267	485,015	45.2%
계	11,011,180	12,297,714	1,286,534	11.7%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8月分)

구분 /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023	1,138	1,250,282	1,185	1,207	2,366,147	162	69	1,115,865	89.2%	
부 산	854	956	357,604	768	902	606,007	(86)	(54)	248,403	69.5%	
대 구	1,189	2,099	761,828	1,280	1,285	593,157	91	(814)	(168,671)	－22.1%	
인 천	622	625	438,811	425	425	538,380	(197)	(200)	99,569	22.7%	
광 주	291	343	251,151	254	267	139,798	(37)	(76)	(111,353)	－44.3%	
대 전	329	360	196,050	273	281	359,935	(56)	(79)	163,885	83.6%	
경 기	1,663	2,409	2,345,119	1,680	2,138	3,544,359	17	(271)	1,199,240	51.1%	
강 원	648	793	450,917	510	603	319,811	(138)	(190)	(131,106)	－29.1%	
충 북	653	863	414,197	467	548	422,960	(186)	(315)	8,763	2.1%	
충 남	493	516	321,401	397	430	645,059	(96)	(86)	323,658	100.7%	
전 북	336	416	544,072	332	387	290,523	(4)	(29)	(253,549)	－46.6%	
전 남	485	630	266,847	329	411	285,947	(156)	(219)	19,100	7.2%	
경 북	718	1,004	682,615	688	1,014	1,261,924	(30)	10	579,309	84.9%	
경 남	1,043	1,427	657,236	954	1,139	906,184	(89)	(288)	248,948	37.9%	
제 주	176	240	110,469	87	91	17,523	(89)	(149)	(92,946)	－84.1%	
합 계	10,523	13,819	9,048,599	9,629	11,128	12,297,714	(894)	(2,691)	3,249,115	35.9%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8月分)

구분 / 건축시회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23,736	24,439	12,286,655	12,722	13,156	13,525,211	(11,014)	(11,283)	1,238,556	10.1%	
부 산	7,576	9,570	5,865,279	7,431	8,444	6,455,021	(145)	(1,126)	589,742	10.1%	
대 구	9,925	11,781	5,196,888	10,939	11,626	5,446,822	1,014	(155)	249,934	4.8%	
인 천	5,265	5,475	4,396,675	3,763	3,904	4,945,014	(1,502)	(1,571)	548,339	12.5%	
광 주	2,403	2,745	2,085,683	2,996	3,617	4,094,618	593	872	2,008,935	96.3%	
대 전	2,840	3,113	2,580,114	3,241	3,405	2,347,326	401	292	(232,788)	−9.0%	
경 기	15,229	19,345	18,512,407	15,633	19,056	22,471,978	404	(289)	3,959,571	21.4%	
강 원	4,750	5,524	2,467,976	4,331	4,962	2,764,669	(419)	(562)	296,693	12.0%	
충 북	5,295	6,701	3,480,290	4,882	5,800	3,533,089	(413)	(901)	52,799	1.5%	
충 남	3,866	4,093	3,379,644	4,099	4,360	9,229,910	233	267	5,850,266	173.1%	
전 북	2,824	3,459	3,115,457	2,884	3,430	3,767,236	60	(29)	651,779	20.9%	
전 남	3,720	4,982	2,639,012	4,022	4,883	2,645,625	302	(99)	6,613	0.3%	
경 북	5,963	8,396	5,221,792	6,056	8,096	7,224,381	(93)	(300)	2,002,589	38.4%	
경 남	8,712	10,839	6,292,115	8,629	10,217	7,688,720	(83)	(622)	1,396,605	22.2%	
제 주	1,449	1,767	689,746	2,325	2,471	979,879	876	704	290,133	42.1%	
합 계	103,553	122,229	78,209,733	93,953	107,427	97,119,499	(9,600)	(14,802)	18,909,766	24.2%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8月分)

구분 / 용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3,358	3,895	650,448	3,207	3,264	874,562	(151)	(631)	224,114	34.5%	
다세대주택	504	614	222,146	671	722	373,433	167	108	151,287	68.1%	
연 립 주 택	72	434	679,684	85	99	129,662	13	(335)	(550,022)	−80.9%	
아 파 트	174	833	3,446,900	185	801	5,567,390	11	(32)	2,120,490	61.5%	
근린생활시설	3,460	3,750	1,289,324	3,060	3,173	1,318,243	(400)	(577)	28,919	2.2%	
종 교 시 설	97	118	61,765	94	112	82,793	(3)	(6)	21,028	34.0%	
의 료 시 설	25	25	24,617	21	26	131,060	(4)	1	106,443	432.4%	
교육연구시설	164	205	322,927	154	171	428,995	(10)	(34)	106,068	32.8%	
업 무 시 설	132	142	164,928	100	102	558,003	(32)	(40)	393,075	238.3%	
숙 박 시 설	101	102	152,366	106	111	178,636	5	9	26,270	17.2%	
공 장	807	1,316	933,069	761	1,098	1,097,670	(46)	(218)	164,601	17.6%	
기 타	1,629	2,385	1,100,425	1,185	1,449	1,557,267	(444)	(936)	456,842	41.5%	
합 계	10,523	13,819	9,048,599	9,629	11,128	12,297,714	(894)	(2,691)	3,249,115	35.9%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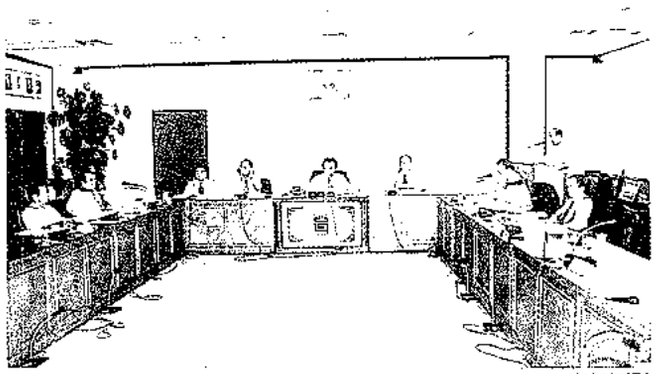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8月分)

구분 / 용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0,611	42,051	8,027,950	32,574	33,191	7,757,939	(8,037)	(8,860)	(270,011)	−3.4%	
다세대주택	8,395	9,115	4,207,170	5,700	6,149	2,888,248	(2,695)	(2,966)	(1,318,922)	−31.3%	
연 립 주 택	520	933	1,353,781	768	979	1,434,436	248	46	80,655	6.0%	
아 파 트	1,448	6,956	29,805,648	1,466	6,178	35,657,992	18	(778)	5,852,344	19.6%	
근린생활시설	30,330	32,038	11,643,361	31,855	32,780	14,572,266	1,525	742	2,928,905	25.2%	
종 교 시 설	938	1,116	760,588	1,044	1,205	926,059	106	89	165,471	21.8%	
의 료 시 설	134	142	222,742	163	190	459,453	29	48	236,711	106.3%	
교육연구시설	1,008	1,296	2,673,422	1,040	1,219	2,886,068	32	(77)	212,646	8.0%	
업 무 시 설	1,073	1,160	2,818,154	892	953	2,932,190	(181)	(207)	114,036	4.0%	
숙 박 시 설	928	988	1,235,893	1,471	1,543	1,918,218	543	555	682,325	55.2%	
공 장	5,882	9,459	7,326,471	6,925	10,310	10,771,924	1,043	851	3,445,453	47.0%	
기 타	12,286	16,975	8,134,553	10,055	12,730	14,914,706	(2,231)	(4,245)	6,780,153	83.4%	
합 계	103,553	122,229	78,209,733	93,953	107,427	97,119,499	(9,600)	(14,802)	18,909,766	24.2%	()=마이너스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규제완화」 요구, 행정쇄신 실무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의"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 상정된 이후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용역업 진출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지난 9월14일 개최된 제57차 행정쇄신실무위원회는 6월29일에 "조건부 부동의"로 결의되었던 사항을 재확인하고 부동의 조건으로 지시한 건설부의 "건축설계 용역업 육성계획(안)" 보고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실무위원회에서의 결의과정을 종결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사회 개최



이사회광경

본 협회의 주요 당면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8월 12일(제27회)과 8월 23일(제28회), 그리고 8월 30일(제29회)에 각각 개최되어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회별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회

- 행정쇄신위원회 자료제출에 따른 용역시행 승인의 건
  - 총회에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 안건에서 폐기하기로 결의함
- 시·도건축사회 간판제작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예비비 사용을 부결하되, 간판제작 비용은 홍보선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함.
- 전문위원 위촉 승인의 건
  - 명칭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급여를 "수당"으로 수정하여 윤동식을 상근전문위원에 위촉하기로 결의함.
- 본 협회 경영진단 용역시행 승인의 건
  -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95년에 추진하기로 변경하여 결의함.
- 행정쇄신위원회 관련 대책에 대한 협의
  - 계속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함.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이용 홍보에 대한 협의
  - 좀 더 연구하기로 협의함.

제28회

- 축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안 하요청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 회장 연석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유보함.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 개정(안) 승인의 건
  - 건설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여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함.
- '94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 추천 승인의 건
  - '94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결과를 보고 설계·홍보위원장 및 회장이 선임하도록 위임 결의함.
- 운영회비 및 연금회비 조정에 대한 협의
  -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협의함.
- 『건축사 수급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에 대한 협의
  - 토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다시 정리하도록 협의함.

제29회

- 축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안 하요청 승인의 건
  - 사영농가 증명을 첨부하면 신고시 35%, 허가시 30%로 경감하고 그외에는 50%를 경감하기로 협의함.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 개정(안) 승인의 건
  - 문구 수정 및 인원수 조정을 김인곤이사에게 위임하고 건설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함.
- 여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소위원회(김인곤, 김규태, 이종관 이사)를 구성해서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95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협의
  -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유보함.
-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
  - 건설부에 제출할 자료를 이종만이사에게 위임하고, 제출된 자료를 임원에게 송부하기로 협의함.
- '94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
  - 설계·홍보위원장 및 회장에게 위임함.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부는 지난 8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중 건기법 21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내용중 기업체의 장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 용역사업 중 설계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시행령 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②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감리업무는 설계의 연속과정으로써 시공과정에서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설계자격을 갖춘 전문인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에서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다.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본격추진

최근 건설부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4. 8.25~9.14)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활발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격적인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동 案은 94년 9월말까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10월중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통과 이전에 수정될 수 있도록 협회는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동법은 금년 정기국회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준비된 후 95년 6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사법 주요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건축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등을 위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입법예고안에서는 건축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계"와 "감리"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나 건축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조성함.
4.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경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삭 제〉	· 건축법 제19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함.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	1.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부칙에서 2000년까지는 건축사보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통산 경력을 인정토록 함.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한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삭제함.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 취득 후 또는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자격시험 합격 후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감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건축주는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건축공사의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 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공사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건축에 관한 분쟁을 조정(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에는 시·군·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간자율신장에 따라 건축주체와 인근주민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94건축사 2차시험 시행공고 확정 발표

본 협회는 94년도 건축사 2차 시험 시행공고를 지난 9월 10일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11월 6일 서울고, 서초고, 양재고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분산, 실시될 예정이며, 설계시험 과제명은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시설로 정해졌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8일에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과 관보에 발표될 예정이다.

94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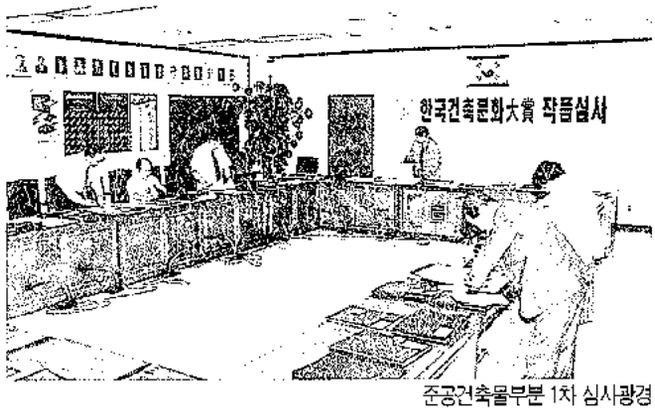
본 협회는 예산절감 유도와 물자관리의 효율화, 주요사업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94년도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본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부감사(김준배, 오인준)에 의해 현지 확인 감사가 실시되며, 각 시·도건축사회는 9월, 10월 중 각 시·도건축사회 감사에 의한 자체 감사를 결과보고에 의한 서면감사로 실시된다.

94년도 시 · 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발표

94년도 시 · 도 건축사회 정기 총회가 10월20일(목) 제주건축사회를 필두로 개최된다.

건축사회명	일 시	장 소	비고
서울건축사회	10.28(금) 13 : 30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건축사회	10.28(금) 10 : 00	파라다이스(해운대)	
대구건축사회	10.28(금)	미정	
인천건축사회	10.25(화) 10 : 00	올림포스호텔	
광주건축사회	10.28(금)	건축사회회관	
대전건축사회	10.26(수)	롯데호텔	
경기건축사회	11. 3(목) 10 : 00	수원부라운관광호텔	
강원건축사회	10.28(금)	춘천관광호텔	예정
충북건축사회	10.31	미정	
충남건축사회	10.28(금)	미정	
전북건축사회	미정	미정	
전남건축사회	10.21(금)	전남건축사회 회관	
경북건축사회	10.28(금) 11 : 00	미정	
경남건축사회	10.27(목) 10 : 30	창원관광호텔	예정
제주건축사회	10.20(목) 15 : 00	제주하나관광호텔	예정

'9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 발표



준공건축물부문 1차 심사광경

본 협회는 21세기 신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울경제신문사, 건설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9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1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은 우원건축(문정일)이 출품한 민정학원이 선정되었고, 본상 4점(비주거3, 주거1), 우수상 2점, 입선 21점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계획 건축물 부문에서는 신인부문 15점과 학생부문 127점이 출품되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22~27page 참조)

서울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강좌 개설

강좌광경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5개월 동안 신행된 「시민건축대학」 제1기 강좌에 이은 제2기 강좌가 9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개설된다.

강의 일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강 좌	강 좌 내 용
9. 5	1강좌	풍수지리
9.12	2강좌	현대건축
9.26	3강좌	건축물 설계
10.10	4강좌	설계도면 읽는법
10.17	5강좌	건축행정
10.24	6강좌	내외장재료 및 설비재료
10.31	7강좌	주택의 에너지절약 지혜
11. 7	8강좌	주방계획 및 시공
11.14	9강좌	한국의 전통건축
11.21	10강좌	주거론
11.28	11강좌	건축물의 시공
12. 5	12강좌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의 VTR시청 · 수료식

중국 '세계 건축잡지사' 취재단 본 협회 방문

취재단과 오응석회장과의 환담광경

중국 북경건축설계연구원 부주임 황남익(세계 건축잡지사 고문)외 2명이 지난 9월 26일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오응석 회장과 함께한 이 자리는 양국 상호 관심사와 중국세계 건축잡지 "한국 특집호" 발간을 위한 취재 및 양국 건축교류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다.

제37회 일본 건축사회 전국대회 개최

사단법인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에서는 오는 10.13(목)~14(금)일까지 일본 애히메(愛媛)현 현민문화회관에서 제37회 건축사회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세도나이(瀨戶)의 자연과 로멘스에 대하여"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 협회 기획부(581-5711~4)로 문의바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개최

김수근 문화재단에서는 제5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을 오는 10월 9일(일) 오후 5시부터 원서동 공간사옥 정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5회 김수근 문화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건축상/우규승(환기미술관)
미술상/박정환(조각가)
공연예술상/조수미(성악가)

'94건축가 포럼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에서는 9월 28일(수)과 10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홍사단 강당에서 '94건축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의 중진건축가들의 건축관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들의 건축을 조명하고 바람직한 건축사조를 세우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참석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참 석 자	주 제	비 고
김정철/강 혁(경상대학)	빛과 사랑의 건축	9월 28일 오후 3시
장석웅/김봉렬(울산공대 교수)	제한된 조건들을 성숙시키는 작업은 그 시대의 인간 삶의 표정이다.	10월 21일 오후 3시

제6차 아카시아 건축사대회 (ARA-6)

■기 간 : 1994. 12. 12~16
■장 소 : 필리핀 국제컨벤션 센터
■주 제 : 건축교육을 위한 혁신
■행사내용 :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제4회 아카시아 건축학생잼버리
-제2회 아카시아 건축상시상식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
-기타 문화행사

■신청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기획부(TEL. 581-5711~4)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94. 12. 11(일)	전 일	골프시합	Puerto Azul
12. 12(월)	09 : 00~12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Puerto Azull 또는 Caylabne Bay Resort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13(화)	09 : 00~12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14(수)	08 : 00~17 : 00	등 록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
	08 : 00~12 : 00	관 광	
	12 : 00~14 : 00	중 식	
	14 : 00~18 : 00	제6차 아카시아 건축사대회 개회식 전시회 개막식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 기타행사 개막	
	19 : 00~23 : 00	환영연회	
12. 15(목)	08 : 00~17 : 00	등 록	
	09 : 00~12 : 00	학술토론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학술토론회	
	19 : 00~23 : 00	우정의 밤	
12. 16(금)	08 : 00~17 : 00	등 록	
	09 : 00~12 : 00	학술토론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종합토론회	
	19 : 00~23 : 00	환송연회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 아카시아 학생상 시상식	